3대째 오로지 전통 수제 작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봉생
빅맨평생통장
■이자가 오르면 오른금리로 내립에는 약정금리로!
■고객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6월 2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존경과 겸손, 만족과 감사 그리고 진리를 듣는 것은 최상의 행복이다. 〈숫타니파타〉

법회 안내

영락사 (02)889-7272
정기법회 매월 셋째주 일 오후2시
신도회간부법회 매월 첫째주 토
청년회법회 매월 둘째 · 넷째주 일 오후4시
학생회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명예회법회 매월 19일(음) 낮 12시

삼장사 (0397)73-2487
일반신도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금 오후8시
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안전운행기도 매월18일(음) 7일간

강릉 삼개사 (0391)43-9234
법회 매월 14일 오전11시
토요법회 매주 토
운전자 안전운전 참공 매월 24일(음) 오전11시

동해 삼락사(0394)31-4082
일반신도법회 매월 22일 오전11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양양 문수사(0396)671-8889
일반신도법회 매월 18일 오전11시
청년부법회 매월 1 4주 일 오후7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원주 법룡사(0371)46-1300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대불련법회 매주 월 오후7시30분
청년회법회 매월 1 · 2 주 화 오후7시30분
군인법회 매주 수 오후8시
어린이, 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춘천 보문사(0361)57-7070
청년회법회 매주 목 오후7시30분
일반신도법회 매월 1일(음)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교권유린에 佛心 '분노'

시국법회 2천여명 동참…공식사과·재발방지 요구

조계사 공권력 난입에 분노한 불자들이 정부 최고 책임자의 공식 사과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불교계 41개 단체가 연대한 6·6교권 유린 범불교 대책위원회(위원장 명진 · 효림스님)는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5일 오후7시 조계사에서 '시국법회'를 열고 정정도량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법어를 통해 "실정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 내려오는 종교의 권위와 역할에 대한 역사적 전통이 임시에 무너져 내린 충격적인 사태에 대해 허탈감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고 "법집행이라는 구실로 공권력에 의존하여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다. 월주스님은 △정부의 고책임자와 불교도들에 대한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확약 △책임자 엄중문책 △구속 노조원들에 대한 관용을 베풀것 등을 정부측에 공식 요구했다.

법회를 마친 후 참가 사부대중은 성지우린에 항의해 촛불을 들고 조계사를 출발해 파고다공원까지 침묵정진을 벌였다.

이에 앞서 범불교대책위원회는 12일 조계사에서 승가 법사 학계 재야 실업청년학생 문화예술, 언론방송, 노동계 등이 참여한 '불교도 108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공권력투입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스님 20여명은 명동성당으로 자리를 옮겨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와 연대해 '성소회복을 바라는 종교인 1천인 선언'을 발표하고 정부규탄대회를 가졌다. 16일에는 4개 종교단체 종교인 4백여명은 조계사를 출발, 명동성당까지 정부에 항의하는 침묵행진을 벌였다. 〈관련기사 3면〉

또 전승련과 조계종 직할사암 주지 연수, 그리고 불국사 동화사등 경북 5개 본·말사와 해인사 쌍계사 본·말사 주지들도 9일과 11일 각각 종교 성역에 공권력이 투입된데 강력히 항의하는 결의문 채택과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조계종은 오는 23일경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조계사공권력 난입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사부대중 2천여명은 조계사에서의 시국법회 참석후 공권력 난입에 대한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파고다공원까지 촛불 침묵정진을 벌였다. 〈사진=박재완 기자〉



◇ 은석국교 3학년 1반 어린이들이 '불자가정' 스티커를 손에 들고 '나는 불자'를 외치며 자랑하고 있다.

'불자 가정' 관심확산

지난 12일 김상희씨가 진행하는 교통방송의 '즐거운 자녁길'(PD 양경석) 1분광고에 '우리는 불자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스티커 붙이기 운동이 소개되면서 전국 불자들의 동참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불자가정' 스티커 1천매 제작 보시금은 1십만원입니다. 또한 남장에 대한 주문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본사는 우편, 전화, 팩시밀리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 즉시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붙이기 동참자

천매이상 : △배인사(주지 도주) △예천 포교원 △인천 전등사 △도봉산 석굴암 △삼성산 삼막사(주지 성운) △보리대원사 천매이하 △한불합창단(단장 정옥란) △광도사(주지 암도) △낙산포교단(단장 정문) △일광사 · 선행회 △경기 대각사 △감로사 포교당(현수스님) △법륜사 △도선사 △법륜사(주지 혜일)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권영부) △백련사(주지 운암) △용산구 묘법사 △김태욱 △강덕호 △진화장 〈무순〉

동참금 입금계좌 안내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
전 화 : 737-8881, 722-4162
팩 시 : 737-0698

현대불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대한불교진흥원

선학원 문제 원로들 나섰다

'특위 지도 고문단' 혜암·석주스님등 6인 추대

선학원 문제 해결에 원로들이 나섰다.

조계종은 지난 13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원로 · 중진 · 특위위원 · 선학원이사등이 참석하는 연석 간담회를 마련 원로들로 구성된 '선학원 특위 지도고문단'의 발족을 결의했다.

이날 추대된 지도고문단은 혜암(조계종 원로의장) 석주(칠보사 조실) 성수(법수선원 조실) 벽암(신원사 조실) 진제(동화사 금모선원 조실) 월주(조계종 총무원장)스님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학원에 대해 △정관 제3조 목적 '대한불교 조계종 종지를 봉대하고' 삽입 △제6조 임원선출 '대한불교조계종 재적 승려 중에서 선출, 다만 선학원 분원장 중에서 3분의 2, 조계종 원로스님 중에서 3분의 1을 선출. 이사장은 조계종 원로의장으로 추대. △선학원 이사를 선출해 조계종 총무원의 취임 승인을 받는다.

또한 관계개선 방안으로 △특별교구화 인정 △종회의원 3인 배정 △도제교육에 대한 분담금 의무 이행 △분원장및 말사주지의 임면은 선학원 이사장이 행함 △선학원에 등록된 사찰 주지는 사자상승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결의했다.

한편 (재)선학원은 조계종의 수정 요구안을 정식 전달받는대로 이사회를 소집 조계종의 결의사항에 대해 대응키로 했다.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 문체부 7일 입법 예고

문체부는 지난 7일 지정문화재 관람료 '예치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일20일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이 개정안은 28일까지 공고된후 법제처 심사와 대통령 재가후에 국회에 상정된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국가지정문화재의 경미한 현상변경행위를 문체부장관의 허가사항에서 제외 △문화재 관람료 징수 · 관리단체 지정제도를 폐지 △사유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의 금액은 소유자가 결정 등.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관람료 예치금제도 폐지 △관람권 검인제도와 관람권 서식제도 폐지 △문화재의 표식안내판 경고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안내판의 문안 감수제도 폐지 등.

목어

몸을 해치는 도끼

〈대교왕경〉(大敎王經)에 이런 말씀이 있다.

"만약 사람이 명리를 구하기 위해 망령된 말을 하는 경우 무거운 과보를 받아야 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도 생을 거듭하면서 수행의 장애를 받는다."

6·27선거가 이제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 일꾼이 되겠다는 15,427명 후보들의 '말의 성찬'이 전국 곳곳에서 푸짐하게 차려지고 있다. 후보를 지지하는 후원자들, 성찬에 초대받은 유권자들 모두 조금씩 들떠 나라안이 마치 잔치집 분위기다. 이런 마당에 부처님 말씀을 새겨보는 이유는 선의의 경쟁자들이 행여 당선에 눈이 멀어 지나친 공약을 내걸거나 다른 후보를 비방할까 염려해서다.

선거중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공명선거를 위한 계몽·감시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선거에서는 '말'이 난무한다. 정어(正語)가 아닌 말은 듣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부처님께서는 일러주셨다.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하는 것이 말이다.

6·27고지를 향해 뛰는 후보도 거기 휘말려서는 안된다. 진실을 보는 안목을 지녀야 한다. 한가지 더 첨언한다면 유권자들이 합연 학연 지연에 종교색까지 더하는 '편가르기'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후보는 바른 말을 하고, 유권자는 바르게 듣고 신중히 주권을 행사해야만 밝은 지방자치를 기대할 수 있다.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이야 말로 몸을 해치는 도끼요, 몸을 죽이는 칼날이니 입지키기를 사나운 불 지키는것보다 더욱 조심해야 한다."

보은경(報恩經)

독자페이지 14면
20면 발행
종은 방송 만들기 한뜻동참 19면
태고종 개혁안 발표 「새출발」 18면
하와이 국제 불교학술대회 15면

"패션 자동차 시트카바"
ALT-X
AUTO DRESSING SHOP


① 이태아 ⑥ 아우토반
② 아네모네 ⑦ 미스터집
③ 문 ⑧ 아로스
④ 타겟 ⑨ 루미너스
⑤ 트리플 ⑩ 시그널
인천연수점 (032)812-9553

■ 체인점 모집
• 모집조건
평수 20평이상 소유하고 제신문 기타 - 주유소, 대형카센터리어, 백화점 등 문의 받습니다
• 체인사업부
TEL (032)812-9304~6
담당자 차장 이병우

■ ALT-X체인점
인천연수점 (032)812-9553
서울강남점 (02)556-4468
서울북부점 (02)9923640
서울구로점 (02)808-3441
의정부점 (0351)872-2192
안양점 (0343)53-9263.4
수원점 (0331)38-8280.1
대구서부점 (053)654-6204
대전서구점 (042)633-7071
전주점 (0652)74-0072
광주북구점 (062)524-4255
제주점 (064)58-2660.1

■ 사원모집
• 모집분야
1. 카피라이터
2.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3. 린넬 디자이너
(각항 2년제 졸업이상자)
• 홍보부
TEL (032)816-7053
담당자 부장 장영용

Aquam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6-7 67블록 8호지
TEL (032)816-8501~8 FAX (032)816-8505

사 설

여름 휴가철이 가까워지면서 교계 신문에 사찰에서 주관하는 수련회 모집 광고가 눈에 띄고, 각 단체에서는 하계 수련회 장소를 물색하는 어려운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아무리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하는 사바세계라지만 도시의 생활은 오탁악세의 죄어듦이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복잡한 교통지옥, 메스꺼운 매연, 탁한 물, 딱딱한 시멘트 건물, 혼탁한 인심, 이 모두가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이로 인해 미쳐서 터질 것만 같은 일생생활을 참아 넘길 수 있는 도시인들의 탈출구는 오직 산이나 바다 뿐이다.

사찰은 부처님이 계신 곳이며 부처님은 중생들의 쉴 곳을 제공해주고 안온한 휴식을 갖도록 하는 법문을 활짝 열어 놓은 곳이다.

수련회는 사찰에서 신심을 다지며 스님들의 수행생활을 잠시라도 닮아보는 참으로 좋은 기회이다. 대부분 수련회를 다녀온 사람들은 불교를 이해하고 신심이 확고히 다져졌다는 말을 하고 생명의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련회가 불교포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수련회에 가려고 장소를 물색하다 보면 대단히 어려운 사안에 먼저 부딪치게 된다. 대부분의 사찰에서 수련회 받기를 꺼려한다. 물론 사찰측에도 어려움은 많다. 먼저 공양준비에 인력이 부족하며, 사찰 경영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탁악세의 도시에서 탈출해 잠시나마 스님들의 수행생활을 답습하여 마음의 해탈을 염원하고 부처님께 의지하여 보겠다는 중생들을 대비심으로 수용하여 주어야 하리라 본다. 그리하여 짧은 수련기간이나마 철저한 지도로 깨달음의 길로 가도록 채찍질해 주셨으면 한다.

또 수련단체들도 요즈음은 경제적으로 사찰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안에서 수련에 임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굉소 용돈을 조금씩만 절약하여도 충분한 수련회비로 떳떳하게 사찰의 혜택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련을 관광놀음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단기 출가라는 정신으로 단 며칠이라도 철저한 금욕으로 자신을 채찍질하여 인욕하고 정진한다면, 수행이 고되면 고될수록 생의 보람은 더 커질 것이다.

시한부 출가로 삶의 활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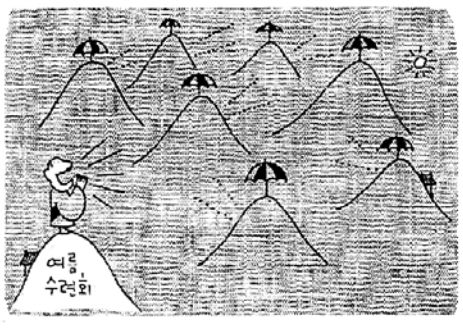
근년 송광사에서 단기출가형식의 수련대회를 계획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통도사나 해인사에서도 소정의 과정으로 수련생을 모집하여, 포교의 효과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찰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며 이에 따르는 교육 프로그램도 사찰규범을 준수하면서 현대인에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또한 포교원이나 교육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종단의 각 사암을 조사하여 장소를 찾지 못하는 신행단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아울러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보급해 주었으면 한다.

제발 찾아다니지는 않더라도 찾아오는 사람이라도 잘 수용하여 제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불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열린불교의 마당에서 마음을 열어 놓고 안심할 수 있는 부처님의 품안을 만들자.

현 대 만 평 박 구 원



알찬 준비하세요

◇사찰·신행단체 여름수련법회 일정

주 최	기 간	대 상	문 의 처
통 도 사	7. 10~8. 9	일반, 어린이	0523)82-7182~3
해 인 사	7. 1~8. 12	일반, 초·중·고생	0599)31-1001~2
송 광 사	7. 2~8. 10	일반, 교사, 불일회원	0661)53-2130~2
대 흥 사	7. 2~7. 20	일반	0643)34-5502~3
봉 선 사	7. 25~7. 28	어린이	0346)555-5974
범 어 사	7월말~8월초 예정	어린이, 일반	051)508-3127
직 지 사	7. 10~8. 10	일반, 청년, 종립학교	0547)436-6606
월 정 사	7. 7~8. 9	일반	0374)32-6664
표 충 사	7. 25~8. 5	일반	0527)52-1070
대 원 사	매주 토·일	일반	0694)52-1755
화성 신흥사	7. 23~7. 30	초·중·고생	0339)57-2695
금강정사	7. 25~8. 3	초·중·고생 청년	02)893-2700
광주 관음사	8. 19~20	일반	062)223-7666
광주 덕명사	7월말~8월초 예정	일반	062)365-0367
무 량 사	8. 10~8. 12	어린이, 일반	032)575-3882
까치마을회	7. 23~7. 27	초·중·고생	02)876-3384
정토수련원	6. 21~8. 27	초·중·고·일반·대학생	02)522-2841

열 린 마 당

여름 수련회

늘 실천할 수 있는 올곧은 신행 길잡이

현 장스님



나날이 바쁘게만 돌아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메말라가는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신심있는 불자들의 각종 수련회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각 사찰과 신행단체의 수련회들은 염불, 참선, 교리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저마다 불자들을 올곧은 신행생활로 이끌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여름 수련회는 방학과 휴가를 이용, 많은 어린이 청소년 직장인 불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수련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일상에 지친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재충전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이어가는 수행의 연속선이 바로 여름수련회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딱딱한 강좌의 연속보다는 불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는 실질적 방법, 즉 마음 다스리는 법과 염불, 참선, 교리강좌 등이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

또한 좌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선하는 법도 불자들에게 가르쳐 계속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여름수련회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지도법사와 스님 등 지도자 양성, 어린이 중고생 청년 일반인 등 각 연령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관건이므로 주최측에서는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춰 프로그램을 짜야 할 것이다.

〈대원사 주지〉

알음알이로만 접한 불법 몸으로 체험을

이 양 길원장



사찰에서 주관하는 여름수련법회일정이 속속 결정되고 있다. 금년에는 해인사 송광사 직지사 등의 대규모 사찰뿐 아니라 대원사 등 지역 사찰에서도 수련법회를 마련해 놓고 있다.

현실생활에서 불교적 실천을 닦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옛부터 도반과 함께 서로 탁마하는 수행관습이 이어져 왔다. 산사에서 도반과 함께 시한부 출가정신으로 수행에 임한다는 것은 재가불자로서 더할나위 없는 좋은 인연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인연을 준비하는 불자들은 먼저 원력을 세워야 하겠다. 불교의 긍극적인 자리인 깨달음을 얻고야 말겠다는 대원이다. 이러한 원력에 따라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자신과의 싸움에 임한다면 앞으로의 삶은 예전과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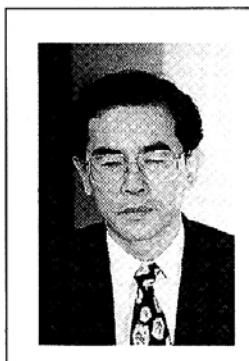
사찰수련법회는 초심자에게 발우공양, 결가부좌의 좌선, 예불등이 육체적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따라서 수련법회에 앞서 틈틈히 결가부좌를 해보는 것도 시한부 출가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련법회에서는 간단한 개인도구만을 요구한다. 잡다한 물품을 법회장까지 가져오지 않도록 하자. 카세트나 여성불자들의 화장품 등은 자신뿐 아니라 도반의 수행에도 피해를 준다. 수련법회는 철저한 무소유의 실천 속에 진행되어야 한다.

사찰수련법회의 의의는 신행의 확인이다. 세속의 생활속에 알음알이로만 접해온 불법을 몸으로 체험하는 자리이다. 불법을 체험하는 자리에 가족은 물론 이웃과 함께 한다면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가까운 곳에서 도반을 찾아 뜻깊은 사찰수련법회가 되도록 해보자. 〈직지사 연수원〉

시 론

'최후 보루'는 존재해야 마땅



성 태 용
〈건국대 교수·철학〉

정치 권력은, 특히 정당한 권력의 정당한 행사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의 정치권력은 그 권력의 행사에 지나친 점이 없는가를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에 의한 정당한 권력의 행사라는 것이 수없이 저질러진 끔찍한 정치권력의 폭거에 늘 붙었던 수식어였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디 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만능의 잣대가 아니다. 그것은 본디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에 대한 규정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법의 집행에는 항상 두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를 무너뜨려서는 안된다는 명제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형식화된 법의 집행이 법의 목적인 사회정의의 실현에 역행하지 않도록, 법의 지혜로운 적용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는 명제가 있다.

거기에 덧붙여 공권력에 의한 법의 집행은 특히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약자를 억누르는 결과를 낳지는 않는지, 공권력에 의한 법집행이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 그런 잘못을 범한 공권력에 의한 법집행은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잃고, 법과 공권력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런 권력과 법의 성격에 비추어 이번 조계사와 명동성당의 경찰력 투입은 어떤 쪽에 해당되는 것일까. 언론과 정권의 절묘한 협력의 결과, 과연 한국의 법질서 수호에 금자탑이 될 만한 일을 이루어 낸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만능의 잣대 아니다

우선 사안을 보자. 한국통신이 갖는 특수한 위치를 감안한다 해도 한국통신 노조의 법법행위라는 '이사회장 점거, 회의진행 방해'라는 것이 조계사와 명동성당이 갖는 상징성을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법을 집행할 사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전복음모'니 하던 과업이 가져올 끔찍한 위기상황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선입견적인 예단에 불과할 수 있다.

기성의 언론들은 무책임하게, 또 교묘한 어투로 그 경찰력 투입을 부추겼고 또 투입 이후에는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 하고 있다. 언제부터 한국의 언론들이 이렇게 약자의 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함을 지니게 되었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힘에 도취하여, 기득권을 가진 자로서의 위치에서 판단하는 습성에 젖어버린 것은 아닌가. 또 자신들의 막강한 힘에 도취하여 자신들의 판단으로 국민 대중과 정치 권력을 마음대로 이끌 수 있고, 또 이끌어도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하여 어떤 일이 저질러졌는지 그들은 아직도 모르는 것인가.

법에 앞서 존중돼야

종교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심성의 발로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종교적인 판단은 가장 순수한 인류애에 입각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한국 종교의 대표적인 교단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다면, 그것은 법에 앞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은 공권력의 근원인 수많은 국민 대중의 뜻을, 법과 다른 측면에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공권력에 의한 법집행이 정당한가를 묻는 시금석이어야 한다. 그 시금석을 너무도 쉽게 "법에는 성역이 없다"는 논리로 밟아 뭉개버린 것이다.

정부는 어찌하여 정말 한순간의 성급한 공권력의 집행에서 오는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성역' 조차 인정할 아량을 지니지 못하는가. 한국의 양심을 대표한다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뜻을 그렇게 쉽게 무시할만큼 국민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정통성'을 지닌 정부라고 자만하는 것인가.

물론 종교 교단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경찰력 투입이라는 가장 졸렬한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지속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종교 교단이 스스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주어야 한다.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일은 일과성의 일로 의미가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의 정권은 이미 불교계에 몇차례 올바르지 못한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흠을 지니고 있다. 뒤이어 터진 이번 사태는 그러한 잘못들이 근본적으로 정치와 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본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모든 국민들은 지금의 정권이 과연 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엄하게 물어야만 할 것이다.

중앙승가대학 발전위원회 창립법회 기부자 명단(4월 7일 서울)

성명(법명)	소 속	약정액(단위:원)
보각스님	중앙승가대학 교수	일 억
송산스님	중앙승가대학 하장	오천만
현근스님	조계사 주지	삼천만
점관스님	범어사 주지	이천만
동광스님	도선사 주지	삼천만
무상스님	봉은사 주지	삼천만
지홍스님	신흥사 주지	천 만
종엽스님	화엄사 주지	천 만
철웅스님	마곡사 주지	천 만
지선스님	백양사 주지	천 만
법장스님	수덕사 주지	천 만
중원스님	제주 관음사 주지	천 만
종하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천 만
범산스님	부산 영주암 주지	천 만
청화스님	중앙종회의원	오백만
김수정·최경영	신도	오백만
정인스님	중앙승가대학 교수	삼백만
자광스님	김룡사 주지	삼백만
법등스님	도리사 주지	삼백만
장기옥	신도	삼백만
승가대 90학번		이백만
승가대 92학번		이백만
증림스님	중앙종회의원	이백만
원소스님	중앙승가대학 7회 동문	백 만
이철의원	국회의원	백 만
각철스님	중앙승가대 교육원 교수	백 만
경완스님	보현사 주지	백 만
효종스님	중앙승가대학 2회 동문	백 만
광선스님	영선암 주지	백 만
보화스님	중앙승가대 10대 동문회장	백 만
박성균	봉은사 신도	백 만
한성룡	유한 K.N.C	백 만
구상진		백 만
최후짐	현대정경아카데미 연구소장	백 만
양회자	봉은사 신도	백 만
보각선원 신도회		백 만
이차갑	봉은사 신도회장	백 만
박면수	삼풍건설 설계사부소 사장	백 만
선나형	조계사 신도	백 만
박진성	수미산여행사 사장	백 만
김양수	광중여고 교사	백 만
중서스님	순천 흥륜사 주지	백 만
불교방송 에머넘창단		판십만
지영스님	삼성암 주지	오십만
박윤흔	전 환경처 장관	오십만
박소영	봉은사 신도	오십만
김정선	봉은사 신도	오십만
전성자	봉은사 신도	오십만
보각선원 합창단		오십만
손정옥	한국중소기업육성정책연구회	삼십만
최병춘	세무회계사	삼십만
석왕사 합창단		삼십만
조흥식	성균관대 교수 서울불일회 회장	삼십만
박관석	봉은사 신도	삼십만
김양경	신도	이십만
김창순	봉은사 신도	이십만
설성구	봉은사 불불회	이십만
이윤숙	승가대 교육원 교수	이십만
진금선	조은어린이집	이십만
조명렬·홍윤식	승가대 교수, 동국대 교수	이십만

●무명으로 보시하신 분들 : 삼십칠만원●

4월 7일 이후 기부자 명단

	중앙승가대학 3회 동창회	오천만
무산스님	낙산사 주지	천 만
태윤스님	(주) 불교TV 사장	천 만
이주역	(주) 다산실업	천 만
장귀옥		삼백만
백승록		오십만
최영재		삼십만

한국불교중흥회 중앙승가대학 발전을 위한 기원대법회 기부자 명단(6월 9일 부산)

이도호스님	소림사 주지	일십억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 회장	일 억
허도룡스님	천불사 주지	이천만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회	일천만
대행스님	한마음선원 원장	일천만
사상호	부산불교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일천만
청하스님	봉도사 부방장	일천만
이혜총스님	대한불교신문사 사장	일천만
강덕륜스님	선암사 주지	일천만
중견스님	육광암	오백만
윤보정스님	심우정사 주지	오백만
홍보해스님	범륜사 주지	오백만
안종학스님	불광사 주지	오백만
정인스님	중앙승가대학 교수	삼백만
정덕갑(백련화)	백련암 대표	삼백만
이부자(각화성)	법어사 신도	삼백만
신지원스님	보림사 주지	이백만
석십산스님	봉도사부산포교원 주지	일백만
이구이영(성도행)	부산불교연합회합창단 단장	일백만
성경자(여재장)	맑덕 보현사	일백만
	선재 장학회	일백만
	법어사 지장회	일백만
	법어사 관음회	일백만
문경환(원생)		일백만
랑사숙스님	비룡암 주지	일백만
유영주(일부심)	부산불교연합회 합창단 단원	일백만
남옥희	오승관광여행사	일백만
김희화	천불사 신도회	일백만
김계전스님	국청사 주지	일백만
정법인스님	보덕사 주지	일백만
김화용		일백만
박순곤	불교부산방송 본부장	일백만
박장산스님	동명불원 주지	일백만
김태연스님	원각사 주지	일백만
석진오스님	수도암 주지	일백만
김정각스님	부산불교 자비원 원장	일백만
심금조(금륜월)	법어사 성불회 회장	오십만
허덕수	활천 한의원	오십만
유성우스님	서운암 주지	오십만
최인환스님	보광원 주지	오십만
왕선자(정토행)	부산여성불자회 회장	오십만

감사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항상 수행에 힘쓰시는 스님들, 그리고 높은 원력으로 공덕을 쌓으시는 불자님들, 하시는 일 모두 원만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불교의 승가교육을 대표하는 중앙승가대학은 승려의 기본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인 공인을 받고 세계적 수준의 불교대학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중앙승가대학 발전위원회 창립법회'를 봉행하였고, 6월 9일 '한국불교중흥과 중앙승가대학 발전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스님들과 신도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기관장 등 내·외빈의 성원에 힘입은 바 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행사에서 여러분이 보여주신 정성 하나하나는 학교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앙승가대학은 전국 각지에서 불자들의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중앙승가대학은 불자님들의 성원을 학교발전, 불교발전으로 보답할 것도 이 지면을 빌어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불자님들의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39년 6월 13일

중앙승가대학 발전위원회 위 원 장 원 주 합 장
중앙승가대학 발전위원회 운영위원장 송 산

김대유(승암)		오십만
	법어사 합창단	오십만
김점수스님	부곡암 주지	삼십만
	영주암 합창단	삼십만
박재우	문수암 신도	삼십만
김매준(광영심)		삼십만
이수련(법계성)		이십만
윤경숙(승련)	감로사	일십만
오철판(무공)	한국불교태고종	일십만
김종학(녹원)		일십만
이종판	고등학생불교지도자회 회장	일십만
이성오	보현행원단 단원	일십만
성순남	보현행원단 부회장	일십만
신정훈	보현행원단 단원	일십만
김정일(불심회)	법어사 지장회 회원	일십만
강신숙(일광)	부산불교연합회 합창단 단원	일십만
김항근	영주암 신도	일십만
정효임	보현행원단 단원	일십만
장득이(길상화)	영주암 합창단 단원	일십만
정혜정(청정심)	영주암 신도	일십만
심봉갑	부산불교 화랑회 회원	일십만
김용호(각왕)	국군부산통합병원 불교회장	일십만
이응수(묘음)	부산 장천사	일십만
이말복(월인성)	영주암 신도	일십만
김성극(서운)	법어사합창단 지휘자	일십만
유선자(신일심)	보현행원단 부회장	일십만
김상숙(보덕신)	영주암 신도	일십만
김계향	부산불교연합회 합창단 단원	일십만
김정숙(보덕행)	영주암 신도	일십만
남영숙(환희행)	부산공덕원 신도	일십만
이영자	봉도사부산포교원 신도	일십만
문엄진(상생화)	법어사합창단 단원	일십만
도덕선(원민성)	법어사 관음회 회원	일십만
장순옥(보리화)	법어사 지장회 회원	일십만
조숙이(대도행)	법어사 지장회 회원	일십만
신종섭(반야시)		일십만
정정자(무심월)	보현행원단 단원	일십만
허보은(일월)	천불사 신도회 회장	일십만
홍달임(대법화)	보현행원단 총무	일십만
장선동(법연지)	영주암 신도	일십만
허명란(법혜화)	영주암 신도	일십만
황혜조스님	청혜원 주지	일십만
조귀남(일실지)	부산불교연합회 합창단 단원	일십만
문명희(보연행)	보덕사	일십만
박정진	부산시 가정복지 국장	일십만
김월강스님	금어암 주지	오 만
김정희		오 만
변정석(청송)	천불사 신도회 총무	오 만
문숙(수행)	영주암 신도	오 만
김미혜자	영주암 신도	오 만
김문이	영주암 신도	오 만
김성자		오 만
구인자(정인행)	법어사 지장회 회원	오 만
차옥희(도선화)	소림사 신도	오 만
이재원	법어사 신도	오 만
김경옥	천불사 신도회 회원	오 만
김병숙(지행심)		오 만
김행임	부산불교연합회 합창단 단원	오 만
김종숙(보덕수)	부산불교연합회 합창단 단원	오 만
김무명	부산불교연합회 합창단 단원	오 만
이정순(반야심)	영주암 신도	오 만
유복미	부산불교연합회 합창단 단원	오 만
이복선(전법행)	부산공덕원 신도	오 만
현봉선(지인)		오 만
이철수(혜원)	법어사 신도	오 만
이순옥	백련암 신도	오 만
조영주(성지화)	중생사 신도	오 만
이혜성스님	망월사 주지	오 만
황순옥(인락행)	중생사 신도	오 만
이영자(보덕문)	부산공덕원 신도	오 만
양현진		오 만
송금호	보현행원단 단원	오 만
서정락(도성)	부산불교중학생지도위원회 회장	오 만
홍정숙		오 만
김근수(법안)	원간 대종불교 부산기자	오 만
최감애(만리정)		오 만
정연화(진성화)	법륜사 신도	오 만
박정자(보리자)	법어사 관음회 회원	삼 만
이가훈	중명사 신도(고1 학생)	삼 만
서윤수	백련암 신도	삼 만
백목림(묘연심)	대한민국 성지여성 관각회	삼 만
이금자	해운정사 신도	삼 만
정황선(해월심)	부산 성지여성 관각회	삼 만
강혜숙(미니공)	부산불교연합회 합창단 단원	삼 만
강원조스님	불국암 주지	삼 만
김명애(청등심)	봉도사 백련암 신도	삼 만
장묵순(보현행)	법어사 신도	삼 만
조윤칠(범상)	대한불교 자비회	삼 만
최용석	중명사 신도(고2 학생)	삼 만
조애자(복덕화)	보현행원단 이사	삼 만
진순애(일심화)	부산불교연합회 합창단 단원	삼 만
전정심	부산불교연합회 합창단 단원	삼 만
김안숙(관덕성)		삼 만
김안숙	영주암 신도	이 만
김무임	봉도사부산포교원 신도	이 만
하순진(법승화)		이 만
하순교(대원심)		이 만
박길연(묘명심)	영주암 신도	이 만
한춘월(대법심)		일 만
박창인	신망회	금일봉

●무명으로 보시하신 분들 : 오십이만 천원●

6월 13일 현재 후원회원 가입 현황

성명(법명)	구좌수	성명(법명)	구좌수
김 령	1구좌	김수연	2구좌
박종학	부정기	김지훈	1구좌
이영춘	1구좌	정규성	2구좌
양혜련	5구좌	박수안	4구좌
조호용	2구좌	이석준	1구좌
박정일	1구좌	황성문	1구좌
유홍준	1구좌	김영은	1구좌
이경증	1구좌	이보현	1구좌
이병우	10구좌	한명수	1구좌
조현석			

(1구좌 1만원)

후원하실 분을 모십니다

후원하실 분은 아래와 같이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서울 : 중앙승가대학 발전위원회
전화:(02) 929-9831, 926-4377
부산 : 중앙승가대학 부산, 경남지역 후원회
전화:(051) 867-0501
지로번호 : 7607532 중앙승가대학 발전위원회

6·6 공권력 투입과 '시국법회' 이후

정부사과 관련자 처벌이 열쇠

'성지유린' 규탄확산 종교계 총력대응



"성지 난입 묵과할 수 없다" 불교·천주교·개신교·원불교등 4개 종교단체가 연대한 '성소회복을 위한 종교인 행진' 대회가 지난 16일 오후1시 조계사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4백여 종교인들은 조계사에서 명동성당까지 이르는 성지유린 규탄 가두 침묵행진을 벌였다.

공권력이 투입된지 열흘만인 지난 15일 조계사에서 열린 '시국법회'는 청정도량을 지켜내겠다는 2천만 불교도들의 강한 의지를 교계내외에 표출시킨 법회였다.

조계사 공권력 투입 바로 다음날인 7일 조계종 총무원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의 공식사과와 관계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등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묵살했으며 전불련, 실천승가회 등 재야세력들은 총무원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표출했다. 결국 지선, 청화, 명진스님을 비롯 실천승가회 등 개혁주도세력들의 조계종 임시중앙종회 개최요구와 범불교대책위원회의 강도높은 대 정부 규탄이 계속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다시 시국법회를 통해 공권력투입을 '성역유린과 권위주의 통치방식'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사태재발방지 확약, 내무장관등 관련자 처벌, 구속노동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등 대정부 규탄 수위를 한차원 높였다.

지난해 9월 전기협 노조사태 때는 조계사에 난입한 공권력에 대해 일부 재야단체들의 목소리만 높았을 뿐 개혁회의는 아무런 대책없이 호법부장이 사퇴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지었다. 이것은 과도정부격인 개혁회의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미뤄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이번 한통사태를 맞아 조계종이 과거와는 달리 사태발생 이틀만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 원만한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려 한 것은 개혁종단이 출범후 첫 시험대라는 부담과 함께 불교 위상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소신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등 타종교 단체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 제고와 함께 외부로 비쳐지는 타종교단체와의 연대속에 나름대로의 몫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교를 비롯 천주교등 종교단체의 반발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것과는 달리 정부는 종교계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이번 사태로 인한 정부와 종교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이번 사태가 사회, 경제, 남북문제, 민족화합등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를 안은 상황에서 정부, 종교계간의 화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민들간에 형성될 경우 정부의 태도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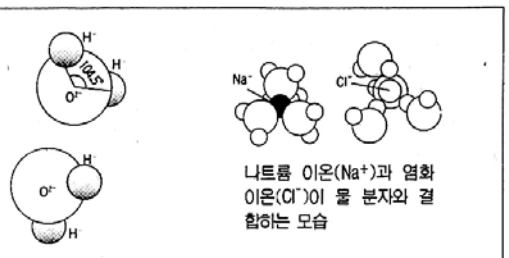
또한 '양심'의 상징인 종교성지를 지켜내겠다는 종교인들의 의지를 정부가 얼마나 정확히 읽어내느냐에 따라 사태해결의 시기와 방법이 상당부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명우 기자

산소와 수소 원자 결합 생명체 유지 용매 역할

물의 세계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⑮



나트륨 이온(Na^+)과 염화 이온(Cl^-)이 물 분자와 결합하는 모습

◇물 분자의 모형

상응아함경에는 부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만약 여기 물의 세계가 괴로움을 수반하면 괴로움을 드러내고 즐거움을 드러내지 않는 순전한 괴로움이라면, 뭇삼들은 물의 세계에 탐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로 물의 세계가 즐거움을 수반하고 즐거움을 드러내고 괴로움을 드러내지 않으며, 즐거운 까닭으로 물의 세계에 탐착한다."

물은 아주 매력적인 분자구조를 갖고 있다. 물은 분자구조상 산소원자 하나에 수소원자 둘이 결합해 있는데, 두개의 수소원자가 그림처럼 묘하게 104.5°의 각을 이루고 있으면서 마치 한쌍의 뿔처럼 한쪽에 쏠려 있다. 물은 지구상의 대부분의 화학반응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생체내에서의 생화학 반응을 이끌고 있어 생명체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능력은 물의 분자구조상 특징에 연유하는 것이다. 전자를 주는 수소는 양전기로 대전되어 있고 전자를 받는 산소는 음전기로 대전되어 있다. 이런 이중구조의 특징으로 인해 용이하게 화학반응하며 고체(땅)뿐만아니라 기체(바람)를 잘 용해시키는 용매로서 생명체를 수반한다.

불(熱)과 관련해서는 다른 모든 물질은 온도가 내려갈수록 밀도가 커지는데, 물은 4℃일 때가 최대여서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만약 물의 밀도가 커질수록 온도가 내려만 간다면,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높은 압력으로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수중생태계는 지탱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물은 불(태양열)을 흡수했다가 서서히 방출함으로서 지구의 온도를 조절한다. 지구와 태양에서 같은 거리에 있지만, 물이 없는 달의 표면은 낮에는 영상 125℃이고 밤에는 영하 160℃로 떨어진다. 그 이유는 달에는 물이 없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태양과 같은 불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물의 순환이 시작된다.

지상의 물은 증발되어 수증기가 되어 대기권에 머물다 비나 눈이 되어 떨어진다. 그중 대부분은 바다에 다시 떨어지고 10%가 육지에 떨어져서, 산림에 의한 증산활동으로 다시 지상의 비가되어 순환한다.

이처럼 물은 유연하고 만유를 포섭하는 매력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청을 넘어서 인간의 탐착의 대상이 되어왔다. 물론 그 탐착은 위와 같은 물의 성질을 잘 모르는 인류의 근시안적 탐착이었다. 그 결과 무한대로 엄청날 것 같은 지구상의 물은 심각하게 오염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물의 오염을 통해서 비로소 물의 세계의 괴로움의 실상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일 수도 있다. 1㏄의 생채내의 물인 침속에도 5억의 세균의 생로병사를 수반하는 물의 생태계의 실상에 눈을 떠보라. 우리는 물에 대해 탐착하기 보다는 자비와 인내를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계(水界)의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보는 전도된 망상과 탐욕이 물의 세계의 본래적인 괴로움을, 비구름의 산성화, 하천오염, 지하수오염, 해양오염을 통해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물의 세계를 향락하는 자는 괴로움을 향락하는 자이며, 그 괴로움을 향락하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물없는 달표면 일교차 285℃ '죽은 땅'

신행수첩

역대조사 깨달음 세계
원효학당 전등록 강좌

역대 조사(祖師)들의 깨달음의 세계를 엄격하고도 정확하게 풀이해 주는 이기영박사(한국불교연구원장)의 원효학당 '전등록(傳燈錄) 강좌'가 개설된다.

송나라 도원스님이 지은 전등록은 과거칠불(過去七佛)로부터 역대 선종 조사들의 계보 및 법문과 어록을 적은 책으로,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깨달음의 체험과 인생의 핵심을 찌르는 법문들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강의는 7월4일부터 3개월간 매주 화요일 10시30분~12시까지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5만원. (02)3411-6167~8.

공덕경 독송 철야예불
문수·보현회 칠불사 참배

하룻밤을 꼬박 새우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보람된 삶을 위한 서원을 한다면 비록 몸은 피곤할지라도 마음은 하늘하늘 봄바람처럼 가볍고 향기로울 것이다.

체계적인 경전공부에 몰두해 온 문수·보현회(회장 공세화)가 삶의 지혜를 찾아 오는 7월 8일, 9일 이틀간 경남 하동 칠불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도중에 성철스님의 고향인 경남 산청도 둘러보고 칠불사에서는 문수보살 예찬문과 약사유리광여래 칠불본원 공덕경을 독송하며 철야예불을 올린다.

밤빛이 고운 요즘 부처님과 하룻밤을 마주하며 마음으로 대화하는 자리에 많은 이들의 참여를 권해본다. (02)739-5008

문화·역사 숨쉬는 남도
도갑사·무위사 순례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 유홍준교수는 답사일번지로 남도땅을 지적했다. 호남의 남쪽은 문화와 역사가 살아숨쉬는 현장이라는 유교수의 설명이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때에 조계사 대승불자회가 이곳 남도땅 영암의 도갑사와 강진 무위사로 구도행각을 떠난다.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구도법회는 참배뿐 아니라 문화답사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도갑사와 무위사는 모두 천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갑사에서는 우리나라 풍수지리설의 시조인 도선국사의 향취를 느껴봄직도 하다.

대승불자회는 남도땅에서의 구도법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관촉사를 참배할 예정이다. (02)736-4848

건강한 젊음 밝은 미래
약물남용 예방 교양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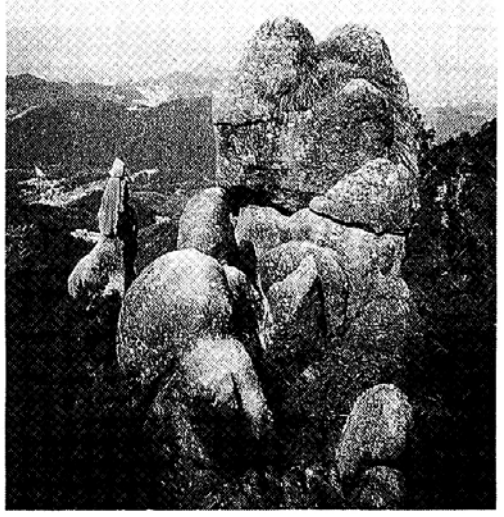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고 맑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예감케하는 싱그러운 들꽃과도 같은 존재다.

고도로 발전된 산업사회의 수많은 유혹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내고 그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자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각스님)은 오는 21일 오후 4시30분 송파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청소년 약물남용예방을 위한 '우리의 미래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제목의 교양강좌를 실시한다.

초청강연으로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이해시키고, 약물의 남용의 실태를 '우리 아이들의 나라는'이란 연극을 통해 알리게 될 이번 강좌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꾸려나갈 이정표를 세우는 소중한 인연의 자리가 될 것이다.

(02)421-6077~8

◇불교신행연구원 성지순례단은 지장보살의 성지인 구화산을 비롯 보타산, 낙가산, 국청사등을 참배한다. 〈사진은 구화산 관음봉〉



천혜의 관음·지장도량
중국불교성지 순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올바로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 문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아닐까.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은 오는 20일 우리나라 불교문화와 가장 연관이 깊은 중국으로 제1회 불교성지순례를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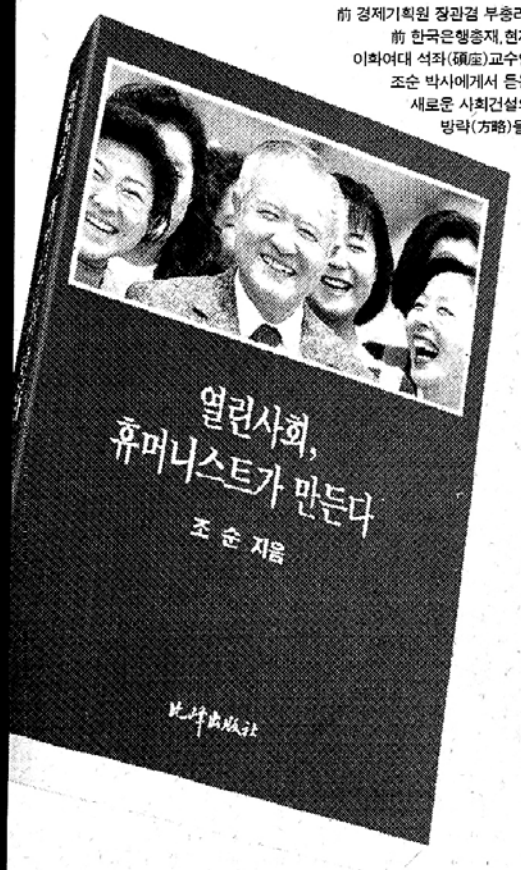
관세음보살의 성지인 보타산과 낙가산, 지장보살의 성지인 구화산, 천태종의 발원지인 국청사 그리고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며 그 아름다움을 격찬하는 물의 도시 소주와 지상의 낙원인 항주… 등을 둘러보게 된다.

이번 답사를 통해 깊은 신심과 중국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알차게 배우고 살피는 이번 성지순례에 뜻있는 불자들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 (02)544-1533

내일의 새싹 지혜와 자비로 키우세요
불교교육연, 어린이 지도자 강습회

신록이 푸르게 물들어 햇빛에 빛이 발하는 계절, 불교교육연구원(원장 황학현)에서는 어린이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오는 24일과 7월8일 2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강습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여름 불교학교를 위한 것으로 어린이 지도교사에게 요구되는 교과과정및 교수방법론을 연구·수업한다.

선착순 60명에 한하는 이번 강습회는 어린이 지도교사 스스로에게 어린이들을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지혜롭고 자비롭게 키우는 일보다 보다 나은 내일을 여는 지름길이 없음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02)725-7527



20년간의 수퍼 베스트셀러 〔경제학원론〕의 저자, 前 경제기획원 장관겸 부총리, 前 한국은행총재, 현재 이화여대 석좌(碩座)교수인 조순 박사에게서 듣는 새로운 사회건설의 방략(方略)들.

빗방울 하나씩 모여 썩은 강물 씻어내듯
작은 별 하나씩 모여 어둔 하늘 밝히듯
우리도……

열린사회, 휴머니스트가 만든다

조 순 지음

우수한 국민은 노력에 비해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고, 열등한 국민은 결국 남의 뒷전에 서서 남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시대 정책의 기본방향은 한마디로 우리의 질(質)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활동 규범이 되고 그것을 제약하는 제도(制度)의 질을 높여야 한다. 공무원의 질을 높여야 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한다. 정치의 질을 높여야 하며, 언론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세계화시대의 국영방송의 역할〉에서

학문의 수준이 앞으로 훨씬 더 향상되지 않는다면 설사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수출과 경제를 지탱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모두 외국에 의존하면서 선진국이 되기를 바랄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무역의 수지보다도 오히려 기술의 수지(收支) 또는 지식의 수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1인당 소득보다도 1인당 지식이 선·후진국을 판가름하는 더 확실한 기준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발전방향〉에서

신국판 316면 정가 6,000원

比峰出版社 서울 중구 신당동 292-42 전화 231.5450~2 팩스 231.5453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새로운 서울시 건설의 청사진

우리 서울 이렇게 바꾸자

〈경실련 정책 연구팀〉이 1년 여에 걸쳐 서울시의 개혁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행정, 재정, 교육, 주택, 교통, 도시계획, 복지, 기반시설, 환경 등 9개 분야로 나누어 엮은 책. 서울시가 처해 있는 현실과 문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실련이 땀흘려 만든 서울 2000년 청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음/정가 15,000원



진정한 경제학의 학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경제학을 만든 사람들

시대와 이념을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경제학을 만든 사람들' 이들의 경제학은 어떤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답이었나?

28명의 경제학자와 10대 경제학파의 사상과 이론의 핵심내용을 정리.

柳東民 편역/정가 10,000원



比峰出版社 서울 중구 신당동 292-42 전화 231.5450~2 팩스 231.5453



3국 불교회의 남북회담 보고회



월주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은 지난 14일 정오 하림각에서 각 종단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21~24일까지 개최됐던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및 남북불교회담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구룡사 · 신우대서 설법



근일스님(영주 부석사 주지)은 지난 18일 구룡사에서 '참선수행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19일에는 '올바른 인생을 사는 방법'을 주제로 안동 신우대학 법회서 강연했다.

교직원 종강법회서 법문



진철스님(통도사 자비원 원장)은 지난 7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에서 열린 교직원 종강법회에 참석 '21세기의 불교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법문했다.

효봉선사 자료 모집



현호스님(효봉선사법어집 간행추진위원장)은 효봉선사법어집 재간행을 위해 법문 서간문 시서화 사진 등 관계된 자료를 모집한다. 법어집은 10월께 발행할 예정이다.

한중불교 상호교류협의



원행스님(중앙종회의원)은 지난 11일 중국 불교협회를 방문, 중국 불교협회 조박초회장을 만나 한중불교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 등을 협의하고 신도들과 함께 북경 광제사 등을 참배한후 19일 귀국.

구룡사 열반상 점안식 봉행



정우스님(구룡사 주지)은 오는 23일 오전10시 구룡사 극락전 열반상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할 계획이다.

대불청 대전지구서 법문



법현스님(불교레크리에이션 포교회장)은 지난 12일 대불청 대전지구가 주최하는 연합법회에서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청년불자의 역할'을 주제로 법문을 했다.

인간문화재 인정서 받아





김종곤(사진위)·이기춘씨(중요무형문화재 제26·86-가호)는 지난 1일 문체부로부터 '영산줄다리기'와 '문배주' 기·예능보유자로 인간문화재 인정서를 수여받았다. 이밖에 김학석, 김윤수, 정경화씨가 송파산대놀이, 제주칠머리당굿, 태껸으로 인간문화재 인정서를 받았다.

게시판

▲찬불가경연대회=조계사청년회(회장 이성상)는 7월8일 오후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청년회 10개 부서가 동참하는 찬불가경연대회를 개최한다. (02)735-3724

▲창립법회=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2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7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38-3386

▲초청대법회=부산 보현불교대학(학장 보현)은 6월21일~7월1일 오전10시30분 한국불교의 거승 11인을 모시고 천마산 천왕사에서 초청대법회를 갖는다. (051)253-0681

이전 통도사 독일포교원 보문사(주지 병오스님)는 11월1일 법당을 이전한다. 이전장소는 Neve christ str. 4(Aufgang Ⅱ) 14059 Berlin BOMUN Sa e. v. (GERMANY). Tel/FAX 0049-30-3256440.

"공권력 만행 좌시할수 없다"

6·6교권유린 대책위원장
효 림 스 님



"지난해 정부공권력으로부터 조계종의 본산인 조계사가 세차례나 유린당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이런 일을 당하고보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6일 한통사태와 관련 조계사 공권력 투입에 맞서 '6·6교권유린에 대한 범불교대책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을 맡고 있는 효림스님(보광사 주지)은 정부의 무책임과 정책부재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번 사태는 명백히 정부권력의 만행입니다. 더구나 개혁종단의 대사회 융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공권력이 불교성지를 짓밟았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12일 조계사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불교인 1080인 시국 선언문 기자회견에 참석한 효림스님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노력을 동원해 불교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심과 도덕을 지키고 도량을 수호하는 일이 곧 이 자리를 성스럽게 곧추세우는 것이며, 불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한명우 기자〉

도선사 새 신도회장
김 성 호 씨



"청담스님의 큰 원력과 행원을 바탕으로 삼보를 수호하는 한편 모든 신도회원들이 부처님 참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2일 도봉산 도선사(주지 동광스님) 신도회장에 취임한 김성호씨(성종사 대표)는 소감을 이렇게 말한다.

"신도교육·자비실천에 주력"

김회장은 단순히 절에 나오는 신도가 아니라 도선사가 내절이라는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초심자를 위한 기초교리강좌 개설을 비롯 기존신도들에게도 근기에 맞는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바라밀이 신도회 실천덕목이라고 말하는 김회장은 "향후 신도회 조직정비가 완료되면 신도교육 뿐만아니라 봉사단을 구성,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신도회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일상생활속에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불자, 깨달음을 위해 끊임없이 용맹정진하는 불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



전국비구니회장 이 취임식

전국비구니회 제 5대 회장 광우스님의 취임 및 전 회장 혜춘스님의 이임식이 지난 13일 마포 석불사에서 거행됐다.

비구니회원들과 일면(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시현(조계종 문화사회부장) 강한필(불교방송 사장) 최정희 본지 편집국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신임회장 광우스님은 인사말에서 "비구니들의 잠재된 능력을 십분 발휘할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 종단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륜대종사 탄신 113주년 기념행사

'대륜대종사 탄신 113주년 및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선포식'이 지난 12일 오전10시 한국불교태고종 법륜사(주지 혜일스님)에서 봉행됐다.

태고종 전종정 덕암스님, 이운제스님을 비롯 스님과 신도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포교와 교육에 힘쓴 대륜스님의 뜻을 받들어 설립된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의 현판식도 함께 거행했다.



영각사 국내최초 탑골법당 기공식

경기 시흥 영각사(주지 현법)는 지난 11일 영각사 경내에서 국내 최초 탑골법당 영묘전 건립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하영수 시흥시장, 제정구 국회의원, 목정배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송석구 동대총장, 영각사주지 현법스님, 조계종 문화사회부장 시현스님(좌로부터) 등이 기공식 시삽을 했다.



현대불교 부산지사 개소식 '성황'

본사 부산지사(지사장 이종관) 개소식이 지난 10일 오후3시 동구 범일2동 소재 동보빌딩 4층 강당에서 3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뤄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혜총(대한불교신문 사장), 심산(통도사 부산포교원 주지), 서주(소림사 주지), 혜원스님(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등을 비롯하여 곽정출 국회의원, 김현옥 전 내무장관, 김현숙 부산일보 논설위원, 김문숙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장, 우관수 불교TV 부산지사장, 본사 김광삼 사장과 최정희 편집국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중앙승가대에 10억 희사
서 주 스 님



"이제 사부대중에게 빚을 조금 갚았다는 기분입니다. 그동안 승려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했는데 아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중앙승가대 발전기금으로 부산 연산동 소재 임야 7천여평을 매각해 우선 10억을 기탁할 예정이라는 서주(西舟)스님(부산 사직동 소림사 주지)은 인재 양성에 자신이 동참하게 돼서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말했다.

"인재 양성 동참 소망 이뤄 기뻐"

사찰의 지방강원 등이 일부 승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재정, 교육체계 등이 원활하지 못해 명실상부한 4년제 승려 전문대학을 지금껏 소망해 왔다는 서주스님은 불교계가 과거 승려 인재 양성을 등한시 해온 것이 늘상 안타까웠다면서 "승려가 신도들에게만 도제양성, 복지사업 등의 불사의 도움을 요청하던 지난날 여러 예들을 보면 모두 용두사미의 결과를 얻었다"고 지적한다.

불우청소년들에게 수차의 장학금을 지급해온 스님은 지난 70년부터 소림사 주지를 맡아오고 있다. 〈박병근 기자〉

13개 은행 40여명 대표 활동
법회 창립 지원·복지시설 정기 방문

탐 방
전국금융단 불교연

"산이 높아야 물이 멀리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구도행(求道行)이 치열해야 자비행(慈悲行)을 멀리 넓게 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禪불교에서 강조하는 종체기용(從體起用: 體로부터 用을 일으키는)의 도리를 설명한 말이죠."

지난 12일 저녁 7시30분 한국은행 15층강당에서는 김호성법사(백화도량 상임법사)의 강연으로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운영위원장 하룡이, 한국은행 자금부과장) 소속 30여명의 회원들이 지친 하루일과에도 불구, 한마디의 법구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지난달 8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반~9시까지 진행되고 있는 '근본교리 강좌'는 처음 한일은행신행회등 13개 은행에서 3명씩 구성된 연합회 운영위원들의 신심(信心) 고양을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일반회원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이제는 일반회원은 물론 비회원에게도 문호가 개방될 예정이다.

92년 7월3일 창립된 연합회(초대 위원장 윤원한, 신탁은행 마산남지점장)는 85년 한국은행불교회 창립을 기점으로 올해 동화은행·농협불교회까지 모두 13개 은행을 회원단체로 갖고 합동법회 개최지원, 각 은행법회 창립지원, 연등행사 합동참여, 합동용맹정진법회(연4회 이상) 개최 등의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2일 금융단불교연합회 회원들이 퇴근후 한국은행 15층강당에 모여 김호성법사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아직은 운영위원 체제라 회장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룡이 위원장은 지난 3월26일 각은행대표 40여명과 함께 원주 성불원을 방문하는등 연2회 이상 장애인, 노인 등 불우이웃을 찾아 정신과 육체를 온전히 간수한 고마움으로 그들을 찾고 있다.

"일반회사와는 다른 전문직종의 직업이라 일반 신행단체와는 다른 어려움도 많다"고 고백하는 총무간사 이명규씨(외환은행 전산운영실 계장)는 "각은행 신행단체 조직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시내 중심가에 금융인 전용법당을 마련하는 것이 본회의 작은 서원(誓願)"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성하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걸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필시에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 · 이강옥 옮김
신국판 · 전2권 / 각권 7,500원



제·원·스·님·에·세·이

고적한 산사(山寺)에서 우리가 사는 도심(都心)까지 배달되어 온 마음의 소포,

그것은 제원스님의 흙빛 언어, 파란 감동 에세이집!

우리는 가끔 염라대왕이 보내는 엽서를 받지 못했다고 우기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은 그 녹슨 우체통을 열어본다.

누군가, 지 멀리서 독각의 언어를 내뿜고 있다.

▶ 산길을 닮은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행복찾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큰 정치를 위해 군살을 빼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무소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절망과 희망의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 혼자 사는 이의 조촐한 멋이 있습니다.
▶ 맑은 영혼을 가진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이 책은 BBS불교방송 〈불국토의 아침〉을 진행했던 제원스님이 수행자라는 입장에서 쏟아놓은 언어들이다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한번쯤 체에 걸른 것처럼, 영혼을 내뿜은 진한 감동의 에세이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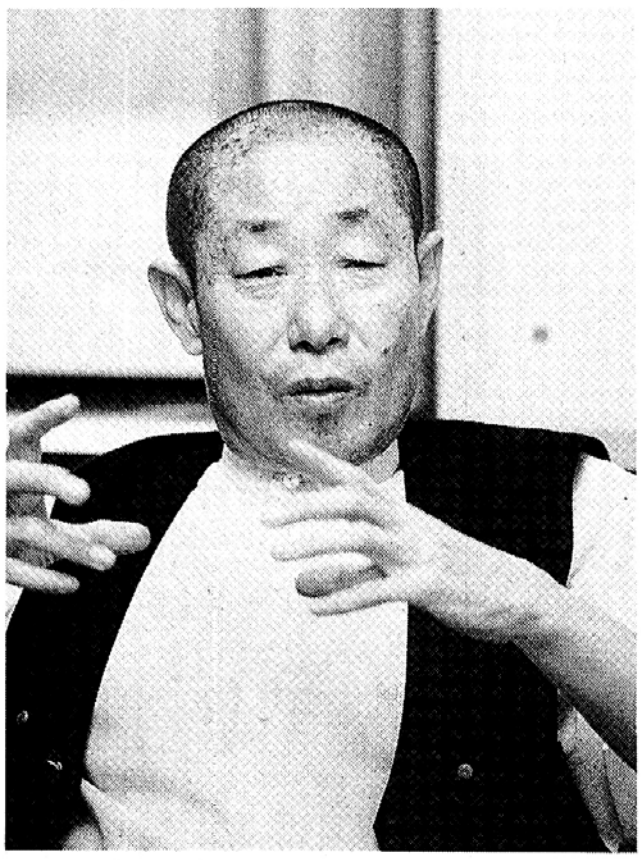
그래서, 독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값6,000원 TEL(02)711-8948,1868/FAX(02)711-1869 이목

"신명의 경지서 佛音 연출하죠"

산문박의 禪

BBS 방송위원 박 용 기 씨



"매사 욕심이 탈…회향하는 방송 만들기 주력"

'방송가 인간문화재'… 佛放 종소리 시보 제안

"염불이 아니라 여염불이야 여염불…, 부처님 생각하는 것."

40년을 방송가에서 살아온 박용기 위원(63세)은 불교방송의 인기프로 '고승열전' 연출에 여념이 없다.

스님처럼 삭발한 노 연출가는 방송에 취해 온몸이 들썩이고 그에따라 의자까지 흔들리는 신명의 경지속에 있다.

리허설부터 호통을 치던 박위원은 성우들의 조그마한 실수도 놓치지않고 음악 효과 연출등 1인 3역을 소화하며 좋은 방송을 향한 몸짓이 거세다. 몰입되어 자연스럽게 나오는 손놀림은 허공에서 힘차게 맴돌고, 그는 성우들과 완전히 합일되어 있다.

두시간 넘도록 스튜디오 녹음을 끝낸 박위원은 다음주 녹음을 금요일로 예약하고 밖으로 나온다.

"힘들어. 이제는 더이상 못하겠어. 젊은 사람들에게 걸리적 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있어서 이 프로를 회향하는 방송으로 만들고 있지."

그러나 그는 육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고달프면 맨발로 인도전역을 걸어다니셨던 부처님의 49년을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때 그의 눈빛은 새벽별을 맞는 수행자의 모습처럼 빛난다.

새벽 3시엔 어김없이 일어나 4시가 되면 집옆에 있는 홍은동 백련사에서 아침예불을 올린다는 박위원의 생활철학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착않는 생활이 활력

"나이? 세월가는 거, 생일, 집 전화번호도 몰라. 사는 것은 꿈을 꾸는거지. 젊었을 때 낙산사에서 일출사진을 찍으려다 바닷물에 빠져버렸어. 그런데 웃음이 나와, 허허 해뜨는 걸 마음에 두면 되지 사진찍어 뭐하겠어?"

살다간 흔적을 남기면 안된다는 박위원은 왜 그렇게들 서로 물고뜯고 치고 박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털면 되는 삶을 울타리치려는 사람들에게 부처님 사상은 둥근 원이며 하나라고 말한다.

20대 후반 자유당시절에 스님이 되려다 효봉스님에게 일언지하 거절당한 것이 지금도 한이 된다는 그는 지나친 무욕도 병이었을까. 음향효과와 연출, 음악 등 모든 분야를 섭렵하여 탁월한 경지를 인정받은 40년 방송인으로 살며 직책한번 생각해본 적도, 욕심부려본 적도 없이 굴레를 초탈하며 지내왔다. 여여하게 살아온 그를 방송가에서 '인간문화재'로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는 것은 동양화처럼 여백이 있어야 돼. 요즘은 어떻게 된건지 빽빽한 서양화처럼 살려고 해. 마음을 비워야지. 빈칸이 많아야지."

삶 자체가 만행이었던 것일까. 걸림이 없었던 그는 54년 성우로 출발하여 거쳐보지 않은 방송사가 없다. 83년 고 장상문 사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방송개국에 대해 자문한 것이 인연이 돼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면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불교방송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불교방송 개국과 더불어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이 시보였다. 타 방송처럼 디지탈로 '띠 띠 띠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박위원은 고집을 부렸다.

'차임벨소리 뎅(종소리)'으로 하자고. 반대도 많았다. 종소리는 울림때문에 0.05초가 늦어 정확한 시간을 맞출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그는"죽어도 해야한다"고 버텼다.

"원래는 아날로그로 해야 원음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디지탈로 해서 구워버렸지. 그래서 지금 종소리는 70%짜인 소리야."

그는 불교방송의 시보에서 나오는 종소리에 부처님의 8만4천 법문이 들어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이런 고집 때문에 시보가 전세계 방송가의 화제가 됐고 일본 NHK는 불교방송의 특색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요즘 박위원은 KBS 2TV 역사극인 '장녹수'의 후편으로 7월부터 방송될 '서궁'에 무불스님으로 탤런트까지 겸하게 됐다.

"한달간이나 고사했는데도 결국 출연하게 됐지. 어찌나 PD가 끈질기던지. 전법을 위해 부처님이 시키시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힘 닿는데까지 해야겠다 마음먹었지."

한번 촬영에 일주일을 강행군 하는데 몽둥이를 휘두르고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는 등 연기도 만만치 않아서 온몸에 파스가 더덕더덕 붙어있다.

TV에 스님으로 출연

전남 승주 선암사 로케에서는 24시간 동안 한끼도 못먹고 촬영했다. 어둠이 내리자 젊은 사람들은 하나 둘 피곤에 지쳐 떨어져 버리는데 박위원은 육순의 나이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임해 선암사 주지 지허스님은 "중웃만 안 입었지 영락없이 중이야"라며 혀를 끌끌 찼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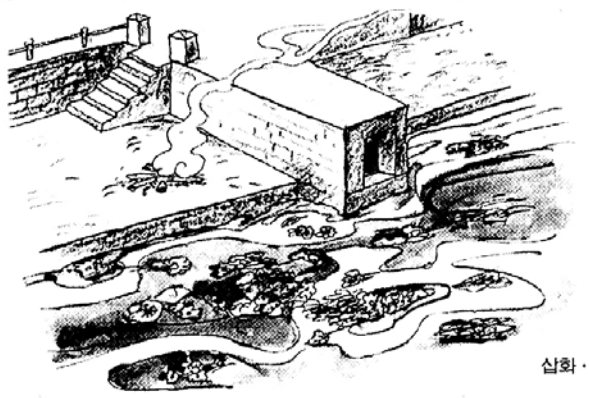
"죽으면 늘어지게 잠잘텐데 지겹게도 꿈꾸고 있다"는 그는 91년 폐암진단을 받고 의사에게 사형선고를 받았다.

"아,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더군. 의사가 더 사색이 됐지. 살겠다고 하면 죽고, 죽음을 초연히 받아들이면 사는가봐."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나즈막히 선구처럼 읊조린다.

"매사에 갖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탈이 난거야. 마음의 경계를 놓아버리고 갖고 싶다는 마음의 창살도 버려야 해. 쓸데없는 허욕 버리고 사랑도 보시해야지. 안주려고 하니까 정과 신이 괴로운 거야…."

김원우 기자



삽화 · 이기선

국토보존 기여하는 보살되자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㉛

화장(火葬)

부처님 열반후 火葬 사리수습

태어남이여 죽음이 괴로울 것이요, 죽음이여 태어남이 괴로울 것이다. 생사는 괴로운 것이다. 영원히 살려고 온갖 일들을 꾀해보지만 태어남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삶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 삶은 고해에 떠도는 일엽편주다. 파도와 풍랑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이다. 어디 한 순간인들 편안할 겨를이 없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생이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 그러나 고생이라도 저승보다 이승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

그런데 죽음이란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호흡이 끊어진 상태이거나 심장이 멈춘 경우를 말할 것이다. 머문 이후의 저승세계는 어떠한 것인가. 사후세계의 꿈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학자도 많고 죽음 뒤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죽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죽음 뒤에 남아있는 몸뚱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하고자 한다. 보통 사체처리란 장례행위를 말한다. 옛날 왕들과 고관대작들은 순장을 하였다고 한다. 죽음을 당한 사체처리는 매장하면 되지만 살아있는 인척 근위들은 생매장을 당하면서 순장이란 명예스런(?) 이름이 붙는다 하더라도 참혹하기 이를데 없다.

매장 유교적 사고방식

옛부터 죽음을 처리하는 방법이 몇으로 나누어져 있다. 매장, 화장, 수장, 천장, 야장 등이 그것이다.

티벳 사람들은 천장을 한다고 한다. 시체를 돌산에 끌어올려 난도질을 하여 새들이 주워 먹기에 알맞도록 하여 뿌려 준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장법을 조장(鳥葬) 또는 하늘에 흩뿌린다 하여 천장(天葬)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방법도 잔혹한 행위인 듯하다. 그렇지만 티벳 사람들은 본래 원소대로 빨리 환원시키려면 이 장법이 최상의 길이라고 관습화되어 있다.

갠지스강 기슭에는 가트란 화장장이 있다. 시체를 나무더미 위에 올려 놓고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 갠지스 강물에 띄워 보낸다. 뿐만 아니라 수장이라 하여 몸뚱이에 돌을 매달아 강물 속에 빠뜨리거나 또한 시체를 들판에 유기하는 방법도 있다. 독수리, 까마귀, 여우, 살쾡이 등이 와서 마구 살점을 떼어 먹고 종국에는 앙상한 해골 뼈들이 뒹굴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시다림(尸茶林) · 한림(寒林)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개가 매장을 한다. 어떻게 보면 매장하는 것이 가장 상식에 가깝게 하는 장법이라고 우길 수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오늘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도 수승한 상식이 아니라 폐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간 여의도의 넓이보다 더 넓은 묘지가 국토를 잠식한다고 하니 국토의 효용에 있어서 반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토이용에도 도움이 되고 사후처리를 원만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사람이 살려고 한다면 묘책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묘책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기 욕심이나 제 명예가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신라때 화장 권장 흔적

일찍이 신라시대는 화장법을 권장한 흔적이 많다. 경주 남산 기슭에 승소곡(僧燒谷)이란 골짜기가 있었다. 여기는 스님들의 장례터였다. 모두 화장을 하여 사후처리를 한 것이다. 남산 사천왕사 기슭에 능지탑(陵旨塔)이란 원분이 있다. 이것은 문무왕을 화장한 장소라고 한다. 여기서 화장한 다음 그 유골을 대왕암에 수장하였다. 화장과 수장을 함께 한 사례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경주 골동품 가게에는 수많은 골호(骨壺)가 있다. 이들 골호들은 당시 사람들이 화장을 많이 하였다는 실증적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화장장례가 이행되지 않고 권장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가. 유교적 사고방식과 기독교적 신앙으로 빚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아니 불교를 믿는 사람도 한번 죽었으면 되었지 또 불에 죽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전도된 사고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의 본사 석가모니부처님도 사라쌍수 아래 열반에 드신뒤 화장법에 의해서 사리가 수습되었고 그 사리를 현존 부처님처럼 숭앙하고 있지 않는가. 누구에게 권장하기 앞서 일불제자인 불자가 먼저 화장장법에 귀명하여 국토보존에 기여하는 보살이 되었으면 한다. 사대오온(四大五蘊)은 환지본처하여 각령세계(覺靈世界)에서 열반락을 누려야 할 것이다.

般若波羅蜜多心經
觀自在菩薩行深般若波羅蜜多時照見五蘊皆空度一切苦厄舍利子色不異空空不異色色即是空空即是色受想行識亦復如是舍利子是諸法空相不生不滅不垢不淨不增不減是故空中無色無受想行識無眼耳鼻舌身意無色聲香味觸法無眼界乃至無意識界無無明亦無無明盡乃至無老死亦無老死盡無苦集滅道無智亦無得以無所得故菩提薩埵依般若波羅蜜多故心無罣礙無罣礙故無有恐怖

부처님의 사상과 말씀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경전

법구경의 세계



이원섭풀이
신국판 / 398쪽 / 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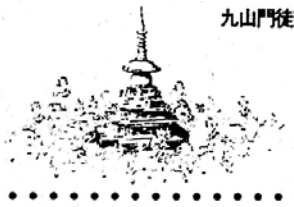
법구경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만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다. 그 속에는 광활한 불법의 세계와 불교사상의 전반이 담겨져 있다.

불교학자이자 시인인 저자가 어려운 용어나 문구에 대한 설명을 비롯, 각각의 게송에 맞는 경전 속의 적절한 비유와 예화, 그리고 일상생활 속의 여러가지 경험을 들어 설명하고 있어 법구경의 진수를 읽으면서 체득할 수 있게 해 준다.

도서 출판 운 주 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02) 720 - 9372 · 3 FAX (02) 723 - 0646

九山禪師 上堂法語

九山禪門



九山門徒會 엮음

승보종찰 송광사 조계총림의 초대 방장이셨던 九山禪師의 상당법어를 엮은 『九山禪門』은 스님께서 총림의 수행대중을 위해 설하신 법어 중의 精髓요, 心地法門으로 한국불교의 우뚝한 봉우리인 九山禪師의 자상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한국선의 도도한 흐름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 『九山禪門』은 수행납자를 비롯해 깨달음의 길을 가는 모든 이들에게 긴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624쪽 / 4×6배판. 양장본 / 값 20. 000원

불일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21-1 법련사 Tel. 736-4003/ Fax. 738-1592

청소년을 위한 불교이야기

나는 오늘 부처님을 만났다!

이야기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변화되어 갑니다.



이 · 야 · 기 · 로 · 풀 · 어 · 쓴 · 부 · 처 · 님 · 의 · 전 · 기

석가모니의 생애와 가르침

죽음도 두려움도 욕망도 없다 오직 진리만이 있을 뿐이다

생과 사의 고통 속에서 윤회하는 인간들에게 모든 번뇌와 집착을 벗어버린 진정한 해탈을 가르쳤던 석가. 그의 구도의 생애와 진리의 가르침을 여기에 집대성 한다.

김형중저 · 280면 · 5. 500원



이 · 야 · 기 · 로 · 풀 · 어 · 쓴 · 현 · 우 · 경

코끼리의 눈물

부처님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솝이야기?

〈현우경〉의 내용을 22가지의 재미있는 우화로 풀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안델센의 '이솝이야기'처럼 쉽고 재미있는 불교우화집!!

고우의저 · 212면 · 5. 000원



이 · 아 · 기 · 로 · 풀 · 어 · 쓴 · 숫 · 타 · 니 · 파 · 아 · 타

살아있는 모든것은 다 행복하라

세상의 온갖 애착에서 벗어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경전〈숫다니파아타〉중에서 주옥같은 법문만을 골라 말씀을 편안하게 풀어 놓았다. 살아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의 삶에 대한 석가의 깊은 성찰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요한 깨달음을 준다.

이학송저 · 272면 · 5. 500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2동 320 개암빌딩 밀알 전화 5290140~5 팩스 5792312

'불교원어' 새음역 표기법 시안 제시

기존 문제점 해소…검증거쳐 '쉽고 간결함' 특징

정승석교수



◇정승석교수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로 대표되는 불교원어(原語)의 음역(音譯)표기법 시안(試案)이 동국대 정승석교수(인도철학과)에 의해 새롭게 제안됐다.

정교수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의 학술지인 〈가산학보〉 제4집에 실린 '불교원어 음역표기 조사 연구: 불교원어의 음역표기법 시안'이란 논문을 통해 이미 발표되거나 적용된 적이 있는 기존의 표기법들을 비교하거나 실제 음역에 적용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표기법 시안을 제시했다.〈도표 참조〉

정교수는 논문에서 "한국불교의 발전을 지향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중국을 거친 2차적인 음역어는 인도 원어로부터의 1차적 음역어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내 언론과 출판 전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음역 표기의 통일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교수는 "음역된 한자가 국어로는 둘 이상의 음가를 가질 때, 국어의 음역에는 불합리나 혼란이 종종 발생한다"며, "이러한 경우에 음역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음가 선택의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字母 표기안의 대조〉

	音	한글대장경	試案
모음	a	아	아
	ā	아아	아아
	i	이	이
	ī	이이	이이
	u	우	우
	ū	우우	우우
	ṛ	리	리
	ṝ	리이	리
이중모음	e	에	에
	ai	아이	아이
	o	오	오
	au	아우	아우
목구멍(喉)	ka	카	카
	kha	카	카
	ga	가	가
	gha	가	가
	ṅa	나	아

	音	한글대장경	試案
입천장(口蓋)	ca	차	차
	cha	차	차
	ja	자	자
	jha	나	나
혀말음(捲舌)	ṭa	타	타
	ṭha	타	타
	ḍa	다	다
	ḍha	다	다
	ṇa	나	나
이(齒)	ta	타	타
	tha	다	다
	da	다	다
	dha	나	나
입술(脣)	pa	파	파
	pha	파	바
	ba	바	바
	bha	마	마

	音	한글대장경	試案
반모음	ya	y:이	이/이아
	ra	라	라
	la	ㅌ라	ㅌ라
	va	바	바/와
齒擦音	śa	사	사
	ṣa	사	사
	sa	사	사
氣	ha	하	하
	ṃ	ㅇ	ㅁ/ㅇ/ㄴ
	ḥ	ㅅ쉬	ㅎ슈쉬
	śu	슈쉬	슈쉬
	ṣu	슈쉬	슈쉬
	su	슈쉬	슈쉬
	śo	쇼	쇼
	ṣo	쇼	쇼
	so	쇼	쇼

김재경 기자

지난 14일 타계한 염영하 박사



한국 범종연구에 한평생 "열정"

해인사종등 8구제작, 저서도 2백여권

한국 범종제작의 최고권위자인 서울대 명예교수 廉永夏박사가 지난 14일 오후 3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함남 이원군 차호면 태생인 염박사는 45년 일본 동북제국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84년까지 서울대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범종연구회장, 대한기계학회장 등을 지냈다.

염박사는 보신각새종, 석굴암대종, 해인사종, 직지사종, 천축사종 등 8구의 범종(梵鍾)과 독립기념관종을 직접 제작했으며 신라 고려 조선시대 종의 특성을 비교 연구한 〈한국의 종〉, 〈한국 종 연구〉 등을 비롯한 2백여권의 저서와 논문을 남겼다.

특히 〈한국의 종〉은 필자가 '종'을 찾고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종의 역사, 한국종의 출현, 구성요소, 재료, 주조기술 등 해설과 더불어 한국종의 소리를 음향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3백5구의 종을 각 시대별로 나누어 실측·탁본을 토대로 한 조사내용을 엮은 명저이다.

"종은 복잡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번뇌를 떨쳐주는 마음의 고향이며 원천"이라고 말해 온 故人은 "신비한 주조기술로 만들어진 한국종은 '은은한 소리의 여운과 아름다운 조각미'의 측면에서 세계 최우수의 금속공예품"이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었다.

염박사와 함께 20여년간 범종을 제작해 온 성종사 원광식사장은 "그처럼 열정적으로 종을 연구하던 분이 가셔서 매우 슬프다"며 "고인은 상업주의에 물든 졸속적인 종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무엇보다 슬퍼했으며 우리나라의 종 제작법을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늘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故人은 71년 과학기술학술상을, 74년엔 국민훈장 동백상을 수상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경신씨(73)와 아들 창철씨(46)가 있다.

〈재〉

국립공원 자연보호 불교계가 앞장 서야

신흥사등 사찰주변 환경훼손 폐해 지적

'지자시대…' 심포지움 내용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지난 8일 불교의 환경운동에 관한 심포지움을 열었다.

국립공원내의 자연보존을 위해서는 불교계가 먼저 사찰의 환경 훼손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시정한 후,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이 주최한 '지방자치시대의 국립공원관리와 불교의 환경운동' 심포지움에서 이장오씨(설악산 모노레일 및 위락시설반대 연대회의 실행위원)는 토론에 나서 "사찰 진입도로로 인한 산림훼손과 사찰주변의 상가·숙박시설 신축 등 사찰로 인한 환경 훼손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불교계가 앞장서서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고 자연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설악산 신흥사 소유의 4만여평의 부지에 모노레일과 차량진입로, 온천개발, 상가·숙박시설 등이 들어서는 계획이 진행중"이라며, "이는 사찰이 국립공원내의 생태계 파괴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의 유병일 임업정보실장은 "불자들의 무분별한 동물방생에 앞서 산림보존을 위한 '나무 방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지도연구가인 이우형씨는 공원 매표소에서 자주 벌어지는 입장료 시비와 관련, "매표소에서 동시에 받는 입장료와 공원내 각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는 따로 구분해 받아 시비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의·평화위해 각종교 협동 절실

한신대 김경재교수 밝혀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정교(正敎)에 있지 않고 정행(正行)에 있다. 곧 이론과 교리의 석명(釋明)에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건강한 본래적 인간모습을 회복하게 함에 있다."

한신대 김경재교수는 지난 1일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주최 시민공개강좌에서 '종교다원사회에서 공동체 윤리'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교수는 "신사회 공동선의 목표인 자유 정의 평화 생명가치의 보존운동에 한국의 다양한 종교단체들은 각 종교의 특성과 고유성을 지켜 가면서 대승적 협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금권선거 막아야"

장을병교수 강연

한국종교협의회(회장 이재석)는 지난 17일 종교인조찬연수회에 장을병교수(전성균관대 총장)를 초청, '의식개혁과 선거문화'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장교수는 "법을 어기고 돈많이 쓰는 자들을 낙선시키는 운동을 전개하자"며 "유권자들도 결과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택했느냐를 더 중시하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종교계 인사들이 참석, 이번 선거는 종교인들 먼저 공명하게 치루자고 의견을 모았다.

◇기사념쳐 '한국사찰의 주련' 쉽니다.

'나' 발견후 전법해야 하는지

문 교직자입니다. 늘 부처님법에 따라 생활하고 경험해, 가면서 학생들에게도 마음공부의 길을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혹시 잘못 가르치는게 아닌가 걱정도 되어서 나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는 자제해야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유유열·광주 광산구 장덕동〉

답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넉넉해진 후부터 부모님께 효도하시렵니까?

그렇게 해서는 효도 못합니다. 평소에 늘상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땀 흘려 일하고 벌어가면서 넉넉하든 모자라든 진심으로 봉양하는 게 참효도 이겠지요.

학생들에게 부처님법을 전달하는 것도 그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꼭 내가 견성을 해야만 부처님법을 일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 아무 염려마시고 성심성의껏 하던대로 하세요.

조그마한 것, 큰 것이 따로 없지만 조그마한 것이 자라서 커지는 것이지 갑자기 커져서 튀어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잘하고 계십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 스님들마다 한결같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가르침을 머리로 알고자 하지말고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것은 머리에서 한다고 보는데 마음이란 어디있습니까? 생각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양진동·부천시 소사구 목길동〉

답 마음은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머리다, 가슴이다, 들어와 있다 나가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로 묘한 도리요 광대무변한 법이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전우주를 싸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으며 시방삼세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마음은 있다 없다로 말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더우기 어디에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님께서 한 찰나에 나투어 묘법을 설한다 하는 것이고 일체유심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있다 없다는 생각에 얽매이지 마시고 일상 중에 웃고 울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작용 가운데서 찾아보세요. 마음은 체가 없지만 천차만별로 광대무변하게 작용하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공했다 하고 색과 공이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누구이며 그 생각을 낸 그것은 뭘까요. 옛날 어느 스님이 법을 물어오면 오직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웃고 우는 작용, 수없이 천차만별로 나투는 그 작용에서 내 주장자를 확인해보세요. 주장자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게 다 마음의 작용인 줄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뭐냐고 하기 이전에 일체는 마음자리에서 나오고 마음자리로 든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가슴에 불이 켜진것 같았어요

문 얼마전 차를 타고 가면서 눈을 감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불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길래 눈을 뜨니 이번엔 거울이 보이고 그 거울에 불보살님들의 회상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무엇인지요?

〈최기문·서울 송파구 방이동〉

답 공부하는 중에 무엇이 보이는 것은 모두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 마음자리에서 화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언가 보였다고 해서 좋아하고, 남다르다 싶어 으시대고 무슨 대단한 경험을 했는양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도가 아닙니다. 그저 수억겁 거쳐 오면서 지은 업식의 환상일 뿐이니까 방하착해야 합니다. 주인공 자리에 되놓아야 합니다. 다만 나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보였으니 그저 감사한 일이구나 하면서 놓으세요. 과일도 무르익어야 맛이 나는 법이지요. 설익은 과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마음공부 하고 싶은데 자꾸 산란

문 마음공부를 열심히 잘 하고 싶은데 자꾸 산란해지고 여러가지로 괴롭기만 합니다. 괴롭지 않고 공부하는 길은 없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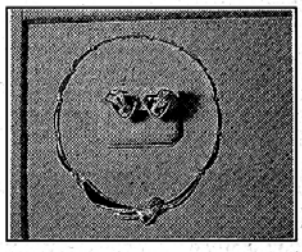
〈박효순·부산 사하구 다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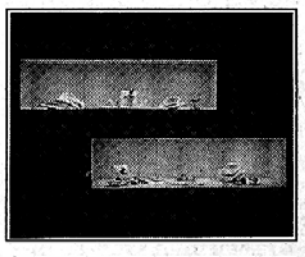
답 이 세상에 대신 밥 먹어줄 사람없고 대신 아파줄 사람없고 대신 잠자줄 사람 없습니다. 대신 죽어줄 사람도 없구요. 답답한 것도 괴로운 것도 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니 누가 대신 괴로움과 답답함을 떠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지리에 되놓으라는 것입니다. 되놓는게 안된다는 말들을 하는데 그것도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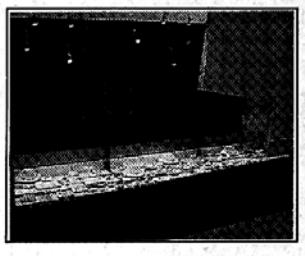
그러므로 본인 스스로 되놓는 노력을 해보세요. 가령 마음을 카세트테이프에 비유한다면 그것이 돌아가면서 입력된대로 나올 때 어떻게 해야 지울 수 있겠습니까. 되돌려야 하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자리에서 나온 그 괴로움이라는 것 그것을 되돌려 놓아야 테이프가 지워지든지 다시 녹음이 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일러드리는 방법은 '주인공, 주인공이 있다면 괴롭지 않게 할 수도 있잖아'하며 놓는 작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우아함이 깊이를 더해갑니다'

귀금속 青雨







섬세하고 정교한 제품,
서정적인 주제와 독특한 감성표현,
각 개인의 개성을 소중히 하는
디자인……
青雨 귀금속은 유행을 넘어선
남다른 아름다움의 깊이를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녹음이 짙어져가는 계절
클래식한 우아함과 세련된
현대 감각이 함께하는 곳
青雨에서 당신만의 개성을
만나십시오.

'青雨' 劉慈也 씨 전시경력

1971~1972 국전 서양화 부문 입선 20,21회
1976 파리 니델재산 공모전 입상
1977 파리 Cite International des arts 주최 전람회 출품
1978 불란서 전국 사진 공모전 출품
1979 파리 프리마그 로지에 공모전 입상
1980 파리 화랑 전람회 출품
1977 불란서 예술원 공인 미술작가
1980.6 제1회 개인전(신세계 백화점 화랑)
1982 한국 공예가회 출품
1983 한국 공예가회 출품
1984 한국 공예가회 출품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5-1, 2 한양타운 107호 / 우편번호 135-120 / TEL 3442-4434~ 5

스튜어트 Stuart 주식상호 ®상표등록 제135828호 의장등록원 제94-18883호

모든 사찰에서 마이크 성능을 시험해 볼 기회를 드립니다.

유코전자의 고성능 마이크는 각종 법회 봉행, 설법전용, 마이크로 단 한 개라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는 예술작품입니다!



DX-707
분리형 스탠드 마이크



분리형 스탠드 마이크
공급가:180,000원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1. 설법시 마이크에서 소리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값비싼 외제 마이크보다 멀리서 잘 들어갑니다.

YD-675 마이크는
'삐-이' 하는 하울링 영향 없이 부드럽고, 맑은 소리로 편안히 사용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마이크입니다.

3년 保證



법당용
설법전용 고성능
다이나믹 마이크
YD-675
소포공급가:90,000원

유선 핀마이크



V-606LC
설법용 고급 마이크
공급가:65,000원



T-7
경전강좌, 설법
각종법회용
공급가:45,000원

유코전자에서 생산되는 각종 마이크는 '음향연구가 金文華'가 직접 설계한 작품으로, 특히 독자적으로 개발한 100% 금속막대로 하나씩 가공해 만들어지는 '음성소자'는, 부드러우면서도 맑고 힘찬 소리를 연출하는 최고급 수준의 마이크로서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독일 및 유럽 8개국 수출업체임)

마이크만을 생산, 수출하는 기업-
유코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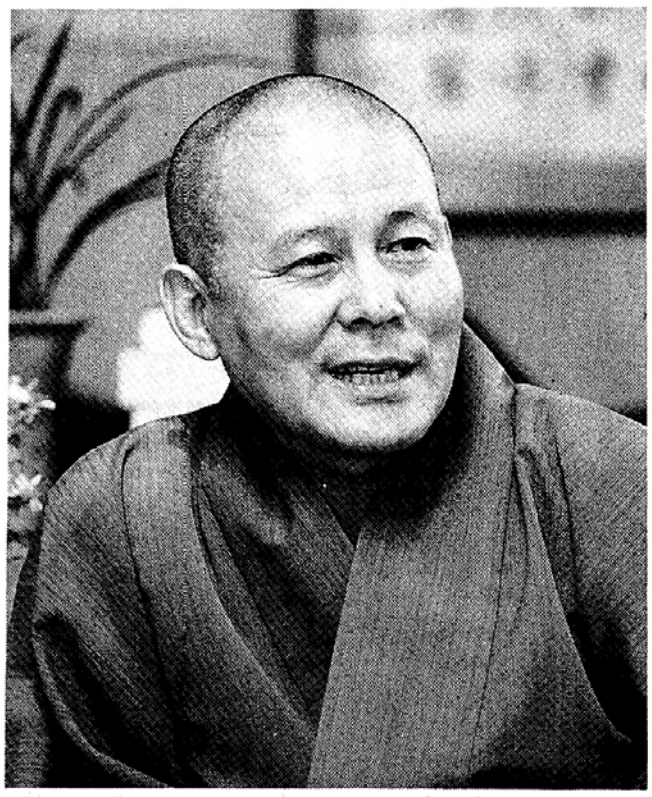
본사 : 158-091) 서울시 양천구 신월1동 226-7
TEL:02)697-9976, 693-7537 / FAX:02)695-9676

법보종찰 주변 골프장 "어불성설"

수요인터뷰

골프장저지 해인총림 대책위원장

지 관 스님



자연은 정신도량…훼손없이 후대에 물려줘야
가산연구원 설립4년 교계 인재양성 기여

국보중의 국보 팔만대장경을 보듬고 있는 가야산을 지키기 위해 해인총림을 비롯 전 불자들이 나섰다.

지역 환경운동 연합 단체들과 함께 골프장 건설 승인계획 완전백지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저지' 해인총림대책위원장 지관(李智冠, 64)스님. 6월 16일로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창립 4돌을 맞기도 한 지관스님을 동숭동 가산불교연구원에서 만났다.

'허가 취소' 확답받겠다

—조선 8경의 하나로 여겨올 만큼 경관이 훌륭하고 더구나 인근에 법수사지와 심원사지 등 절터가 있는 가야산 백운동 일대에 48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골프장이 들어선다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과연 건설이 백지화될까요.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여기에 대구 환경운동연합 산악연맹 등 30개가 넘는 민간단체들이 연합해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과는 두고봐야겠지만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치성 스포츠인 골프를 즐기는 일부 사람을 위해 많은 국민들의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휴식처가 될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적극적으로 범국민 저지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사업진행을 보면 지난 91년 6월19일 시행 허가가 나고 92년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12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난 후 12일만인 12월24일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이 났는데요. 해인사에서 언제 이일을 아셨습니까.

▲우리 해인사에서 그 사실을 안 것은 얼마 안돼지만 다른 산에 대규모 골프장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지역 주민들은 생태계파괴, 산사태및 대형홍수, 맹독성 농약살포로 인한 상수원및 대기오염 등을 우려해 시행허가 직후부터 반대해 왔다고 합니다. 자연은 그 지역을 소유하거나 살고있는 어느 특정인들의 것이 아닙니다. 후대에 물려줄 인류의 가장 고귀한 자산이지요.

—6월16일로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 개원 4주년을 맞았습니다. 교계의 가장 내실있고 비중있는 연구원 중 하나로 위치를 확고히 해 가고 있는 '가산연구원'의 창립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繼往開來」(옛것을 이어 앞날을 연다)라 하겠습니다. 한국사에 맥맥히 흘러내려온 전통불교의 정신적 자량을 재인식하여 그 연구교화에 주력하며 아울러 제반 과학의 불교적 수용을 가능케 할 인재를 지도·육성하여 불교발전에 일익을 담당코자 하는 것이지요.

—창립기념일에 맞춰 '가산학술상'을 선정 시상하시죠. 대상이 45세이하 소장학자들인데….

▲이번이 5회째인데 학술상을 수상하게 되면 우리 연구원 전문연구위원으로 위촉돼 교육과 출판 등에 관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인재양성입니다. 우리 연구원에 영입한 젊은 학자들을 보면 전국의 대학들이 골고루 들어와 있습니다. 불교학을 하는 사람들은 수가 적어 외롭습니다. 학문은 개성이 있어야 빛이 납니다. 각자의 개성과 전공을 마음껏 살릴 수 있게 우리 연구원이 밑바침이 돼 주고자 합니다. 가산 연구원에서는 교육·학술·출판·교화·불교대사전 편찬 등의 사업이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연구비를 지원하는 분야가 △한국불교사상 △원전 연구로 오늘 2천년까지 계속 「한국불교사상대계」가 집필 간행될 예정입니다. 화엄 선 정토 유식 천태 등 사상 시대별로 6권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산불교학술총서」는 1년단위로 프로젝트화해 추진, 가산학보 등을 통해 발표된 것을 묶을 예정이지요.

한국불교사상을 심도있게 연구 발표하는 것은 물론 절실히 필요한 일이고 원전으로 연구하고 변역할 정도로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인재양성에 주력한다면 10년후부터는 종단발전에 다소나마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내년 가을 대규모 국제학술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주제는 「세계승가공동회 소의 경전과 수행체계 현황」입니다. 모든 불교나라의 대학자들을 대거 초청할 예정입니다.

—제방 강원과 종립 종국대에서 오랫동안 후학들을 지도해 오셨는데 요즘 학문 풍토에 대해 아쉬움은 없으신지요.

▲요새 학생들은 깊이가 부족한 듯 합니다. 행사때문에 결강도 있고해서 한 학기에 기껏해야 10주밖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다가 깊이있게 공부하는 풍토가 부족합니다. 요즘 강원도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지만 전통강원방식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강원방식 교육 필요

—10여년전부터 불교사전 편찬의 원력을 발원, 10여년간 15만 항목을 추출해 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작불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국불교는 사상및 문화전반에 걸쳐 우리 민족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올 뿐 아니라 민족사 중흥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기원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공간적으로 불교문화사상 전반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도모키 위해 불교사전 편찬원력을 발원했습니다.

83년 시작할 때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환갑때 쯤 발간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해오다 보니 일이 커졌습니다. 오는 99년 완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급한 생각은 없습니다. 사전편찬은 교계가 꼭 해야될 사명이고 한국불교를 위하는 불사라 생각하고 차근차근 추진중입니다.

—「불교 대사전」 편찬작업은 어느정도 진행중이십니까.

▲전 10권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제1권의 약 2만5천항목의 원고정리를 마무리, 출간할 계획입니다.

—교계에는 연구단체들이 많습니다만 제기능을 못하는 연구원들도 여럿입니다. 도움말씀을 주신다면.

▲설립할 때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갖고 목표를 향시 잊지 않으면 됩니다.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들지만 사실 경비는 둘째입니다. 연구원 설립이념에 걸맞게 최선을 다하면 성과는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경숙 기자

약 력

- 1932. 5. 11 경북 영일 生
- 1976. 동국대 철학박사
-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경국사 흥국사 주지 역임
- 1986~1990 동국대 11대 총장 역임
- 현재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해인사 주지
- 저서 〈대혜서장주해〉 〈선종약사〉 〈조계종사〉 〈가야산해인사지〉 〈한국불교금석문역주〉 등

나의 수행일기



임현담 〈광명방사선과의원 원장〉 씀

생사고뇌에서 출구 열어준 인연

피서지서 만난 '불교성전'…삶의 의미 제시

햇수로 오년이 넘었다. 가족과 함께 경주로 떠난 여름휴가에서 인생의 한 갈림길이 시작되었다. 숙소에 놓인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까만 표지의 금박 글씨가 새겨진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다.

경주는 수시로 방문하는 편이었고, 그 숙소 또한 자주 묵어가는 곳이었다. 서랍을 열면 늘상 몇개의 메모지와 엽서들이 정리된 채 놓여있었고 항상 푸른 표지의 성경 한 권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데 익숙하게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해 여름에는 성경과 같은 크기와 두께의 또다른 책이 있었고, 손으로 들어올리자 '불교성전' '불국사'라는 금박 글씨가 적혀있었다.

불교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당시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에 때마침 걸려있던 시기였다.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나는 누구인지, 그러다가 결국 남들처럼 죽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죽은 후에 가야할 곳은 어디인지….

삼십여년 믿고 따르던 가톨릭이라는 종교는 무서운 숲에서 빠져나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없이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 구원되리라는 대답이 뒤따라왔다. 그리하여 어느 일요일 성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죄송합니다. 내 길을 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올지 못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기도로 작별인사를 드렸고,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필연적으로 불교성전이라는 한 권의 책을 손에 잡게 된 것이었다.



밤이 짧았다. 마른 스폰지가 물기를 빨아들이듯 며칠 사이 불교에 대한 첫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사실 문제되었던 것은 흘러가는 인생, 삶과 죽음, 그런 것들이었다. 행복하게도 비교적 간단하고 짧은 대답들이 넘어가는 책장 사이사이에 놓여있었다. 그렇게 빠른 시간 동안 외우다시피 독파한 책은 기억에 없는 듯 했다. 눈앞 비늘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며 숲에서 빠져나가는 출구가 희미하게 나타났다. 더구나 책 뒷부분에 쓰여진 간단한 수행법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 앉히는데 도움이 되어, 쓰여진대로 허리 세우고 가부좌 틀고, 혀를 천장에 붙이고 눈을 반쯤 감았다.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바라보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가족들의 작은 반대가 있었으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삶과 죽음,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왔던 곳과 죽은 후에 가야하는 곳에 대한 관념이 스스럼 없이 떠나게 만들었다. 그것을 풀지 못한다면 살아갈 염두가 나지 않았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내가 왜 죽어야하는지 모르며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위장된 평화였다. 그때 진정으로 어떤 커다란 질문에 덜컥 걸려들어 이승에서의 인연을 끊고 출가하여 산으로 들어가는 스님들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죽어줄 수는 없었다. 철저히 혼자가 되어야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날이었다.

고행이 수행이 된다는 것을 안 것은 인도였다. 찌는 듯한 더위 아래 길을 가면 숨차고 괴로웠다. 도대체 왜 사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스스로 탓하다가 그렇게 고통이 나타나는 부분을 열심히 바라보았다. 아픈 다리를 가만히 바라보자 나는 사라지고 고통만 남아있었다. 고통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었다. 바라보는 동안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니 무아(無我)라는 것이 눈 앞에 열리기 시작했다. 고통은 마음을 고정시켜 이리저리 날뛰지 않게 묶어주었다. 고통은 스승이었다. 〈다음호에〉

생활속의 불교 ㉙

문지방에서 던진 선사의 질문

옛 선사께서 이르셨다. "진리의 길은 어렵지 않나니 버릴 것은 오직 간택하는 마음뿐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는 절로 탁 트여 대낮처럼 밝으리라."

분별하는 마음, 그것은 이른바 지식의 원천이요, 세간사의 바탕이다.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릴 줄 알아야 하고, 길고 짧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면 바보 멍청이 소리를 면할 수 없다. 현대 과학문명의 눈부신 발전도 실은 쪼개고 나누어 보는 인간의 분석능력에 기초하고 있다.

현대의학이 인간의 몸을 부위별로 나누어 심장 전문, 위 전문, 간 전문… 식으로 다루는 것도 분석능력의 덕분이다.

그런데 옛 선사는 무슨 케케묵은 소리를 하는가, 분별하지 않아야 도에 통한다니?

성경에서는 아담·이브가 선악과(사과)를 한 입 베어문 게 원죄라고 했다. 선·악을 옳게 분별하기 시작한 것이 왜 원죄인가?

동과 서는 분별이다. 그러나 동쪽에 있던 시냇물을 건너가면 그때는 시냇물이 서쪽에 있게 된다. 동·서는 분별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상대적이다.

물컵과 주전자를 나란히 놓으면 컵은 작은 것, 주전자는 큰 것이지만 거기에 항아리를 가져다 놓으면 주전자는 작은 것, 항아리는 큰 것이 된다. 크고 작다는 것은 분별이지만 상대적이다. 작은 게 있으니 큰 게 있고, 삐뚤어진 게 있으니 곧은 게 있다. 낮은 차원이 있기에 높은 차원도 있다. 못난 것 잘난 것도 그렇게 상대적인 것이다.



옛 선사가 꾸짖은 것은 바로 이 상대성을 절대성으로 아는 그런 분별지이다. 높은 것을 높다고만 알고, 낮은 것을 낮다고만 아는 한 그 가르는 마음은 간택을 낳고 간택은 고정관념을 낳고 고정관념은 다시 분별을 낳고…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며 쌓이고 쌓인 생각들이 온갖 번뇌망상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고로 분별이 원죄요, 원죄는 분별일 것이니 어찌 이를 꾸짖지 않았으랴.

본래는 동·서가 따로 없고 높고 낮음이 따로 없다. 모두 다 한 백지 위에 그려 놓은 그림일 뿐이다. 고로 백지를 보아야 산은 산인 채로, 물은 물인 채로 걸림이 없게 된다.

문이란 그냥 안과 밖을 나누는 표지일 뿐이다. 문을 걷어내면 안팎은 본래 구분이 없다. 절대성은 오직 그것뿐이다. 상대를 '절대'로 보지 말라. 상대성은 그냥 상대성이다.

어떤 선사는 문지방에 걸터서서 안이냐? 밖이냐?를 물었다.

협찬 : 김 재 환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16〉

雲法師 務學十門(운법사 무학십문) ②

若能信受佛語 隨順師學
약능신수불어 수순사학
乃駕苦海之迅航 則登聖道之梯隥
내가고해지신항 즉등성도지제등
誰能出不由戶 何莫由斯道乎
수능출불유호 하막유사도언

만약 부처 말씀을 잘 믿어 지니고 스승을 따라 바로 배우면
이에 고해를 재빠르게 건널 것이요 곧 성인의 길로 가는 사다리에 오를 것이다.
누군들 나갈 때 문을 거치지 않으리요만은 어찌하여 이 도는 거치지 않으랴.

②不折我 無以學
부절아 무이학
設文 云我 施身自謂也
설문 운아 시신자위야
華嚴 云凡夫 無智 執着於我
화엄 운범부 무지 집착어아
法華 云我慢自矜高 諂曲心不實
법화 운아만자긍고 첨곡심부실
由執我見 驕慢貢高 不虛無智 妄自尊大
유집아견 교만공고 불괴무지 망자존대

②나를 절복치 않으면 배움조차 없다.
설문(說文解字라는 책)에 이르되 나는 제몸을 이른 것이라 하고
화엄경은 범부들은 지혜가 없어 그 나에 집착한다 하며
법화경에서는 아만하여 제 스스로 높은 체하며 아첨하고 굽은 마음이 실답지 못하다 하였다.
'나'라는 견해에 집착하니 교만은 더욱 높아지고 지혜없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망녕되이 자존자대 한다.

見善不從 罔受教誨 於賢不親 去道甚遠
견선부종 망수교회 어현불친 거도심원
欲求法者 當折我心 恭默思道
욕구법자 당절아심 공묵사도
屈節尊禮 以敬事長 尊師重道 見賢思齊
굴절비례 이경사장 존사중도 견현사제

선을 보고도 따르지 않고 가르쳐 꾸짖어도 받들지 않고 현인과 가까이 하지 않으니 도와는 더욱 멀어진다.
법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나'라는 마음을 꺾고 공손하고 묵묵히 도를 생각하라
허리 굽혀 몸을 낮추어 예를 지키고 공경하게 어른을 모시며 스승을 존경하고 도를 중히 여기며 현인을 보고는 그와 같기를 생각하라.

鳩摩羅什 初學小教 頂禮盤頭達多
구마라즙 초학소교 정례반두달다
此 下敬上 謂之貴尊
차 하경상 위지귀존
盤頭達多 晩求大法 復禮鳩摩羅什
반두달다 만구대법 복례구마라즙
此 上敬下 謂之尊賢
차 상경하 위지존현
故 周易 曰謙 德之柄也
고 주역 왈겸 덕지병야

구마라즙(인도스님)이 처음 소승을 배울적에 반두달다(인도스님)의 발아래 엎드려 예를 올렸는데
이는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을 공경한 것이라 말하자면 높은 이를 귀히 여긴 것이요
반두달다가 뒤늦게 대승법을 배울 때 다시 구마라즙에게 예를 하니
이는 윗 사람이 아랫 사람을 공경한 것이라 이른바 어진 이를 존중한 것이다.
고로 주역에 이르기를 겸양은 덕의 자루(손잡이)다 하였고

書云 汝惟不矜 天下莫與汝 爭能
서 운 여유불긍 천하막여여 쟁능
汝惟不伐 天下莫與汝 爭功
여유불벌 천하막여여 쟁공
孟子曰 夫爵益高者 意益下
안자왈 부작익고자 의익하
官益大者 心益小 亦深緣益厚者 施益博
관익대자 심익소 역심록익후자 시익박
子夏曰 敬而無失 恭而有禮 四海之內
자하왈 경이무실 공이유례 사해지내
皆兄弟也
개형제야

경서에서 이르기를 네가 오직 자랑하지 않으면 하늘아래 너와 다툴 게 없고
네가 오직 공적치 않으면 천하가 너와 더불어 공을 다투지 않는다 하였다.
안자(중국 '제'나라 재상) 말하기를 무릇 작위가 높은 이는 뜻을 더욱 낮추고
벼슬이 큰 이는 마음(욕심)을 더욱 작게하고 녹이 두터운 이는 더욱 널리 베풀라 했고
자하(중국의 현인) 말하기를 공경에는 잃을게 없고 또 공손하여 예를 갖추면 온 세계가 다 형제가 된다 하였다.

龍眼

善을 보고 따르지 않으면 道와 멀어져
'나'라는 마음 꺾어야 법을 구할 수 있어

지상법석

"제 자리에서 최선 다하면

송월스님 〈용문사 조실〉



약력
- 1925. 3. 1 경남 합천 生
- 45년 해인사에서 혼해스님 은사로 득도
- 1~6대 종회의원, 명봉사 김용사 주지 역임
- 대한불교미술전람회 사군자·서예 다수 특선, 입선
- 사군자·서예개인전(8회)

지난달 서울에서 고희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틈틈히 해왔던 작품들을 선보인 것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야 평생을 선방에 앉아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붓을 들고 살아 왔습니다. 이왕 전시회 얘기를 했으니 작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시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군자'를 즐겨 칩니다. 수행자가 웬 선비의 그림을 즐겨 그리냐고 하겠지요. 사군자는 수행의 일환으로 그리면 선화(禪畵)입니다. 특히 매·란·국·죽은 수행자의 기품이 살아 있어 더할나위 없는 수행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군자는 '그린다'고 하지 않고 '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명쾌한 표현입니까.

붓을 통해서 곧은 대나무를 치다보면 흔들리던 마음도 가라앉힐 수가 있게 됩니다. 참선수행과 둘이 아닌 셈이죠. 그래서 나는 작품활동을 통해 막연히 밀려오는 번뇌를 쉬 내좇아 버립니다. 때문에 작품에는 수행의 정도와 심리, 인격의 수준이 묻어나 있습니다. 대중은 전시 작품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번뇌를 어떻게 치유하고 있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자기에 걸맞는 수행의 방편을 찾다 보면 틀림없이 자기의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점집을 찾아 '어떻게 될까요'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근기에 맞는 방법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마음을 자기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잡지 못한다는 것을 자신이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현대사람들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점집을 찾고 스님을 찾아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의 그 무엇을 찾지 못해서 그렇죠. 마음에 잡념이 많으면 어둡기 마련입니다. 망상심이 죽 끓듯 하게 되는 것이죠. 중생심에는 1찰라 안에 5백 생멸(生滅)이 있습니다. 백지 5백장을 쌓아놓고 송곳으로 꿰뚫을 때 종이한장 지나는 것을 1찰라라고 합니다.

이렇듯 짧은 순간에 수없는 생각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멸심이 없으면 마음이 환해지고, 자기를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생멸심을 없애려면 참선, 주력, 염불 등 수행정진을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근기에 따라 참선을 하는 사람, 염불하는 사람, 주력하는 사람 등으로 나눠지 듯 수행정진의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렇듯 자기 근기에 맞는 각자의 수행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믿고 배우는 까닭은 우리 스스로의 성품을 확철(廓徹)하게 보고 밝혀서 부처를 이루자는데 있습니다.

혹자는 '부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부처(깨달음)를 이루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중생심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은 중생이라는 굴레에 또 하나의 굴레를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佛性)이 있어서 누구든지 다 불도(佛道)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체자임을 깨달았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 주체자는 때때로 헛된 이익을 추구하느라 괴로움을 당하죠. 지금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대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잡념·번뇌를 끊어버리고 수행정진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밝혀 보세요. 욕심을 버리고, 무량광대한 불법대해(佛法大海)에 나라는 고집스런 욕심의 뿌리를 세우려 한다는 것은 스스로 괴로움을 짓는 일과 같습니다. 그대로 두면 저절로 넉넉해지고 물흐르는대로 흘러가는데, 왜 헛되이 명리(名利)를 구하고 권세를 탐합니까. 더 잘 되려다 오히려 고(苦)를 부르게 되는 불상사를 초래하게 됩니다.

모든 일의 이치는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잡으려고 가면 갈수록 멀어질 뿐입니다. 그러다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원래의 목표도 흔들리게 되죠. 모든 일

동의보감에도
차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있는
중요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햇차

"지리산 야생 작설차로
심신을 투명하게,
갓 볶은 햇차로 더욱 깊고
신선한 맛을 느껴보십시오"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작설차의 시배지인 지리산 청정지역의 맑은 이슬을 머금고 자란 야생 차잎을 정성껏 채취하여 전통 제다법 그대로 가마솥에 덖고 멍석에 비비는 과정을 수회 반복하여 자연건조 시킨 후, 참나무 숯불이 전해주는 은근한 온도에서 오랜 경험과 육감으로 두세 시간 정도의 열처리를 거쳐 탄생한 작설차는 은은한 향과 깊은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전통 수제 작설차 제다법 3대째 전승 ■ 농림수산부지원 한국전통식품 개발사업체 선정
■ 청학제다원 설립 ■ KBS 6시 내고향 출연상품 ■ 智異山 茶天地로 상호변경

오로지 전통 수제차만을 저희 **지리산 차천지**에서는 보다 자렴한 가격에 작설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하고 고객 여러분들과의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품의 주문과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茶天地

지리산 茶天地

본사: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250
전화 : (0595) 83-9665, 83-3478 / 팩스 : (0595) 83-9665
서울사무소 (02)934-9923 / 부산사무소 (051) 241-5051

지상법석 ★

꽃이 피고 향기도 납니다"

깨달음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참 모습을 찾는 자기속에서 피어납니다

의 이치는 순리대로 흘러가야 하는 것, 그것 다저도 마음 밖으로 놓으면 오히려 그 목표가 제 스스로 찾아 오는 이것이 묘법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가을 날의 정취를 찾아 길을 떠났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니 싱그런 여름이 가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와 있더랍니다. 찾으려 애를 쓰면 구해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의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보면 그 자리에서 봄을 보내고 여름을 맞아, 가을의 시원한 바람에 심신을 달래는 것,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깨달음이란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깨달음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수행자는 깨달음을 얻으려 연연해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집착도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부려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 여러분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작다 생각지 말고 최선을 다해 정진하십시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붙들고 사랑하는 것이 다 한바탕 꿈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갖가지 고통과 어려움 또한 그처럼 실체가 없어서 텅빈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큰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좋다는 생각 뒷면에는 싫다는 마음이 끈적끈적 붙어 있고, 싫고 지루한 마음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좋다, 나쁘다는 마음의 그것까지 벗어나서 바르게 세상을 보고, 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떠 보세요. 참 요즘은 험악한 일이 빈번히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걸 볼 수 있죠. 다른 이들이 아전인수(我田引水)라 손가락질 할 지 모르겠지만 세계평화를 위해 불교가 널리 퍼져야 됩니다.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잘못을 되돌아 보지 못하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내다 버리고, 부모를 살해하고, 사기를 치는 범법(犯法)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선이든, 악이든, 선으로 주면 선으로 받고 악으로 주면 악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에서 말하는 인과와 인연의 이치죠.

석가세존의 전생담 중에 칠경화(七莖花) 얘기가 있습니다. 얘길 하지면, 석가세존께서 선혜라는 선인(仙人)으로 보살행을 닦던 인행시(因行時)에 보광여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선혜선인은 여래께 꽃을 공양하려고 꽃을 구하러 다녔으나 그 나라의 왕 역시 여래께 꽃을 공양하기 위해 나라안의 꽃을 모두 사들였기 때문에 꽃이 동이 나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선혜선인은 수소문 끝에 구리선녀에게 7송이의 꽃(七莖花)이 있다는 말을 듣고 꽃을 사자고 청했으나 팔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난감해진 선인은 여래에게 공양을 하려하니 제발 꽃을 팔라고 간곡하게 청을 하자, 그 정성에 감동해서 자기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꽃 5송이를 주고, 2송이는 자기 몫으로 여래에게 공양을 올려달라면서 그 7경화를 내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정반왕의 아들과 야소다라 공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전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고, 선업(善業)을 악업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이치를 알고 좋은 몸을,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 과거·현재·미래를 청정하고 선업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불교를 알면 이 세상에 행법(行法)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언젠가 62가지 기술면허증을 취득한 최모씨라는 사람이 해인사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스님 궁금한게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에 기동이 생기겠습니까?"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건 나에게 묻지 말고 자기에게 물으시오"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자신을 모르는데 어디가서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죠. 반대로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처가 그래서 부처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늘 여기 모인 대중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고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 가는데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려 노력하는게 바른 인생입니다. 그래야 과거·현재·미래를 바로 살 수 있으니까요. 내 몸, 손, 발은 부모에게 받았지만 자기 마음은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주의 주인공인 것이죠. 자기 자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을 떠나서 불법을 따로이 구하지 말고, 불법을 잃고 따로이 그 어떤 것이 있다고 결코 믿지도 말고, 오만하지도 마십시오.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곧 불법입니다.

우리가 생활불교! 생활불교! 구호처럼 많이도 외치죠. 자기의 생활을 떠난 불교는 한낱 허상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수행자도 불법을 생활에서 구하고 펼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생활불교라는 것은 조석예불 잘 모시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을 불교식으로 바꾸고 작지만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에서 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절로 꽃이 피고 향기가 나게 됩니다. 보살님들,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숨어있는 자기 자신을 느껴보세요. 오늘 여기 모인 대중들 모두 "어떻게 하면 잘 살겠습니까?"라는 의문을 품은 얼굴만 하고 있지 말고, 그 생각 자체부터 떨쳐 버려보면 어떨까요.

모든 근심과 공포와 번뇌는 거짓 나를 고정불변한 것으로 착각해서 생겨나는 것이니 항상 나를 계발하려고 정진하세요. 참선을 하든, 염불을 하든 자기의 근기에 따라 쉬지 말고 정진하십시오.

도(道)에는 분이 없습니다. 어떤 스승도 여러분에게 들기만 해도 부처님의 지혜와 혜안을 갖추는 법문을 들려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1시간 넘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말일 뿐입니다. 귀없는 귀로 들으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선업이 아름다운 인연을 낳는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름·권세 탐하면 苦海에서 못벗어나

'생활을 불교화 하는 것' 자기를 찾는 수행

"선으로 주면 선으로 받고 악으로 주면 악으로 받고 이것이 불교의 인과 이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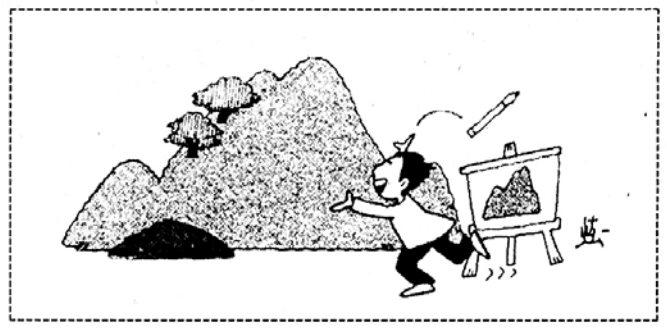
수평선이란 따라가면 또 그 만큼 멀어져서 언제나 '저기에' 있을 뿐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늘의 구름을 쫓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사를 살면서 돈과 권세와 쾌락을 쫓는 것은 허망한 꿈을 꾸는 것과도 같습니다. 꿈에서 깨어보면 꿈 속에서 꾸었던 온갖 것들은 다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허무하기 이를 데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헛된 욕심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허망한 것을 쫓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자기 내부의 뿌리는 어디에다 내팽개쳐 버렸는지, 꿈이 꿈인지 모르는 까닭으로 번민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꿈에서 깨어나세요. 뭉! 뭉!뭉!

그 쾌락의 꿈과 고통의 꿈에서 깨어나서 한바탕 껄껄 웃고 사려깊은 눈으로 이 세계의 참모습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불법(佛法)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본래 갖고 있는 밝고 깨끗한 근성의 부처자리를 참된 수행정진 없이 욕심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29

양 형 진

개념의 한계

지난 번에는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았다. 그리하여 양자역학에서의 물체는 파동이면서 입자이고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말을 하였다. 이는 곧 이러한 물체가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면 이러한 물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도봉산으로 돌아가 보자. 도봉산을 그린다고 할 때 어찌 서울이라든가 의정부라는 두 방향만이 존재하겠는가? 사실은 무수히 많은 방향에서 도봉을 그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각도를 조금만 달리하여도 산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울이나 의정부라는 도시가 있으므로 해서 그 방향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연유로 설정된 어느 특정한 두 방향의 가능성만을 고집하면서 도봉을 그려보겠다고 벌렀던 것이다. 그러므로 진짜 도봉산이 그림으로 설령 나타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방향이 서울쪽이거나 의정부쪽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자나 광자에 대한 설명이 또한 이와 같다. 전자라는 존재도 파동과 입자라는 면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파동이나 입자라는 개념은 서울이나 의정부에서 보는 방향과 같이 우리가 비교적 친숙히 아는 상대적인 개념의 쌍일 뿐이다. 그러므로 전자를 바라보는 무수히 많은 개념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초기에 양자역학을 만들어 갔던 물리학자들은 파동이나 입자라는 개념말고는 전자를 기술하기에 적당한 개념을 달리 알고 있지 못하였다. 그래서 파동과 입자라는 잣대로 전자의 존재를 그리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런 상황이었으니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니라는 등의 말 밖에는 할 수 없었다. 파동이나 입자뿐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언어적 개념이란 것이 모두 이와 같다. 사물의 실체를 드러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림은 그림일 뿐이다. 그림은 어느 한 쪽 방향에서 그릴 수 밖에 없으니 그 실체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그림은 어느 쪽에서 그렸건 그건 단지 그림일 뿐, 그 그림이 도봉의 실체는 아니다. 종이에 묻은 먹을 아무리 따져보아도 도봉은 나타나지 않는다. 도봉을 그린 그림만이 아니라 도봉에 대한 어떠한 말도 마찬가지이다. 금강경의 표현을 빌려 본다면 도봉은 도봉이 아니요, 다만 이름하여 도봉일 뿐이다. 또한 대품반야경에서는 "보리와 중생과 보살이 다 이름뿐이요, 그 자성은 불생불멸이며 불구부정이다 … 세상에서는 가설로 붙인 이름에 얽매여 망상 분별과 말과 집착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그러면 도봉을 그린 그림은 결단코 도봉을 드러낼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데에 인간의 위대한 점이 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종이 위에 단지 먹이 묻어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면 도봉은 살아나게 된다. 도봉을 아는 사람은 어느 방향에서 그린 그림을 보고도 도봉을 드러낼 수 있다. 그가 보는 그림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위에 묻은 먹이 아니다. 그가 보는 그림은 새가 울고 꽃이 피고 맑은 물이 흐르는 살아있는 도봉이다. 이것은 그림을 그린 방향에 대한 집착, 먹물이 그려낸 형상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만 가능하다. 도봉이라는 언어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만 도봉은 살아나게 된다.

양자역학이 발달하면서 물리학자들은 파동과 입자라는 개념으로 세계를 기술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들은 장(場)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사실은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던 개념에 대한 집착은 일단 놓은 셈이다. 파동과 입자라는 상대적 개념의 세계는 벗어난 것이다.

석가 세존은 먹물에서 도봉이 드러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다. 서울과 의정부, 파동과 입자, 생과 멸, 깨끗함과 더러움 등의 모든 상대적 관념을 초월하여 중도의 입장에서 반야바라밀을 수행한다면 우리 모두의 불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셨다. 어느 방향의 그림이건 어느 사물이건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고 하셨다. 그러면 어느 그림이 진짜 도봉을 그린 그림인가?

집착 버릴때 상대적 관념 초월하게돼

양자역학 '場' 개념 도입 언어한계 극복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
	●광고국 02-737-0692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전화 051-634-5114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전화 062-375-9986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전화 053-427-8008	
경기지사	●전화 032-613-4027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전화 0416-856-3280	

초기 열반경 강설법회

우리는 지금 고뇌하고 있습니다.
"열반은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가?
不死의 깨달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체험되는가?
이 도도한 세기말적 상황 속에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진정 한 순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가?"

이제 팔십노구를 이끌고 구시나가라 피안의 언덕으로 행진하시는 붓다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야, 나는 이제 여든 살, 늙고 쇠하였다.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 간신히 움직이듯,
나도 가죽끈에 묶여 간신히 움직이고 있느니라."
「마하빠리 닙바나 수탄타」

■ 경전 : 「마하빠리 닙바나 수탄타」 – 초기열반경 〈민족사 편〉 ■
■ 강사 : 김재영 법사 ■
■ 기간 : 6월 24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연속 10회 ■
■ 입재 : 6월 24일(토)부터 오후 5시 (경전 구입비 5천원) ■
■ 장소 : 청보리 정토원(Tel:02-564-8416) ■
■ (지하철 2호선 강남역, 태극당 예식장 뒷편 태극회관 3층) ■

'작은 희망의 등불 하나' 청보리회

전화로 주문하고 집까지 배달되는

가진 홈쇼핑 HOME SHOPPING

'95 현대불교신문 독자만을 위한 통신

영원한 생명의 상징 —호신불 목걸이—



- 실물의 약 1.1배
- 뒷면은 반야심경이 양각되어 있습니다.
- 체인길이:42cm

- 상품코드:KJ 6201
- 상품명:호신불 목걸이(14k/6.01g)

₩ 116,000 → ₩ 104,400(10%)
(체인포함가격)

- 체인무게:1.87g

욕망과 탐욕, 항마진언 호신불로 혼탁한 세계와 그로 인한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안정과 평화를 찾으십시오.

만사형통으로 이끄는 작은 호신불 —불자 목걸이—



- 상품코드:KJ 6202
- 상품명:불자 목걸이(14k/3.53g)

₩ 70,000 → ₩ 63,000(10%)
(체인포함가격)

- 체인무게:1.87g

거북이는 부귀와 장수, 행운의 상징입니다.



- 상품코드:KJ 6203
- 상품명:거북반지 (14k/11.13g, 24k/0.96g 루비×2, Q×24)

₩ 398,000 → ₩ 358,200(10%)

맑고 고요한 마음 속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거북과 함께 건강장수를 누리시고 행운도 차지하세요.



- 상품코드:KJ 6204
- 체인무게:3.75g
- 상품명:거북 목걸이 (14k/11.89g, 24k/0.99g 루비×2, Q×24)

₩ 400,000 → ₩ 360,000(10%) (체인포함가격)

현대불교신문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당사의 통신판매 광고에 보내 주신 현대불교신문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재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호에는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자 더욱 많은 상품을 수록하였습니다.
당사는 고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본광고에 게재되지 않은 상품도 상담하여 드리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판매가격은 시중가격보다 평균 30%, 최대 64% 할인된 가격입니다.
본판매수익의 일정액은 현대불교신문에서 주관하는 불자 가정 스티커 보급운동에 쓰입니다.

한국가진산업(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75-1(가진빌딩 2F)

시원하게 사우나할 때 필수품 —사우나 슬림—



이태리 여성들이 애용하는 사우나 슬림. 몸전체 또는 부위별로 날씬하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세요. 피부형상에 관계없이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제품특징
- 클레임(냉열사우나 효과)
- 밸러입으로 정제적
- 비만감소에 따른 부작용이 없음
- 원산지:이태리 알살레메르사 수입완제품



- 상품코드:KJ 6205
- 상품명:사우나 슬림

₩ 33,000 → ₩ 29,700(10%)
(250ml)

25세 전후로 일어난 피부 트러블 — 강력 영양로 개선하십시오. 며칠 안에 피부에생기가 살아납니다.

- 피부 깊숙히 있는 주름에 소량을 넣어주세요 메움
- PLACENTA(태반) 농축액이 함유
- 탄력에 탁월한 효과
- 독특한 기억 주름에 관해도 신속히 피부노화해방 메워줌 피부 탄력으로 젊은 얼굴
- 수딩 효과있음
- A형 밴타입(건성 비산용) B형 고보습타입(건성 비산용)
- 주름이 A와 B 중 선택(두제품을 A 2개 사용 B)
- 이태리 알살레메르사 수입완제품

- 상품코드:KJ 6206
- 상품명:고농축 에센스

₩ 48,000 → ₩ 43,200(10%)



20층 피부 세포 속까지 영양을 공급하는 —첨단 미용 마스크 팩—

- 효능 풍부한 허브엑센스가 함유된 부드러운 거품마스크는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와 지친 피부에 새로운 활력과 탄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차츰 주름이 상실된 피부에 영양보급작용이 되어나며, 식물성 복합물질과 태반추출물의 상승은 탱탱 젊고 탄력있는 피부를 유지시켜 줍니다.
- 주요성분 태반추출물—노화억제, 주름방지, 탄력강화, 영양공급
  알로에추출물—미백작용, 피부재생, 자외선차단, 피부진정
  녹차추출물—활성산소억제, 멜라닌색소침착억제, 수렴보습
- 사용방법 냉장고에 차게 보관된 제품을 주시 꺼내어 사용하며 피부에 청적시킨 후 3분간 방치하거나 두드리듯 맛사지한다.



* 특히 뜻밥이나 바람에 얼굴이 탄 날에 이용하세요.

- 이태리 장클레메르사 수입완제품
- 상품코드:KJ 6207
- 상품명:마스크 팩
- 상품용량:20ml×10EA

₩ 85,000 → ₩ 68,000(20%)

여름을 시원하게 —삼베패드 / 이불 / 베개 카바 세트—

천연 고급 삼베로
꼼꼼하게 만들어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예쁜 자수 처리 꼼꼼한 끝마무리
까실까실한 삼베의 촉감을 느껴보세요.

100세트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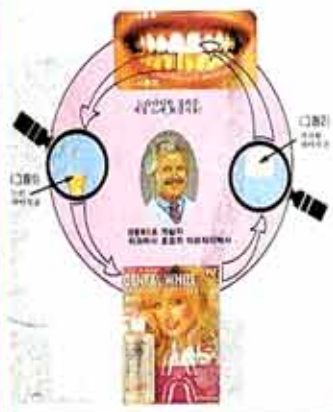
* 삼베 이불의 상단 부분은 두겁, 가슴 아래 부분은 홑겹입니다.



- 크기
  이불:160×210cm±3cm(3kg)
  패드:140×200cm±3cm(3kg)
  베개커버:30×60cm
- 소재:천연삼베 100%(기계직)
- 상품코드:KJ 6208
- 상품명:삼베패드/이불/베개카바세트
- 구성:이불1, 패드1, 베개 카바2

₩ 105,000 → ₩ 75,000(28%)

깨끗한 치아, 아름 다운 치아 덴탈화이트가 지켜 드립니다. —덴탈화이트—



치아의 겉표면만을 표백시키는 기존의 미백제와는 달리 치아 모공 사이의 각종 노폐물 제거로 누런 치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며 구취제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최신 치아미백
시술법—'93년 미 치과의사 조지 마드레이 박사가 개발해 미국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제품입니다.

* 치과에서 스켈링한 뒤에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원산지:미국

- 상품코드:KJ 6209
- 상품명:덴탈 화이트

₩ 77,000 → ₩ 55,000(28%)

주방의 만능 박사 —동양 핸드 믹서—

신세대 주부의 필수품
도깨비 방망이!



* 스텐레스 칼날을 사용하여, 녹슬지 않고 견고함.
* 만서남, 거품남, 혼합남, 컷트남, 분쇄기로 구성
* 세련된 디자인
* 안전하고 실용적인 제품
* 영양분 손실 방지
* 220V 전용

- 상품코드:KJ 6210
- 상품명:동양 핸드믹서

₩ 120,000 → ₩ 43,000(64%)



요리가 즐겁습니다 —동양더블팬—



- 전골용, 구이용 2개의 팬:요리선택 폭이 증가
- 전골용 팬:각종 볶음 요리 및 전골 요리
- 구이용 팬:착수 기름받이가 있어, 화상의 기름 제거 및 고기의 감칠 맛을 살려줌
- KS마크 획득한 우수한 제품
- 100V/220V 겸용

- 상품코드 KJ 6211
- 상품명 동양 더블 팬

₩ 150,000 → ₩ 57,000(62%)

수납량 많고 심플한 실속형 —스텐레스 식기 건조대

심플하고 세련된 스텐레스 식기건조대, 공간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3단으로 세팅하였으며 각 단별 분리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각 단마다 스텐레스 물받침대가 있습니다.
- 수저꽂이와 칸꽂이는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본수출품(일본통신판매 히트상품)
- 국내 최초의 100% 스텐레스 식기건조대
- 무게:3.2kg
- 재질:18-8 스텐레스(27종)
- 본체크기:38.5(폭)×29(깊이)×58(높이)cm
- 일본 Daiyu사와 기술제휴

- 상품코드:KJ 6212
- 상품명:스텐레스 식기건조대

₩ 65,000 → ₩ 52,000(20%)

주부 만족 —산본 냄비, 끓어도 넘치지 않습니다



끓어도 넘치지 않는 이유(그림참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냄비의 삼중 바닥면은 평면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측면은 위로 올라감에 따라 안쪽면의 경사가 넓어 지도록 완만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에 의해서 냄비속에서 끓어 오른 수증기 등은 냄비의 측면을 따라 상승하고 냄비내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자연스럽게 순환합니다. 이 때문에 냄비 바깥으로 끓어 넘치지 않습니다.
- 치수 小 … φ24cm / 3.7ℓ
  中 … φ27cm / 5.1ℓ
  大 … φ30cm / 7.3ℓ

모양으로 상상해 보세요.
"만능냄비"로서 한없이 용도가 넓습니다.



실용 끓어 넘치지 않으므로 지켜보지 않아도 안심.
데침 : 도란을 그냥 삶아도 거품이 일지 않습니다.
볶음 : 프로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튀김 : 적은 양의 기름으로 바삭바삭하게 튀겨집니다.
찜 : 많은 양의 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침 · 버무림 : 볼(BOWL)로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품코드:KJ 6213
- 상품명:산본냄비

₩ 48,000 → ₩ 43,200(小)(10%)
₩ 53,000 → ₩ 47,700(中)(10%)
₩ 58,000 → ₩ 52,200(大)(10%)

패션의 고장 파리에서 온 알코팔의 품위!

유럽과 동남아에서 아니,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파리의 귀족풍 알코팔을 아십니까? 우리의 식탁을 고전적이고 세련된 유럽식 스타일로 바꿔놓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 빛에서도 잘 깨지지 않음
- 끓은 냉장식 강화제이기 때문에 과손이 안됨
- 전자렌지에도 사용 가능
-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적인 용기
- 세정 가수성화유리
- 원산지 프랑스



- 구성
  25.7cm 6PCS(디너접시 6개)
  17.9cm 6PCS(국그릇 6개)
  15.8cm 6PCS(공기 6개)
  8.4cm 6PCS(커피잔 6개)
  13.8cm 6PCS(티받침 6개)

- 상품코드 KJ 6214
- 상품명 알코팔 세트(30pcs)

₩ 210,000 → ₩ 99,500(53%)

주문 접수기간
95년 7월 4일까지

- 소비자 상담:02-529-7873
- 주문 접수 시간:평일-오전 10시~오후 8시
  토요일-오전 10시~오후 5시
- 배달 기간:입금확인후 7일 이내

■주문시 유의 사항
- 주문접수:주문접수기간 외에는 제품 생산 및 배송 관계로 접수치 않습니다
- 추가 할인 혜택:20만원 이상 구매시 → 7%할인혜택
  (보석류 제외) 10만원 이상 구매시 → 5%할인혜택
- 교환 및 반품:상품을 받으신 후 7일 이내 교환 및 반품 가능

판매 특별 가격 파괴전

지금 주문하십시오
무료전화 : 080-900-4900, 080-900-4901
대표전화 : 02-529-4900, FAX주문 : 02-529-4905

뱃살이 줄지않아 걱정이신분 책상앞에 직장인, 수험생들은 윗몸 일으키기를!

곡선몸매를 위한 곡면 설계로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하체들어 올리기, 상체펴기등의 운동효과를 극대화시켜 줍니다. 독선한 무선 구조로 디스크를 예방해 주며, 높·낮이가 조절되어 누구나 간편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때 접어서 보관
사이즈: 75×30×100cm
슬림벨트 조임효과로 업!!기 미용효과에 도움
다리 길이에 따라 높낮이 조절

- 상품코드 : KJ 6215
- 상품명 : 커빙벤워

~~₩ 66,000~~
→ ₩ 55,000(20%)
(접어서 보관)

걷기는 최고의 운동! 10분 씩만 걸읍시다

—신미니스탭퍼—

현대인에게 가장 좋은 운동인
걷기를 어디서나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거실, 사무실에서 손쉽게
온가족이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직업운전자나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에게 좋습니다.

■운동효과
- 심폐기능 강화
- 하체 근육단련
- 비만개선
- 성인병 예방

■ 계이지부착 칼로리우/시간 표시



- 상품코드 : KJ 6216
- 상품명 : 미니스탭퍼(신형)
(계이지부착 56×31×51cm)

~~₩ 99,000~~ → ₩ 84,000(15%)

주물러 주는 우리집 홈 닥터 —효자손 맛사지기—

Q마크를 획득한 효자손의 특징

고품질 · 고성능 · 고신뢰성의 효자손은 카바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효자손은 두개의 지압 봉이 부드럽고 강하게 움직이면서 저리고 쑤시고 아픈 어느 부위라도(목, 어깨, 허리, 팔, 다리, 허벅지)를 사람의 손처럼 시원시원하게 주물러 드립니다.



- 상품코드 : KJ 6217
- 상품명 : 효자손 안마기

~~₩ 230,000~~ → ₩ 85,000(63%)

■특히 이런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 몸이 뻐근하고 어깨가 무거우신 분
- 장시간 허리앉음이 많으신 분
- 손, 다리, 어깨가 결리시는 분
- 배가 나오신 분(손, 다리, 배군살제거)
- 숙변을 제거하고 싶으신 분
- 운동 선후에 근육을 풀고자 하시는 분
- 수험생의 긴장, 초조, 불안에 의한 피로를 덜어줌!

■특징
1. 효자손은 물리적인 요법으로 경혈과 혈자를 자극해서 몸 전체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시켜 줍니다.
2. 효자손은 어디서나 하루 30분간 주물러 지압해줌으로써 굳어진 근육을 풀어줍니다.
3. 정격전압 : 110V~220V
4. 소비전력 : 6W 무게 : 3KG
5. 규격 : 36(L)×22(W)×15.5(H)cm



꼭 카바를 입고 사용하십시오

미국 Polo사에 납품했던 그 품질 그대로입니다. —핸드 백 3점 세트—

세련된 칼라와 디자인, 꼼꼼한 바느질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성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분위기에 맞게 선택하면
외출이 즐거워집니다.

- 미국 수출품



100세트 한정

- 상품코드 : KJ 6221
- 상품명 : 핸드백 세트

~~₩ 94,500~~
→ ₩ 60,000(37%)

한번신! 군살, 지방 정말 싫으시죠?

—다이어트 바지



허세의 불필요한 군살 제거 효과가 있는 체중감량용 바지입니다.
입는 순간 높일 정도로 많은 양의 땀을 발생시키고 지방, 군살제거와 탄력있는 각선미를 자꾸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에어로빅, 헬스, 조깅시에 입으면 효과가 더욱 빠릅니다.

- Size
긴바지 : S, M, L, XL
반바지 : S, M, L

- 원단 : 일본수입품

- 상품코드 : KJ 6218-1
- 상품명 : 다이어트 긴바지

~~₩ 125,000~~ → ₩ 87,500(30%)

- 상품코드 : KJ 6218-2
- 상품명 : 다이어트 반바지

~~₩ 88,000~~ → ₩ 61,600(30%)

다양한 기능의 자동 카메라 —현대카메라—



세련된 디자인, 간편한 휴대기능 및 편리한 조작으로 당신도 착은 영상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 자동노출 자동플래시 기능
- 필름감기 되감기 자동
- 도중 되감기 기능
- 촬영날짜 표시기능
- 현대전자(주) 제품

- 상품코드 : KJ 6219
- 상품명 : 현대전자동카메라

~~₩ 157,000~~ → ₩ 98,000(38%)

여행의 즐거움은 짐꾸리기부터

—여행용 가방 세트 (3개 1세트)—

여행갈 때마다 고민이었던 짐꾸리기
이젠 여행용가방 세트로 해결하세요!
모던한 디자인과 파격적인 가격!



- 상품코드 : KJ 6220
- 크기 : 방수망 특수원단
大 56×30×26cm
中 47×25×24cm
小 42×23×21cm
- 상품명 : 여행용 가방 세트(3개 1세트)

~~₩ 58,000~~ → ₩ 39,000(33%)

표정까지 편안합니다 —다용도 안락의자—

- 표정까지 편안한 안락 의자
- 거실, 사무실 등에서 편안한 휴식을 위한 안락 의자의 기능
- 에서 원한의 길이만 간이 침대가 되는 최신형
- 원형대 부분이 3단계 각도 조절
- 크기 (접힌후 때)62×54×50cm
(세워을 때)62×36×88cm
- 프레임 : 분체도장
- 우레탄 발포 스폰지
- 안락의자 보증1년

- 상품코드 : KJ 6222
- 상품명 : 다용도 안락의자

~~₩ 70,000~~ → ₩ 55,000(20%)



무선충전, 물기제거, 강력모터 간편사용

—충전식 진공 청소기





우유, 커피 등 물기제거 먼지, 부스러기제거

■제품의 특징
- 자동차, 집안 어디에나 사용가능
- 벽에 걸어두고 충전과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석진 곳에, 청소용 흡입구가 없어 더욱 편리
- 휘타고류이 없으므로 영구 사용
- 물과 2/3컵(200cc) 양의 물충수 가능

- 상품코드 : KJ 6223
- 상품명 : 가정용 진공청소기

~~₩ 45,000~~ → ₩ 36,000(20%)

휙~ 던지면 펴지는 —3초 텐트



휙~ 던지면 그냥 텐트가 됩니다.
펴는데 3초,
접는데 5초,
던지면 펼쳐지는 초간편 텐트로 시간도 수고도 절약하세요

- 상품특징 및 상품설명 : • 접었을 때 사이즈 지름 60cm/휴대 어깨 걸이 가방 • 세련된 디자인과 칼라 • 가볍고 튼튼한 • 펼쳤을 때 사이즈 180×150×150cm(4~5인의 충분한 휴식공간)

- 상품코드 : KJ 6224
- 상품명 3초 텐트

~~₩ 39,000~~ → ₩ 35,000(10%)

30초면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집니다.

가족 야외놀이, 낚시, 해변에서 꼭 필요한 그늘 막텐트

가족 야외놀이, 낚시, 해변에서 꼭 필요한 그늘막텐트

- 소재 : 나일론 다우디(원단)
화이바 그라스(폴)
- 무게 : 2.3kg
- 9 ~ 10인용

- 상품코드 : KJ 6225

~~₩ 125,000~~ → ₩ 45,000(64%)



이런 분은 장(腸)을 청소하십시요 !! —코러스



- 배변시 가늘게 나오거나 변이 발알처럼 딱딱한 분
- 쉽게 피로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술을 마시면 실 사하시는 분
- 얼굴에 여드름과 기미기 지나치게 많이 나는 분

- 상품코드 : KJ 6226
- 상품명 : 코러스

~~₩ 60,000~~ → ₩ 50,000(17%)
(2개월분 120포×3g)

■코러스로 장(腸)청소를 해야하는 이유?

노폐물을 받은 소변이 생물학자 에서니르프 박사의 「장의 무제균과 노화」라는 이론에 따르면 장에 머는 숙변으로 많은 병이 일생되며 노폐가 빨리 진행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보통사람은 1~2kg, 심하면 10kg까지 장속의 숙변이 정체되어 있으며, 이들변이 피부가 거칠어 지는 것도 만성변비 다양이 안된는 것도 바로 이 숙변 때문입니다. 코러스를 먹은 후 2~3일이면 위대한 변통으로 숙변 등 정체된 많은 양의 변을 보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는 2개월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체공학과 스탠드의 만남!

—인버터 3파장 형광램프 스탠드!—

인버터란 인간의 시각작으로는 빛의 흔들림을 감지할 수 없도록 1초당 깜박거림을 18000회로 증가시킨 스탠드입니다. 3파장 램프란 인간의 눈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380~780nm의 파장의 빛으로 보내주는 형광램프입니다. 그러므로 인버터 스탠드와 3파장 램프가 하나로 결합된 인버터 3파장 형광램프 스탠드는 정시간 사용해도



눈에 피로를 주지않고, 난시나 근시의 발생을 예방합니다. 일반 전구에 비해 80%의 절전효과가 있고, 밝기는 30% 향상되며 수명도 8000시간이나 지속됩니다

- SUN-27W 삼파장 램프
- 전자음 채용 터치 스위치
- 깜박거림, 소음제거
- 220V 전용
- 크기 : 75×300×350m/m

- 상품코드 : KJ 6227
- 상품명 : 카이저스탠드

~~₩ 125,000~~ → ₩ 75,000(40%)

접으면 소파, 펼치면 멋진 침대 —소파베드—

낮에는 깔끔한 소파로,
밤에는 편안한 침대로…
팔걸이까지 있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세풍
접었다 펼다 공간 효율은 최대!

- 접었을 때



- 상품코드 : KJ 6228
- 상품명 : 데이베드(침대+소파)

~~₩ 129,000~~
→ ₩ 96,000(20%)

- 펼쳤을 때



바디라인을 살려주는 고탄력 거들 팬티

- 땀가 나온 여성, 출산후 체형관리 중인 분들께 좋습니다.
- 허리부터 팬티까지 이음 자풍산이 없습니다.
- 인체공학적 디자인
- 면 90%, 스판 10%
- Free Size
- 세계 15개국 특허
- 5매 1세트
- 이태리 BONITO사와 기술제휴

- 상품코드 : KJ 6229
- 상품명 : 거들팬티

~~₩ 35,000~~ → ₩ 25,000(30%)



여름철 소중한 옷 보관에는 —홈센스 옷 카바—



■제품특징
- 통기성이 좋은 부직포(PP) 사용(제일합섬 원단)
- 접착식은 하단에 발크로(찍찍이)가 부착되어 있습 니다.
- 크기 60×95cm(양복용)
60×130cm(드레스용)
- 구성 양복용15+드레스용5(공통)

- 상품코드 : KJ 6230
- 상품명 : 넝쿨무늬 옷카바A(접착식)

~~₩ 37,000~~ → ₩ 26,000(30%)

- 상품코드 : KJ 6231
- 상품명 : 넝쿨무늬 옷카바B(지퍼식)

~~₩ 48,000~~ → ₩ 33,600(30%)

집안정리! —홈센스 이불보, 고자상 카바—

■제품특징
- 통기성이 좋아, 곰, 곰팡이가 슬지 않음
- 지퍼식으로 수납이 용이하고 이불 4채까지 수납(이불보)



- 상품코드 : KJ 632
- 상품명 : 이불보세트(5개 1세트)

~~₩ 41,000~~ → ₩ 31,000(25%)

- 상품코드 : KJ 6233
- 상품명 : 작고자상카바(2개 1세트)

~~₩ 32,000~~ → ₩ 25,000(22%)

- 상품코드 : KJ 6234
- 상품명 : 작고자상카바(2개 1세트)

~~₩ 25,000~~ → ₩ 21,000(20%)

조립이 간편한 —홈센스 정리함—

이사할 때에도 꼭 필요합니다.

- 재질 : 백색컬프지+미널리지
- 사이즈
37×57×19cm(뚜껑식)
40×60×20cm(서랍식)



- 상품코드 : KJ 6235
- 상품명 : 파스텔정리함(서랍식 10개 세트)

~~₩ 57,000~~ → ₩ 45,200(20%)

- 상품코드 : KJ 6236
- 상품명 : 엉상블정리함(서랍식 10개 세트)

~~₩ 39,000~~ → ₩ 34,300(30%)

오늘은 무슨 색양말, 어떤 속옷을 준비할까요? —깔끔이 미니정리함!

■특징
- 여성의 팬티, 스타킹, 내의, 악세사리 등을 깨끗하게 정리 할 수 있음
- 넥타, 벤다이, 양말, 지갑 등 남성용 소품정리에도 사용품목별 칸칸 정리가 좋아하므로 찾을 때도 손쉬움



- 상품코드 : KJ 6237
- 상품명 : 미니정리함(5개 1세트)

~~₩ 45,000~~ → ₩ 36,000(20%)

- 상품코드 : KJ 6238
- 상품명 : 미니정리함(3개 1세트)

~~₩ 28,000~~ → ₩ 25,200(10%)

입금 납부 방법 : 은행 등에 온라인 입금 또는 카드 결재가능

1. 온라인 : 아래 계좌로 먼저 입금하시면 확인 후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조흥은행 312-01-125130
국민은행 023-25-0005-550
신탁은행 33808-0407009
한일은행 203-115978-13-001
농 협 018-17-002091
우 체 국 011916-0082284
• 예금주 한국가전산업(주)

2. 카드 결제 : 당사에서 보내는 카드전표를 작성한 후 동봉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되돌려 보내주시면 됩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할부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카드 B.C, 국민, 비자, 마스터카드)

백화점 바겐세일=교통대란
결코 싸지도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편안한 가진 홈쇼핑과 함께 하십시오.

가진

당 사는 많은 광고비를 소비자 이익으로 돌려 드리기 위하여 각 광고매체별로 최소단위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상품이 없더라도 본 광고지를 꼭 보관하셨다가 필요할 때에 전화 문의하시면 신속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항 시품목이나 판촉을 특별 산 답합니다.
지금 및 고가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판로가 없으신 분은 02-529-4900으로 연락 바랍니다.

고은 불교 대하소설

지옥을 향하여



그림 · 조향숙

한 죄많은 사람이 그가 갈 지옥이 어디인지 알기 위해서 이마에 손차양(遮陽)을 하고 멀리 바다 끄트머리 쪽을 향하고 있는 그림이 있었다.

고려말 공민왕이 그린 것이다. 그 그림 속의 바다 끄트머리는 그야말로 수평선 하나 뿐이었는데 그 아래로 바다 빛깔이 점점 검은 것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18종의 지옥을 약도로써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인담이 이 사라져버린 지옥도에 관해서 알게 된 것은 예성강 기슭에서 였다.

한 남루한 사람이 "공민왕! 공민왕!" 하고 외워대면서 그 슬픈 왕이 아내를 잃은 뒤 그리기 시작한 극락도와 지옥도가 예성강 일대의 어떤 거간꾼에게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거간꾼을 찾아 다니는 길이였다.

그런데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만화와 남각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만화로부터 그 남루한 사람 얘기가 나왔던 것이다.

"공민왕의 극락도를 찾아다니다가…나중에는 지옥도를 찾아다니는 그 떠돌이 영감은 제 정신이 아니였어" 하는 만화의 말에 남각도 고개를 끄덕였던 일도 인담은 아직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인담을 따라나온 남각이 탕선 직후의 뻐근한 다리를 풀어주면서 "스님!" 하고 인담을 끌고 갈대정사 저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인담은 그런 남각이 다시 심상치 않은 것을 알았다. 섬뜩하기까지 하였다.

"좌선을 싫어하더니…요즘은 잘도 앉아 있다마다…" 하고 겉으로 격려하는 말도 조금쯤 떨리고 있었다.

남각이 그런 인사치레를 숫제 무시해버리는 것이었다.

"스님! 저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인담이 남각의 심각한 말을 농으로 돌렸다.

"지옥에는 아무나 가는 곳이겠는가?"

남각이 집요하였다.

"언젠가 인담스님께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역대 조사들께서 다 때려부수어 이제 지옥이 없어졌다고 하셨지요."

"그랬던가."

"그것 뿐이 아닙니다. 다른 설법에서는 지옥이 없어졌다, 지옥이 없다는 말씀 대신 지옥천자(地獄天子)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인담이 점점 말문이 막혀가고 있었다. 그것은 남각의 쏘아댄 화살과 같은 눈초리에 당황하는 것과 동시의 일이었다.

인담은 그의 설법에 대한 기억은 확실하지 않으나 문득 지옥천자에 대한 설법은 기억에 남아있었다. 지난 날 그가 무량사에서 매월당(梅月堂)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처사 후월(後月)거사로부터 얻어들은 화엄경 수호품(隨好品)의 얘기였다.

지옥의 한 유정(有情) 중생은 전생에 화엄경을 보고 들은 공덕의 힘에 의하여 마침내 그 극고(極苦)의 지옥에서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 그 광명과 함께 천상계의 도솔천에 태어나 십지(十地)의 행(行)을 채워서 부처가 될 수 있는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남각이 다그쳤다.

"어느 쪽이 스님의 진정이십니까? 지옥이 없다는 쪽입니까? 지옥이 있어 지옥천자가 천상에까지 직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쪽입니까?"

인담은 더더욱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파도 한 덩어리가 바위를 쳐 엄청난 포말을 뿌려댔다. 인담의 옷이 대번에 젖었고 남각의 등짝도 다 젖어버렸다.

과연 남각의 다그친 질문과 그 사나운 파도 끝의 포말은 한통속이었는지 모른다.

무욕도 선원을 대표하고 있는 인담은 여기서 전혀 무능밖에 내보일 것이 없었다. 그가 서 있다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모르겠네. 남각."

"인담스님!"하고 남각이 큰 소리로 부르

〈 32 〉



"지옥에 가려면 지옥에 갈 업이 있어야 가는 것인데… 그렇게도 지옥에 가고 싶으신가"
"여기서 모양만 내고 있을바에는 차라리 지옥이 내 수행의 도량이겠지요"

면서 인담을 일으켜 세웠다.

"저는 이런 곳에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바쁜 중생입니다…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당신이 없다고 하다가 있다고 하다가 하는 지옥으로… 간다 그 말씀입니다…."

인담이 가까스로 한 마디 내뱉았다. 힘이 들어있지 않은 말이었다.

"지옥에 가려거든 지옥에 갈 업(業)이 있어야 가는 것인데…."

그때 남각이 바위 밑 소용돌이쳐대는 파도에 대고 인담을 밀어넣을 듯이 인담을 몰아세웠다.

"스님을 이 바다속에 내던지면 그 업으로도 지옥에 갈 수 있겠지요."

"그렇게도 지옥에 가고 싶으신가?"

인담이 여기서부터의 말투가 남각을 달래는 쪽으로 간절해졌다.

"여기서 모양만 내고 있을 바에는…차라리 지옥이 내 수행의 도량이겠지요."

남각이 이어서 말을 잇는다.

"이제 작무시간입니다. 스님도 저도 몸뚱어리를 놀려 일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담은 남각의 치열한 정신의 압력에 의해서 죄어들었던 그 자신의 몸과 마음이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런데 남각은 작무시간에는 일에 열중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남의 마음이나 세상의 일을 골잘 읽고 있는 우녀조차도.

오직 인담만이 풀 죽은 옷처럼 그의 마음이 착잡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고 한마디 내뱉았다. 이런 시간에 전혀 걸맞지도 않은 말이었다.

"…나는 백마강 부여땅에서 출토된 봉황무늬 벽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부여 송림사 마당에서 출토된 연꽃무늬 수키와 막새도 보았어요… 그 백제의 솜씨는 어디에 내놓아도 견줄 바가 아니지만… 그런 솜씨를 다 없애버린 나라의 멸망이 차라리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우녀가 저쪽 남새밭을 일구다가 이쪽에 대고 말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 봉황도 그 연꽃도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말 저 말이 왔다 갔다하게 되었다.

"여기에 있다면 누가 봉황입니까? 누가 연꽃입니까?"

"연꽃이야 합덕스님 아닙니까?"

"하하하 여기도 공부하는 곳이 아니군… 미색(美色)에나 기울어지고 있으니…"

"그렇다면 관세음보살상은 그것이 미색인가? 아닌가?"

"참으로 딱합니다. 어찌 미색이고 아니고 나누는 일이나 합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헛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연꽃을 노래하고 연꽃으로 떠오르는 아리따운 여인을 말해야 8만대장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화엄법계로다."

"자 구업(口業) 그만 지으시고 신업(身業)을 열심히 지읍시다."

이 말은 이제까지 주고 받던 말 밖에서 입을 다물고 있던 파현이 이런 설왕설래를 채근하는 것이었다.

이런 작무시간에는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고 일에 충실하는 것도 좋으나 일이 고단할 때는 서로 말장난이라도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

왜 조선 8도의 빈 곳 없이 인민의 가요가 전해오겠는가. 그것은 시어머니에 시달리는 며느리의 설움을 스스로 달래는 보리방아 찧는 노래였고 아주 험악한 묵정밭을 일구는데서 스스로의 힘을 돋구워주는 노래였다.

"…내가 가야할 곳은 오직 지옥이구말구… 내가 일찍이 극락을 버린 바가 역력하지만 이제는 그 극락을 위해서라도 극도로 고통스러운 곳에 가서 살아야 하구말구… 그 8대지옥 8한지옥에서 두루두루 살아보지 않고 어찌 부처가 될 수 있으며 어찌 극락에 왕생할 수 있겠는가"

그도 아니거든 천리 밖의 성 쌓기나 아문(衙門)의 요새등을 쌓기에 동원된 남정네들의 그 죽기보다 싫은 기나긴 노역 가운데서 스스로 견디어내는 노래였던 것이다.

누군들 이 땅의 농투성이로서 비 맞으며 도롱이 쓰고 논 가운데서 나올 줄 모르고 있었던 적이 없겠는가. 누군들 이 하늘 아래 땡볕 먹어 숨 막히는 여름의 콩밭 기음을 맨 적이 없겠는가.

거기에는 언제나 노래가 있어야 한다.

누군들 이 땅의 지향없는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심사(心思)가 되어보지 않은 적이 있겠는가. 거기에서 아리랑고개를 넘어가는 노래 아리랑이 이곳 저곳에 봄의 흰 싸리꽃인듯 가을의 옻나무 붉은 단풍인듯 널려서 들려온 것이 아닌가.

무욕도의 수행자들이라고 해서 군소리 한 마디 없고 말장난 지워버린 경건한 몸으로만 그들의 작무시간을 보내야 하겠는가.

이러저러 일을 마치고 연장을 둘에 씻어 간수하며 연장에게 "자네도 수고가 많았네." "자네 덕분에 내 입에 풀칠을 해서 공부가 되니 고마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네"라는 덕담을 남겨 주었다. 연장에도 들는 귀가 달려있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손발을 씻고 부엌으로 가거나 아예 갈대정사 모퉁이 남정네 찬물 욕장으로 가서 몇바가지의 물을 알몸에 들어부어 목물을 마치기도 하였다.

밤의 좌선시간에는 남각이 아예 방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최근 묵인된 일이기도 하다.

"큼!"

하고 남각의 기척이 파도소리가 어디로 가 있는 사이 방안까지 들리는 것이었지만 이미 방안의 입정(入定)에는 큼이고 캄이고 들릴 까닭이 없어야 하였다.

"큼!"

남각은 뜻밖에 잔잔해진 파도의 바로 위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었다.

"가야하리."

파도 한 자락이 기슭의 바위에 기어오르지 못하고 물러나고 있었다.

하늘에는 엿샛달인지 이렛달인지가 칼로 매섭게 깎아놓은 것처럼 중천에 박혀 있었다.

"가야하리."

라고 깊은 한숨과 함께 내뿜은 이 한 마디에 그 무엇이 달려와 함부로 대답하겠는가.

섬의 쥐나 다람쥐 따위 잔짐승은 물론이거니와 한두마리 나무가지의 부엉이도 제 모습을 숨기고 있을 따름이었다.

"…내가 가야할 곳은 오직 지옥이구말구… 내가 일찍이 극락을 버린 바가 역력하지만 이제는 그 극락을 위해서라도 극도로 고통스러운 곳에 가서 살아야 하구말구… 그 8대지옥(八大地獄-八熱地獄) 8한지옥(八寒地獄)에서 두루두루 살아보지 않고 어찌 부처가 될 수 있으며 어찌 극락에 왕생할 수 있겠는가."

남각의 정신세계는 바야흐로 어느 수행자보다 뜨거운 것이었다.

신라의 한 뜨거운 사나이 지귀(志鬼)가 여왕 선덕을 사모한 나머지 스스로 불이 되어 그 불에 타서 죽은 일이 있지 않은가. 남각은 부처를 그토록 사모함으로써 지옥의 화탕(火湯)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었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 (02)737-0697

부처님 말씀 친필작품
보시하는 마음으로 써드립니다.
268-5702 남강서실

연꽃방 (회화·바구니·신부화 꽃다발·생화·조화·동양란·서양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738-3933 (자택)934-1748

승도인쇄 스티커 전문
불심과 공익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문의처 : (02)273-1239
대표 이 강 화 합장

단청 · 불상 · 탱화 · 개금
※문화재 단청기능 제92호※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통 4반
■문의처 : 468-8329
■호출기 : 012-307-8329
박석언 합장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참신하고 염불에 능한 스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연락바랍니다.
불심포교원
주소 : 부산시 동구 초량2동 484-10
전화 : (051) 465-5100, 467-5200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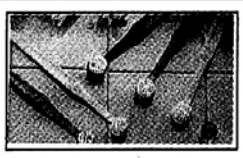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성기와 영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작품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벽화 · 병풍 및 액자화 작품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시내 · 지방 · 외국 어디나 그림만 또는 표구작품을 해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 (02)3273-0081
온라인 국민은행 남영지점 822-24-0171-328(우만)

진여원
불교서적 및 용품 도 · 소대, 초, 향, 촛대, 각종 유기 도자기, 염주, 목탁, 테이프, 개금, 단청, 불상, 탱화, 승복, 법복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739-2450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 : 645-6224
대구 : 952-8711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볼, 열쇠고리 등
한남상사
Tel : 02)795-4083, Fax : 02)792-9659

노고당
733-8743
지방은 조각하여 우송하겠습니다.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둘러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 : 농협역삼동지점 096-01-239051 (서울상사)
■전화 : (02)556-3076-7 ■팩스 : (02)556-3078

관음손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용품 · 불교서적 판매
스님을 위한 신변잡화 · 염주 일가 주문제작
비디오 · 카세트 · 설법집 · 단체용품 기획제작
720-1147(~8)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 · 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 · 8월 검정고시 국졸 · 중졸 · 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 · 재수생 · 직장인 · 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 쉽게 풀이된 해설 「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대학 졸업과정 | ⊙ 친절한 1 : 1 「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 · 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 · 高 · 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 ➡ (영 · 수) 「비디오가정교사」 특별제공 (개인지도용)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점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 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정일(남, 27세) 드림-
대한교육평가원 (사)세계평화전문교육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빌딩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

'백두산 통일 법회'
불자 1천여명 민족혼 찾기 발원

조계사·부산btn·동쪽나라 등 순례일정 밝혀
일상적 관광여행 지양 불심고취 계기 돼야

광복 50주년을 맞는 올해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찾는 불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의 방북이 허용됨에 따라 불교계에 평화통일 기원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조계사를 비롯 사찰과 신행단체등이 주최가 돼 10여개의 기행단 1천여명이 백두산에서 통일염원 법회를 봉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즈계사(주지 현근스님) 성지순례단은 6월15일과 7월13일 두차례에 걸쳐 백두산 천지에서 평화통일기원을 위한 대법회를 봉행한다. 3백여 순례자들은 소림사, 옥불사, 용문석굴 등의 사찰을 돌아볼 예정.

부산불교텔리비전 부산지사장 우관수)도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회장 정관스님)와 공등으로 8월 15일 백두산 천지에서 '국토통일 기원재'를 실시한다.

동쪽나라(발행인 김형균) 국토슨례단은 8월15일 백주산에서 '단군재'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광복 50주년을 맞는 불자들의 가슴을 한층 일렁이게 하고 있다.

국토통일 기원재는 '광복 50년 통일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사부대중 3백여명의 불심이 한데 어우러져 부처님의 통일법음을 온누리에 전하게 된다.

특히 광복 50주년 공식행사로는 불교계 유일의 행사인 동쪽나라 어린이국토순례단의 백두산 천지단군재는 어린 불자들이 통일에 대한 서원을 마음껏 펼친다는 점에서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순례단은 연변어린이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연극 '단군 왕검' 공연도 갖게 된다.

중국연변 태평소학교 초청으로 7월27일부터 8월1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는 제주도 우담바라어린이 합창단(단장 정우스님) 30여명도 통일기원을 위한 공연을 개최할 방침이다. 단장 정우스님은 "대자대비한 불법이 가득담긴 음성공양을 통해 한국불교를 알리는 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월간 정토(발행인 법륜스님)70여명도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제2회 백두산 및 발해의 유적지 역사기행'을 떠난다.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떠나는 이번 기행은 도보로 백두산을 등정, 천도재를 시작으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비, 발해의 서고성 등도 두루 순례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 알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는 7월말과 8월초로 예정돼 있는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방북일정이 구체화 될 경우 스님의 일정에 북한불교 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백두산 성지순례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천여 불자들은 광복 50년을 맞아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찾아 통일기원을 염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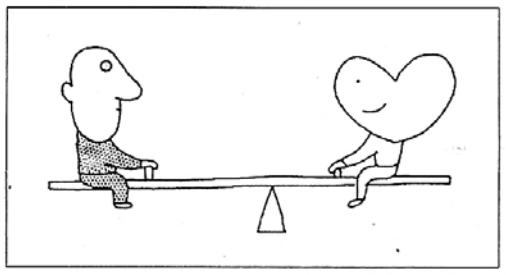
이처럼 불교계에서 광복50주년을 맞아 백두산 기행단이 줄을 잇는 것에 대해 불자들은 "불심으로 통일염원을 발원하기 위해 백두산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너나할것없이 우후죽순격으로 동참해 본래의 취지와는 걸맞지 않은 일상적인 관광여행도 배제할 수 없다"며 "동참하는 불자들이 통일기원법회를 올리는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중근 기자

에리후 건강칼럼 <26>

마음과 뇌의 기능 ③

마음은 만상의 본체이고 한 생각의 그림자



마음과 뇌의 기능은 동일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뇌는 우리가 육안적으로도 볼수가 있고 그 기능을 실험해서 결과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의 존재는 우리가 뇌를 보듯이 그런 방법으로는 볼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란 것과 뇌의 기능이란 것을 따로 구분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의학자들 중에는 마음이란 것이 적어도 뇌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적극적으로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모두 뇌의 활동이다 라고 확신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마음이란 용어가 주는 의미가 단순한 의학적 대상이 되는 뇌의 구조나 뇌의 기능이라고만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없지 않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음을 이렇게 적은 것이 있다. 마음은 우주의 근본/만상의 본체이고/한생각 뛰어나온 그림자이네/이 마음 고요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거울속 얼굴처럼 언행이 일치하리. 이런 마음의 실체를 단지 두뇌의 모습이 어떻다거나 기능이 어떻다거나 아니면 뇌세포의 전자화학적인 작용이 어떻다거나 하는 설명만으로는 마음을 설명하는데 충분치가 않다는 말이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마음이란 단어가 과학적으로는 대단히 보호하고 경계가 뚜렷치 못하며 과학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다는 말을 한다. 그래서 마음은 종교나 철학에서 다룰 문제라고만 내치는 경우도 있는데 인간이 지니는 마음이 인체와 더불어 있다면 이또한 마땅히 의학의 대상이 되어야 옳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설령 뇌의 기능이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능이 아직 지금의 의학적인 수준으로는 완벽하게 규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남겨두고싶어 하나보다.

앞으로 뇌의 기능으로 마음이 설명되어지는 날이 온다면 아마도 도에 이른 성숙한 마음과 미숙한 경지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구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가령 도가 높은 분의 마음은 뇌기능상 미숙한 뇌기능에 비해 무엇인가 뚜렷한 증거가 있을 것이란 가정이다. 더러는 지금의 의학수준에서 신경전달물질의 양이나 질에서 구분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아직은 초보단계이다.

이런 연구가 성공을 한다면 아마도 깨달음의 내용도 차등화시킬수 있는 객관적인 징표를 볼수가 있을 것이다.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말로하면 같은 말이라도 뇌의 기능 자체가 다를 것이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 현자의 장 *
대지와 같이
너그럽고
문지방처럼
의무를 다하고

이 향 원



질병인을 건강하게 건강인은 더욱 건강하게
당뇨 위장·변비·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 (02)552-1470(대) / 팩스: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무송
주소:강남구 역삼동 827-4 금성B/D 2층

사찰터 임야 9천평
■ 청주근교 보은방향 그린벨트 지역(사찰가능)
□ 2천평은 사찰터로 시주
□ 7천평은 1억 4천에 매매
연락처 : 0431-66-0958 이공례

산심 깊은 보살님 두 분만 찾습니다
조용한 절에서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살아갈
신심 깊은 보살님 두 분에게
무료로 침식제공하오니
뜻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 사실곳
경기도 양평군 불광산 정토원
■ 연락처
서울 238-3285, 233-2500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02)735-6795 · 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 해 창

經營管理職招聘
當社는 Group 계열사로써, 기업상장을 대비하여 지점경영에 참여할 능력있는 경력인사를 널리 초빙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응 시 자 격
경영간부	기획관리	• 연령 : 만 35~60세
	경영관리	• 軍·公·社職 경력자
	영업·홍보	• 명예퇴직 및 사회지도인사

2. 제 출 처 : 종로구 관훈동(조계사 100m전)
3. 접수기간 : 95년 6월 19일 ~ 26일
상담문의 : 737-0588~9

명문대가집 현미먹는 비법
먹기어렵운 현미 이렇게 먹으면 된다!
2분도현미 (먹기 어렵다)
3분도현미 (먹기 쉽다)
4분도현미 (먹기 더쉽다)
5분도현미 (먹기 더욱 쉽다)
6분도현미 (먹기 더더욱 쉽다)
백미10분도 (씹는이 전혀 없다)
"입맛대로 주문,배달"
조상의 얼을 지키는
쌀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231-5421~2
235-1846~7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총판 운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역학·성명학에 관심이 있으신 비구니 스님만을 모십니다
최여래심 합장
연락처:987-2721
주소:강북구 번2동 주공APT 408동 803호

여직원 급모집
탄허 불교 문화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모 단정한 여직원을 모집합니다.
■ 다음
• 여고 졸업자 약간명
• 30세 미만
• 불교 신자 또는 불교 활동을 한 자
• PC 가능자
■ 제출 서류
• 이력서 1통(반명함판 사진부착·전화 연락처 기입)
• 자기소개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방문요함)
제출처 : 서울 중구 신당3동 368-100
전 화 : 237-4438
탄허불교문화재단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유풍B/D (을지로 2가)
전화:(02)266-2629, 404-9521 팩스:(02)266-2679



석조각의 명문 동양석재
• 일찍이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 전통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 제작을 일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사오니
• 대덕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 바랍니다.
조각가 이 규 동
대 표 이 규 영 합장
동양석재 주간:(0357)541-4705 야간:(0351)847-2001

독자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십시오. 또 현대불교에 대한 의견·지적사항·제안 제보도 받습니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02)722-4162 FAX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HBS3470

7월 남북 합동법회 봉행 통일 앞당기는 초석되길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몇몇 스님들이 오는 7월 말경 북한을 방문, 남북한 불교지도자가 모두 한자리에서 남북평화통일 합동법회를 봉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다. 정부도 불교계의 북한 방북을 적극 허용한다고 하니 방북이 실제로 이루어져 불교문화속에 깃든 남북의 공통점을 통해 한민족임을 확인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래서 저 금강산 품에 안긴 고요한 산사에도 가보고, 곳곳에 묻힌 유수한 불교문화유적들도 발굴해 민족의 정기를 불교문화의 남북교류를 통해 이어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아무쪼록 모든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남북불교교류의 새 장을 여는 이번 방북의 원만한 성취를 두손모아 기원하자.

승선경〈서울 송파구 방이동〉

불자가정 스티커 보급 생활불교 실천 이끌어

얼마전 친구로 부터 불자가정 스티커를 건네받고는 산뜻하고 세련된 모양의 스티커를 대문앞에 붙였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자주 절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떤때는 내가 과연 불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부끄럽기도 했던 나에게 스티커를 대문에 붙이고 나서 생활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일을 시작하기위해 집을 나서며 대문을 잠그는 시간과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와 대문을 여는 시간 나는 스티커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합장 하는 습관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불자가정' 스티커는 나에게 내가정이 바로 부처님 도량이고 생활이 곧 불법실천이라는 진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현대불교신문의 '우리는 불자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스티커 보급운동에 박수를 보내며 많은 불자들이 나처럼 자신이 불자임을 새로이 깨닫는 인연을 만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박선숙〈서울 용산구 갈월동〉

조계사 공권력 투입 유감 원만한 해결방법 아쉬워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조계사 한국통신노조의 단식투쟁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투입을 바라보면서 문민을 등에 업은 또다른 독재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평화적 중재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집행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우리의 노동자들을 공권력의 올가미로 얽어 묶은 정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데바닷다의 교활함과 다르지 않다.

정부의 법집행이 악법도 법이라는 명분에 충실한 것이라면 노동자들의 투쟁또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당하고 당연한 그들의 권리찾기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사회의 정의는 정부 혼자만의 독선적인 힘으로만 지켜지지 않는다. 사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을 단 몇분만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이번 공권력 투입은 민주주의가 진실로 이땅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했다.

어느사회나 대립과 갈등은 있게 마련이다. 그 대립과 갈등을 원만하고 세련된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아니면 원시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안정된 발전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좌우될 것이다.

정철우〈울산시 남구 고사동〉

가야산 골프장 건설 자연·문화환경 파괴

해인사가 있고 인류의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가야산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가야산에 골프장을 만들려는 기막힌 발상은 그 자체부터가 자연파괴이고 반문화적인 작태다.

가야산에는 해인사외에도 크고 작은 고찰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팔만대장경을 옮겨온 가제재가 있다. 따라서 가야산 골프장 건설은 단순히 현상계의 환경파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문화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개발에 눈먼 업주들과 정부당국은 각성하고 자금이라도 개발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어떤 명분이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문화의 산실을 파괴하는 행위는 불자들이 나서서 막아야한다.

천명길〈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불교팬시용품 대중화 어린이포교의 밑거름

며칠전 국민학교 2학년인 우리집 둘째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만점을 받았다며 상품을 받아왔다.

부모마음에 어찌나 대견하던지 어떤 선물인가 펼쳐 보았더니 글쎄 성경말씀이 새겨진 필통이었다.

불교계에도 근래 들어 다양한 문구 괜시 용품들이 선보이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일반 문구점이나 괜시전문점에서는 찾아 볼 수 가 없다. 나의 개인적인 안목으로는 불교괜시용품이 절대 상품성면에서나 디자인면에서 일반제품에 뒤떨어 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불교전문용품점에나 가야 구경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우리딸과 같은 어린불자들이 불교괜시용품을 접할 기회도 별로 없고 어쩌다 어린이 법회에서 받아오는 연꽃달린 연필, 동자승 인형, 열쇠고리등이 고작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수많은 어린불자들에게 생활 구석구석에서 숨쉬는 불교의 정서를 심어주고 올바른 불교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의 하나가 어린이 불교괜시용품의 대중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노명숙〈강원도 강릉시 유산동〉

불법타락선거등 감시 지자시대 참일꾼 뽑자

이번 지자제 선거가 불과 보름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명선거를 이룩하려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니 다소 위안이 됩니다.

특히 불교계에서도 여느때와달리 공명선거를 이룩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반갑고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 입후보 등록을 마친 지 채 이틀이 지나지 않아 불법타락선거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니 '역시' 하는 자조섞인 생각이 듭니다.

지방화시대의 참일꾼을 뽑는 일은 유권자의 주인의식과 일꾼으로 나서겠다는 사람들의 성실성과 덕망이 어우러지는 잔치인데 우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늘 싸우고 헐뜯고 시끄러워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백호〈광주시 서구 송하동〉



'개집과 보물'

경남 함양 승안사지에 설치된 개 사육장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본지 26호)가 나갔으나 오히려 대책보다는 사육하는 개의 숫자만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보물 294호인 석탑의 바로 옆에 지어진 개집과 비닐을 씌운 밭 그리고 간이창고가 문화재 보존 당국의 불성실을 말해주고 있다. 〈사진은 보리방송모니터회 회원들이 촬영한 것〉.

6·27선거 보살심으로 치르자

제언



혜정스님
〈삼각산 문수사 주지〉

6·27로 가는 행렬이 분주하다.

공명선거를 외치는 구호가 드높은 만큼 유세현장의 표몰이 바람도 뜨겁다. 뜨거운 표몰이 바람과 공명선거의 실현 사이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염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후보자들의 터무니없이 장황한 공약이나 '이 기회에 한번' 하는 모종의 기회잡기 심리가 공명선거 실현의 지를 걱정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미 30년전부터 거론돼 왔던 지방자치제가 눈 앞에 다가왔고 그 첫 문이 선거를 통해 열리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6·27 선거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제 선거는 조선시대의 원님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중앙정부가 파견한 지역 대표가 아닌 지역민 스스로가 뽑는 지역대표의 탄생이기 때문이다. 지역민의 정서와 지역경제·문화의 지도자를 뽑는 이 시점에서 우리 불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훌륭한 제도를 훌륭하게 지켜 나가려는 의지의 현실적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나는 '자정기의(自淨其意)' 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지닌다'는 이 가르침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선거의 바람을 제대로 이끌어 가는데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될 정신의 푯대라고 생각한다. 지자체의 대표로 출마한 사람도 한결같이 그 마음을 깨끗이 지녀야 할 것이고 그 대표를 가리는 지역민의 마음 역시 스스로 맑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세운 불자들은 한 순간도 삿된 생각에 끄달려서는 안될 것이다.

마음이 맑지 못한 사람들의 집단은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첫 대문을 여는 지자체의 문 앞에서 우리는 거듭거듭 '자정기의'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만 맑게 지니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체에 불과하다. 개인개인의 깨끗한 마음을 사회적으로 확대시키고 또 그것을 일련의 제도장치로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자정기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개체의 존중이다. 불교는 개체의 존중에 앞장서는 종교이다. 개인의 깨끗함을 사회의 투명성으로 확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의 할 일이다.

우리는 이 선거에서 모두 보살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자정기의'하고 사회를 맑게 하는 그런 보살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불국정토 실현은 먼 곳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으로 정토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실천하는 불자로서 이 사회에 설 수 있는 기본 요건이기도 하다. 6·27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가짐도 이런 맥락에서 '자정기의 하는 보살심'이어야 하는 것이다.

백성이 주인이란 논리는 백성이 부처라는 뜻과도 통한다. 국민 개개인이 부처님일때 이 땅은 불국토가 된다. 지자체는 불국토 실현의 의지를 모으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솔직히 이런 논리의 현실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깨끗이 지키며 매진해 가야할 실천과제일 뿐이다.

선거는 끝나고 나면 무상한 것이다. 그 공허함의 앞 단계가 얼룩지면 후유증만 크게 남는다. 시작도 끝도 깨끗한 선거, 그것은 우리 모두가 보살심을 지니고 있을때 이뤄질 수 있는 지상과업인 것임을 명심하자.

현대불교를 읽고

대학생 불교동아리 탐방란 신설했으면

구석구석 정성이 깃든 세련된 편집과 유익한 기사들의 시기적절한 배치로 우리 불자들을 건강한 신행생활로 이끌어 주는 현대불교신문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젊은 청년불자로서 한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탐방이나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이란 코너를 보면 항상 직장인들이나 보살님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신행생활을 엿볼 수 있어 알게모르게 불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그러나 젊은 청년불자들이 함께 숨쉬고 공감할 수 있는 코너가 없어 항상 아쉬워하던 중에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와같은 대학생 청년 불자들의 불교동아리를 탐방하는 코너를 하나 신설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가는 신세대 X세대라는 이름과 함께 개인주의적인 풍조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써클활동도 예전에 비해 많이 축소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동아리의 경우는 불교가 구시대 종교라는 이미지를 대학내외에서 벗지 못하고 있어 신입법우들을 맞이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때에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현대화를 추구하는 현대불교신문사에서 대학생 청년 불자들을 위한 코너를 마련해 그들을 격려하고 보다 세련된 현대화된 불교의 모습을 불교동아리에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푸른 불교동아리를 찾아서' 어떻습니까?

박민우 〈서울 성동구 구의동〉

그늘진 삶에 광명 전한 따뜻한 관심 감사

귀의 삼보하옵고

온 누리에 삼보의 진리가 충만함을 감사하며 아울러 현대불교의 정성에 이곳 순천 교도소 삼백여 명의 불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합장합니다.

귀사에서 보내주시는 많은 정성에 나날이 참된 불자가 늘어나고 수양에 더욱 정진하는 모습입니다. 이곳도 지난 초파일을 맞아 한잎 한잎 정성으로 연꽃을 만들며 부처님 오신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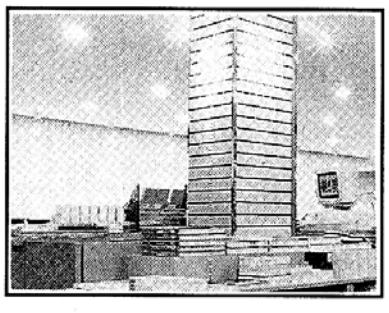
그리고 현대불교의 번영을 기원하며 부처님전에 연꽃을 올렸습니다. 부끄러운 인연들이지만 한 생각 바로 돌려서 부처님 말씀을 따르니 떳떳하고 밝은 삶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쪼록 그늘진 인연 어여삐 여겨 주시고 법의 참된 공덕으로 불국토에서 다함께 성불하기를 발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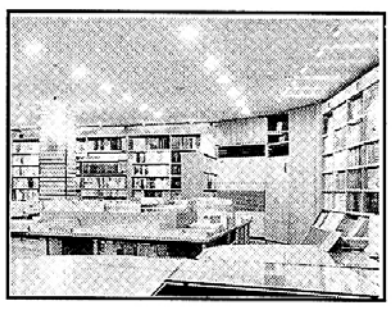
이연보〈전남 순천교도소〉

불을가득 · 법향가득

책방 여시아문으로 오십시오



· 저자와의 만남(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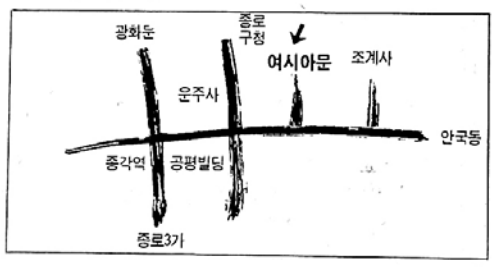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4.1.부터 시행)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 · 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

오시는 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대표) 737-8881 (서점직통)737-0695 / 팩스 737-0696 / 교통편 전철 :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 32, 59,84,159,331,588-2번

"깨달음은 평화실현의 출발점"

하와이 대원사 주최 제7회 국제불교학술대회



◇ 하와이 대원사 창건 20주년을 기념해 불교와 평화를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7개국 32명의 학자들이 진지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하와이 대원사(주지 · 대원)가 주최한 제7차 국제불교학술대회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하와이大 제퍼슨 홀에서 열렸다. <32호 참조>
「불교와 평화, 그 이론과 실천」을 주제로 7개국 32명의 불교학자가 참가한 가운데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 본회의에서 평화실천을 위한 불교적 과제가 다양하게 제시됐다.

개인의 평화 우주의 공존

'개인의 평화'에 대한 제1분과의 첫 발표자로 나선 정병조교수(동국대)는 「관용의 원리로서의 불교」란 논문을 내놨다. 정교수는 이 논문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 상호간의 평화로운 공존은 현실적으로 왜 깨어지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다. 이에 대한 정교수의 원인 분석은 3가지로 요약됐다. 즉 경제적 불평등, 윤리적 파탄, 이기적 심성이 그것. 정교수는 "이 세 원인의 극복은 인간의 내면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며 불교가 제시하는 무명(無明)의 극복 논리를 현재에 실현시키는 것이 그릇된 편견을 버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래적 자아, 근원적 심성의 회복으로 인간과 우주의 평화로운 질서가 유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교수의 주장.

이에대해 논평자인 데이비드 퍼트니교수(미국 버지니아 울드 도미니온대학)는 "정교수의 논문은 플라톤이나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한 서양철학적 입장에서 매우 타당한 논리전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보다 불교적이고 동양철학적인 입장에서의 조명이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발표한 로버트 조이슈너교수(미국 캘리포니아 파사레나 씨티대학)는 육조단경과 중국선종의 역사에 있어서 '신회'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조이슈너교수는 "신회에 대한 평가는 남종에 의한 일방적인 것에 치우치고 있다"며 북종과 남종의 차이를 '돈오돈수'라는 수행의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장로불교와 대승불교의 전통이 갖는 연결성을 도출해 내며 그를 통한 평화실현의 전형을 밝히는데 포커스가 맞춰진 논문들이 발표됐다.

갈등해소와 사회정의

'사회갈등의 해소방안'을 주제로한 제2분과에서는 인간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경전적 전거를 찾으려는 노력과 불교의 윤리와 교리적 바탕을 밝히려는데 학자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관심을 모은 학자는 채플교수와 번드교수였다.

데이비드 채플교수(미국 하와이대)는 "대승불교의 이상이 사회정의를 위해 매우 합당한 것이지만 실제로 대승불교권의 국가들이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 상황 설명에 이어 "대승불교를 지향하는 국가에서의 불교가 확실한 실천 논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또 조지 번드교수(미국 노스웨스터대학)는 사회정의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평화"란 점을 부각 시키며 수행의 중요성과 사회적 확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박성배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성철스님으로 대표되는 '안심입명파'와 현실참여 승려들의 '사회참여불교'를 다뤄 눈길을 모았다. 박교수는 산중 수행을 철저히 하는 안심입명파나 현실참여에 앞장서는 민중불교론자는 "다를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그들 모두가 인간과 사회구원의 실천자들이란 이유에서다.

불교는 환경보호종교

'환경문제의 불교적 극복 방안'을 모색한 제3분과는 불교는 철저한 환경옹호의 종교란 점을 재확인 했다. 이 분과에서도 환경문제와 관련 경전적 전거를 밝히는 것과 현실적인 실천방향의 설정이 가장 큰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탑진치 3독의 제거가 환경오염의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기도 한 제3분과에서는 태국의 사파 아난드교수(방콕 슈아롱콘대)와 심재룡(서울대)교수의 논문이 주목 받았다. 아난드교수는 "현대사회의 제문제는 바로 상업주의에서 비롯된다"며 그에대한 극복 논리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불교의 가르침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룡교수는 불교와 자연환경의 공존을 한국에서의 사례들을 통해 보고했다. 고려말 도선국사의 풍수지리에 대한 사상과 80년대 정부의 개발정책에 따른 송광사 앞의 주암댐 건설에 대한 송광사측의 반대운동 등을 통해 심교수는 한국의 사찰은 자연생태계와 융화된 수행도량임을 강조했다.

건강한 정신 깨달음 요체

건강문제를 주로 다룬 제4분과에서는 불교의 지고한 정신세계야말로 '완벽한 인간의 추구'이므로 절대건강의 인격 추구는 개인과 인류의 건강으로 통한다는 논지가 핵심을 이루었다. 이 분과에는 하와이대의 존스, 카나다의 가와무라, 필리핀의 관가이교수 등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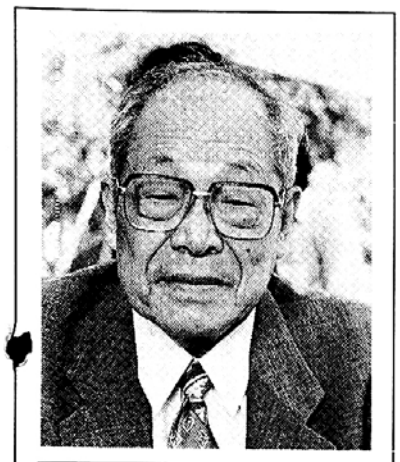
또한 '동아시아의 불교'를 중심으로 발표한 학자들은 개인의 깨달음과 인간사회의 포괄적 깨달음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허우성교수(경희대)는 이 주제와 관련 성철스님과 만해 스님에 대한 관점을 '아라한'과 '보살'의 개념으로 파악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산중수행을 통해 독각을 이룬 성철스님이 아라한의 경지라면 중생 속에 뛰어들었던 만해스님은 보살의 입장이었다는 것이 허교수의 주장.

이번 제7차 국제평화학술대회는 그 규모면에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매우 큰 대회였던만큼 중요한 과제들을 남기기도 했다는게 참가자들의 평이다. 어떤 시기나 환경적 여건에서든 불교는 '살아있는 종교'임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한국측의 참가자들은 응용불교학의 확산과 대승불교와 장로불교의 전통이 장단점의 보완 속에 더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불교학을 보다 상세하고 깊이 있게 해외에 소개하는 문제와 학자들의 국제 감각키우기는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불교학계에 준 자성의 단면이기도 했다.

하와이/임연태 기자

"현대사회 제문제 상업주의서 비롯" 지적
장로·대승불교전통 조화로운 공존 모색



기조연설한 고령의 불교학자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

불교학의 거두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박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첫날 기조연설을 한 후에도 마지막 날까지 각국의 학자들이 내놓는 의견을 청취하는 진지함을 보여줬다. 그는 올해 83세로 해외 여행을 자제하고 있었지만 이번 대회만큼은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에 하와이까지 왔다며 "불교학의 확대는 인류 구원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초기 베단타철학사〉(전4권) 〈인도사상사〉 등 인도불교학의 시원을 개척한 중요저서를 비롯 1백권 이상의 논집을 내놓은 나카무라 박사는 대학 강단에서 은퇴한 이후 더욱 왕성한 연구와 집필로 후학들의 모범이 되고 있기도 하다.

나카무라박사는 "세계는 평화를 희구하고 있으며 모든 정치 경제가 인류공존의 바탕으로 흐르고 있는 시점에서 불교정신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불교야말로 인간의 참모습을 밝혀내는 보편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카무라 박사는 "깨달음은 언어의 영역을 초월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절대자유에 이르는 길"임을 강조했다.

고준한 그의 명성 뒤에는 "나는 요즘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는 학자적 자세가 있다. 나카무라 박사는 "경전의 대중화가 가장 우선적인 불교의 전파 방법"이라며 보다 다양한 언어로 경전이 번역되고 보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흥종교의 폐단에 대해서는 "기존의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한 탓"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불교학에 뛰어 든 많은 학자들을 향해 "앞선 학자들의 장점과 오류를 분명히 파악해 보다 바른 학문의 영역을 개척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태〉

신흥종교 폐단
기성종교 반성해야

학 술

니가다 木柱는 한국 장승
보광스님 인·불학술대회서 밝혀

일본 인도학불교학회(마에다 회장)의 제46회 학술대회가 지난 10일부터 11일 양일에 걸쳐 교토시의 하나조노(花園)대학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8개의 학부로 나눠진 250건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중에는 '정법안장의 데이타베이스화' '팔리어문헌의 컴퓨터처리' 등 불교연구의 새로운 동향을 반영한 주제발표도 눈에 띄었다. 〈사진〉

또한 개최전 9일에는 학회내의 컴퓨터이용 위원회가 열려 '대정신수대장경'의 CD롬이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됐다. 한국에서는 동국대학교의 보광스님과 허일범 교수가 참가했다.

보광스님은 '아미산의 목주와 한국의 장승에 대해서'라는 논문을 통해 1825년 일본 니가다지방에서 발견된 목주



(木柱)는 '아미산하교'라고 새겨져 있지만 이제까지의 주장대로 중국사천성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강원도 지방에서 떠내려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광스님은 이 근거로 중국 사천성에서 떠내려간 목주는 해류의 흐름상 일본으로 유입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180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천연두가 창궐해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아미산 보현보살이 병을 낫게 해준다는 신앙이 급속도로 확산됐음을 상기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미산하교'라는 문구를 세운 장승이 마을 입구에 유행처럼 세워졌고 1824년에는 전국에 큰 흉수가 났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불교연구 歐美서 활발"
국학연 연구발표회

유럽과 미국에서의 한국학 및 불교학 연구현황을 소개한 연구발표회가 지난 12일 연세대 국학연구원에서 열려 세계화 시대의 불교학등 국학의 과제를 조망하는 기회를 가졌다.

美 버클리대 이홍영교수(한국학연구소장)는 '미국의 한국학 연구현황'이란 발표문을 통해 "미국내 한국학은 가히 장족의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인재와 교재가 없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내에서도 세계화에 발맞추어 한국문화와 학술을 통해 세계 지성에 공헌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한국학회(AKSE)를 통해 본 국학 연구현황'을 발표한 연세대 설성경교수는 지난 4월21일부터 25일까지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제17차 대회를 연 유럽한국학회를 중심으로 유럽내 한국학의 연구현황을 소개했다.

韓國佛教美術大典

우리 민족과 한국미술의 자존심을 이 책으로 살렸다!!



대한민국 제38회 출판문화상에 빛나는 「한국불교미술대전」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및 일본 경도대학 부설 불교미술 연구소에서 우리문화의 역량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 한국 불교미술 집대성.
■ 팔만대장경 이래 한국불교문화사 최대의 불사.
■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 불교미술
■ 국문판에 이어 일어판, 영문판도 곧 이어 발간.
■ 한국출판사상 보기드문 대기획에 최고급 인쇄.

○ 8절판(26.5×36㎝)의 초대형크기
○ 각권 312~376페이지의 올컬러 인쇄
○ 본문 180g의 스노우화이트지 사용
○ 호화양장제본에 날권케이스, 금박 포클로스
○ 정가 630,000원(전7권)

韓國佛教美術大典 중요내용

① 佛教彫刻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불교조각사와 함께 컬러도판을 싣고 도판해설을 하였다.
② 佛教繪畵	한국불교회화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컬러도판과 함께 도판해설을 실어 이해를 도왔다.
③ 佛教建築	사찰의 건축과 함께 불탑, 부도, 불비 등 불교건축을 논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④ 佛教工藝	불교의 공양구, 의식구, 사리기, 기와 등의 불교공예품을 서술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⑤ 現代佛教美術	오늘날에 제작된 대표적 불교미술품을 게재하고 대표적인 불교미술가를 작품과 함께 소개하였다.
⑥ 世界의 佛教美術	우리나라와 함께 불교미술이 발달된 인도, 중국, 일본, 몽고, 동남아 제국의 불교미술의 컬러도판으로 소개하였다.
⑦ 佛教美術資料集	불교미술에 필수적인 불교미술용어사전과 함께 불교미술품의 실측도와 각종 문양을 실었다.

현대불교 구독자 사은행사로 선착순 100명에 한하여 전권 630,000원을 490,000원에 현금 및 할인 분할해 드립니다.
법보시용으로 최적입니다.

주문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부
TEL:(02)737-0695
FAX:(02)737-0696

공급처
(주) 한국색채문화사
TEL:(02) 333-0051
FAX:(02) 338-7781

자연과학자 세이건 부부의 '잃어버린 조상의 그림자'

우주질서 과학적 규명 불교 생명관과 일치한다

천문·유전·물리·인류학등 분석통해 밝혀

불교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천문학 유전학 생물학 물리학 자연인류학 등의 연구성과와 이를 아우르는 뛰어난 통찰력으로 불교적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학자부부 칼 세이건·앤 드루얀이 함께 쓴 〈잃어버린 조상의 그림자〉(김동광·과학세대 옮김, 고려원미디어). 이 책이 불교인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생명의 본질을 밝히는 저자들의 지적 탐구와 통찰력이 이미 2천5백년전 붓다가 설파한 생명관과 너무도 닮았다는 놀라움이다.

불교의 생명관은 '자연의 모든 생물이 나의 구성요소이며, 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존재의 토대라는 일체의 생명관'으로 압축된다.

따라서 〈잃어버린 조상의 그림자〉는 자연과학자에게 듣는, 이제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법문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이 책은 생명의 궁극적인 본질을 밝혀내고, 인간을 포함한 현재 생명형태들의 미래를 탐구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태양계가 생성된 이후 지구위에서 생명체가 탄생하여 현재의 고등한 형태로 진화하기까지의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저자들은 진화론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바탕으로, 그동안 인류가 스스로 치장한 모든 가식과 허구를 벗겨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월감에 빠져있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생물들은 거의 모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로를 먹고 마시며, 서로가 방출한 가스를 들이쉬고, 서로의 몸속에 살며, 서로 상대방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상호협조의 복잡한 망을 이루고 있다. 지구 전체에 걸쳐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의 거대한 그물망이 형성되고 있다."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들은 유전학의 연구성과를 인용해 모든 생물은 같은 혈통을 가진 친척임을 밝힌다.

"DNA라는 형식으로 표현된 모든 생물의 설계도와 그 분자기구의 유사성을 생각하면, 유연성(類緣性)은 명백하다." 실제로 사람과 침팬치의 DNA배열을 핵산열기로 비교하면, 겨우 1.7%만이 다를 뿐이다.

공동저자인 칼 세이건(미국 코넬대학 행성연구소장)과 앤 드루얀(작가·미국과학자협회 이사)은 TV다큐멘터리 '코스모스'를 기획해 우리나라 사람들에도 낯설지 않다.

정성운 기자



◇〈잃어버린 조상의 그림자〉 공동저자인 칼 세이건과 앤 드루얀 부부. 태양계 생성부터 현재의 생물형태에 이르는 과정을 철저한 진화론적 관점에서 서술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역자	출 판 사
1	선 100문100답	진 제	파란나라
2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3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일 타	효 림
4	하산	홍 주	불지사
5	부처님 말씀	성 열	법 등
6	삶에서 깨어나기	틱낙한	장경각
7	알기쉬운 불교	편성부	불교방송
8	미란타왕문경	이시카미요시오	현암사
9	영가천혼법어	석성우	토 방
10	42장경	라즈니쉬	성 하

구입문의:(02)737-0695

율사 석성우스님 태교시집 발간 '화제'



(무제)

율사로 널리 알려진 승려시인이 태교를 주제로 한 시 72편을 한데 묶은 '태교시집'을 펴내 화제가 되고있다. 7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 이후 〈연꽃 한송이〉 〈마음비워 좋은 날〉등의 시집을 상재한 석성우스님이 펴낸 다섯번째 시집 〈하늘맑은 날〉이 화제의 책.

연이은 패륜의 충격이 시작(詩作)의 동기가 되었다고 밝힌 성우스님은 "부모의 절대적인 공덕의 힘으로 지혜와 복덕을 원만히 갖춘 이들이 세상에 오는 것"이라며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기가 사랑스러우면/저기 죽어가는 생명에/밝은 빛을 보시하게나"(방생2) "음악을 들으려면/마음부터 열어놓고/연꽃피는 소리쯤/들어보게나"

심성이 맑고 어질고 착한 사람이 태어나기를 염원하는 시인의 마음이 시편마다 가득하다. (토방 펴냄, 3천5백원)

남현스님 '빼앗긴 조국…' 펴내

일제하 인적·물적 수탈 생생하게 폭로

남현스님(한일문제연구원장·고려사주지)이 최근 일제하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기록한 〈빼앗긴 조국, 끌려간 사람들〉(아세아문화사)을 펴냈다.

이 책에서는 일제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민족에게 자행한 물자수탈과 인력수탈 전반에 걸쳐 그 실상을 생생하게 폭로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 강제동원된 한국인들이 작업 현장에서 일제에 저장한 투쟁사례도 실어 민족해방운동의 일부분을 복원하고 있다.

남현스님은 89년 '일제 36년 사연구소'를 설립해 한일관계사 자료수집과 연구에 몰두해왔으며, 94년 2월 이 연구소를 '한일문제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해 학술 출판 교육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유치원 방학교재 발행

불교유아교육협회

유치원 여름방학교재 〈신나는 여름〉이 나왔다.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 기획, 도서출판 반야샘 발행.(032-663-7779)

〈신나는 여름〉은 어린이들에게 가치관형성을 통해 부처님을 접할수 있도록 기획했다.

명사추천 불서100선

한산자의 '寒山詩'



최 동 호
(문학평론가·고려대교수)

약 일년전 1994년 1월28일 소주의 한산사(寒山寺)를 방문했다. 예로부터 듣던 명성에 비해 고태는 사라지고 너무나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실망감을 느꼈지만 필자로서는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기실 중국여행을 고대한 것은 한산사를 한번 보고 싶다는 열망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종루에 올라 한산사의 종을 쳐보았다. 돈을 몇 푼 내라는 바람에 극히 관광을 위해 개발된 듯한 인상을 다시금 느꼈지만,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그 정도가 아닐까.

'한산시'를 읽기 시작한 것은 대략 30년 쯤 전이다. 대학시절 헌 책방에서 우연히 구해 읽었던 것이 이 시집이다. 오래도록 이 시집을 잊고 있었는데, 다시 15년쯤 전에 시를 공부하는 제자가 고서방에서 귀중본으로 구한 이 책을 나에게 선물하며 신선한 충격을 새롭게 느낀 점 있었다. 그 얼마전 한산시의 역자이신 김달진옹을 만났고, 그분과 세속적인 인연을 맺었지만, 한산시가 나에게 주는 매력은 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깨달음과 비판적 시선이 살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산시는 한산자라는 당나라의 전설적인 은자가 천태산(天台山)의 나무와 바위에 써놓은 시를 국청사(國淸寺)의 스님이 편집했다고 전해지는 시집이다. 한산자의 시라고 전해지는 3백여수, 습득의 시 50여수, 통간의 시 2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삼은시집(三隱詩集)'이라고도 불리운다.

시의 내용은 자연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노래한 시가 주류를 이루고 그외 세상과 승려에 대한 비판, 불교적 교훈시, 도교에 대한 비판시, 여성의 변덕을 노래한 시 등을 통하여 허망한 삶을 깨우치고 진정한 도를 구하라는 것이 중심적인 주제이다.

한산시는 고려시대부터 한국 승려들에게 읽히기 시작하여, 현대의 시인들인 조지훈이나 정현종에게도 강한 영향력을 미친 시집이다. 현실의 속박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가 어찌 이 시집을 멀리 할 것인가. 필자는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읽고 읽고 책을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때 한산시를 펴든다. 조지훈은 "고루한 유자의 시를 읽어 답답할 때 한산시를 읽으면 이가 시리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만큼 세속의 허례허식을 벗어던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산사의 종소리는 어떠했을까.

에밀레종을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한국인 중의 하나인 필자가 들어본 한산사의 종소리는 세속의 쟁그렁거리는 소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까. 마침 옆에서 지켜보던 설악산의 시인 이성선선생에게도 종을 쳐보라고 권했던 것같다. 아마도 그는 깊은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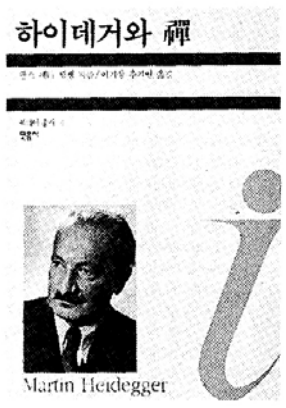
그러나, 필자에게는 천태산 바위굴 속에서 껄껄거리며 웃고 있을 한산자가 떠올랐다. 세속에서 깨우치지 못하고 방황하는 중생에게 관광용 종소리란 대수로운 게 아니다.

거지이고 광인이었던 한산자는 부릅뜬 눈으로 대갈성했을 것이다. 네 마음을 깨끗이 하라!

허식 벗어던진 깨달음 노래 읽을수록 마음이 신선해져

3분 독서

하이데거와 禪 서구사고 전환 동양철학이 큰몫



현대의 기술과 자본주의적 생산체계는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지배할 뿐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내지는 잠재의식의 영역인 욕망의 매커니즘까지 조종하고 있다. 현대를 지배하는 세계관은 '기술·과학적 세계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이 〈하이데거와 선(禪)〉(한스 페터 헴펠, 이기상·추기연 옮김, 민음사)에 주목하게 만든다. 산업적·과학적·기술적 발전이 약속하는 '무한한 진보라는 저 위대한 약속'에 동참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반성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출발점은, 슈피겔지 기자의 "서구사유의 전환에 동양적 사유가 한몫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하이데거의 답변이다.

하이데거의 답변은 이렇다. '오직 현대의 기술적 세계가 생겨난 그같은 세계의 장소로부터만 하나의 전향 또한 예비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하이데거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저자 헴펠은 이성과 논리에 앞서 존재생기의 사건자체를 강조해온 하이데거가 동양의 선과 도와 만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헴펠은 이 책을 통해 어떻게 하이데거가 '유럽의 전승을 새롭게 자기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는가를 보여주면서 그 노력의 귀결점이 선수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존재경험과 그리 멀지 않음을 밝혔다.

서구의 철학자가 이와같이 얘기한다면, 불교철학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논리로 불교철학의 방향을 그려볼 수는 없는 것일까.

입니다. 말하자면 전향은 선불교나 다른 동양의 세계경험의 수용을 통해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유의 전향을 위해서는 유럽이 갖고 있는 전승들과 이것들에 대한 새로운 자기 것 化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사유는 오직 동일한 유래와 구정을 갖는 그 사유를 통해서만 변화될 뿐

·····새로나온 책

▲시시상상(時時賞賞, 현문 지음)=상좌교육에 남다른 열의와 정성을 쏟았던 현문스님의 법문을 제자들이 한데 묶었다. '기도는 내일을 위한 다짐' '모든 이웃을 불보살님 대하듯' '지금 자신의 마음자리에선' 등 3부로 나눠 59편의 법문을 실었다. (목우, 6천원)

▲스님, 극락이 여긴데 어디로 가십니까(이청 지음)=월하 관응 서옹 석주스님등 우리시대의 선지식 19명을 만나 그들이 수행에서 얻은 지혜의 세계를 보여준다. 저자는 선지식과의 만남을 통해 정신적 빈곤감을 메울 수 있었다고 밝힌다. (우리출판사, 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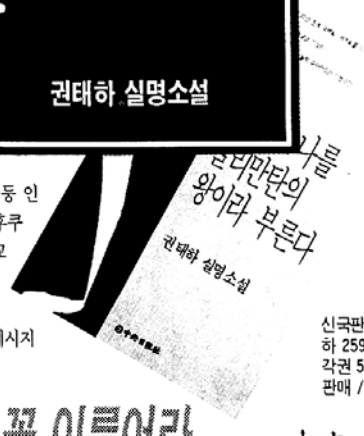


일상의 평범을 거부하고 세계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이룩한
大韓國人 최계월의 불꽃같은 인생드라마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권태하 실명소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옛 보르네오)에 경상북도만한 정글을 개척, 원목·조림사업을 하는 한국인을 아는가. 인근 자바해 마두라 지역에 횃불을 밝히고 「産油 한국」의 국가적 과업에 마지막 승부를 거는 사업가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동경 시절 낮에는 야쿠자의 두목들을 휘어잡고 밤이면 일본 정계 거물들과 천하대세를 논했던 통 큰 사나이. 서슬퍼런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견습사관(소위) 임관식을 앞두고 「나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기개와 배짱의 사나이. 일찍이 수카르노·수하르토 등 인도네시아의 전·현직 대통령, 기시·사토·미키·후쿠다·스즈키·다나카 등 일본 역대 수상들과 맺은 교분을 바탕으로 이미 수십 년전 사업의 영역을 국제무대로 넓힌 세계인 최계월. 이제 그가 바쁜 일상속에서 자꾸만 왜소해지는 우리들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한다.



신국판 / 상 254쪽, 하 259쪽
각권 5,000 원
판매 / 751-9468

한국인이여, 그대 가슴에 꿈을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라.

中央日報社

작업실 탐방 천불토판 만드는 최인한 화백

부처님 생애 1천흙판에 담는다

삶의 향기·희망담긴 우리들 모습 형상화

1천개의 토판(土板)위에 부처님의 표정과 모습을 천(千)의 형상으로 그려내고 있는 중견화가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치악산 구룡사를 오르는 왼쪽 산자락의 아담한 콘세트 작업실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흙과 싸릿대로 형상화 시키고 있는 최인한화백(한국화).

"천편일률적으로 그려지고 조각돼 있는 사찰의 천불도는 인간이 상업화돼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우리 삶의 향기와 희망을 그렇게 내팽개쳐둘 수는 없습니다."

최화백은 화가로서의 정열과 세상의 윤리 도덕을 천불도를 통해 담아내고자 한다. 때문에 기존관념에서 벗어난 기복신앙적 대상이 아닌 다양한 시각으로 재조명된 부처님의 모습을 천의 형상으로 그리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완성한 작품은 1백50여점. 부처님의 생애를 출생에서 출가(29세)까지 갈등과 고뇌의 초기로, 29세에서 35세까지를 고행·성불·해탈의 중기로, 35세이후부터 열반까지를 중생구제의 설법기간 및 성불의 말기로 구분, 다양하게 구상중이다. 초기 모습 3백점, 중기 모습 4백점, 말기 모습 3백점으로 그려낼 계획이다. 그러나 언제 완성될지 기약은 없다.

최화백의 작업은 여느 화가의 기법과는 다르다. 우선 붓을 쓰지 않는다. 흙으로 화판을 만들어 싸릿대를 꺾어서 그림을 그린다. 물감도 손바닥과 걸레로 칠한다. 어떤 때는 완성된 토판을 구두닦이처럼 윤이나게 문지르는 경우도 있다. 물감이 토판에 제대로 스며들도록 걸레로 여러차례 색칠을 하고 또 다독거려 중후한 색감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신중하지 못한 색감의 선택 때문에 부처님의 표정이 가벼워서는 그 마음의 깊이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부처님의 영원한 진리를 현대회화로 다양하게 그리고자 합니다."

어린시절의 석가모니, 머리위에 손을 얹고 번뇌를 쫓고 있는 부처님, 고개를 젖히고 두 손으로 뭔가를 부둥켜 안은 현대감각이 물씬 풍기는 부처님. 뭇사람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부처님의 모습, 생활의 권리 속에서 문득 문득 떠올리는 상상의 부처님을 그리는 것, 그것이 천불도를 조성하는 그의 염원인 것이다. 최화백은 1천점의 부처님이 완성되면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어떤 작품은 한점, 어떤 작품은 7점, 어떤 작품은 1백8점을 모아 집합된 모습, 또는 개별적인 표정으로.

원주=도필선 기자



◇1천개 토판에 부처님 생애를 새기고 있는 최인한화백.

불심시심 〈21〉

꽃가지에 오른 새

蜘蛛結網徒勞想 (지주결망도로상)	그물 짜는 거미, 헛된 수고로움
可笑山僧亦有爲 (가소산승역유위)	하염없는 산승 역시 가소롭구나
高臥石欄依本覺 (고와석란의본각)	돌 난간 높이 누워 부처께 기대이니
一聲啼鳥上花枝 (일성제조상화지)	한 곡조 우는 새 꽃가지에 오르네

윗 시는 조선조 청허대사의 제자중 한 분이었던 중관(中觀)대사의 시 용문한거(龍門閑居) 2수 중의 한 수이다. 용문사에 계시면서 산수의 자연을 읊은 시이다. 그렇지만 자연을 예찬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한 큰 깨우침을 얻으려 한 시이다.

거미가 그물을 치는 것은 삶의 본능일 것이다. 그물 자체가 제 몸을 지탱하는 의지처가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제 먹이의 공급처이다. 지나가는 날파리들을 잡아 매었다가 제 먹이로 삼는 곳간 구실도 한다. 그러나 스님이 보기에는 헛된 수고로움의 발상이라는 것이다. 저렇듯 괴로이 움직이지 않고도 사는 또 다른 미물들도 많으니 말이다.

그런가 하면 무엇인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산승들 또한 우습다는 것이다. 이는 스님이 자신의 행적을 뒤돌아 보며 거미의 헛된 수고와 견주어 본 것인지도 모르겠다. 대사는 서산대사의 문도로 임진란이 일자 영남에서 의병을 일으켜 승군을 통수했던 분으로 호남지방의 영규(靈圭)대사와 맞수를 이룬 분이다.

이 시는 이러한 전란을 겪고 다시 산중으로 들어가 한가로이 지내면서 지은 시라고 여겨진다. 그러기에 자신과 같은 스님들이 세속의 일에 힘쓴다는 것이 마치 거미가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 몸의 분비물을 빼내어 제 집이나 제 곳간을 짓는 일만큼이나 부질없는 일이라 여겼던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돌 난간에 누워 있을 때 꽃가지에 오르며 우는 새의 울음이 마치 이 산하대지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사자후에 맞먹는 진여의 설법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흡연대오하는 것이 때로는 산승의 일상사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시는 분망한 거미와 한가로운 새의 울음이라는 극단의 대칭에서 중도적 진리를 깨우침은 아닐까.

이종찬 〈동국대 교수〉

부산불교음악지도자協 내달 4일 창립

인터뷰 김성국 회장



"찬불가 학문차원 접근 새 영역 개척할 터"

"부처님의 찬탄법음인 찬불가는 아직까지 시작의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교예술 중에 조각, 건축, 불화 등과 비교해 보면 대조적이죠. 부산불교음악지도자협회는 찬불가의 위상을 한층 높이기 위한 학문적 모임입니다."

내달 4일 부산불교음악지도자협회 창립 기념음악회(오후 6시 파라다이스 호텔)를 갖는 김성국회장(부산여전교수, 음악과장)의 창립에 임하는 포부다.

김교수는 논문을 쓰려고 해도 그동안 축적된 자료가 없어 곤란을 겪었던 점이 이 모임의 자연스런 결성 동기가 됐다며 찬불가의 이론적 배경이 미약한 부산에서 불교음악 전공인을 찾아내어 찬불의 선율을 되살리는 사업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627년 당나라에서 전래된 범패를 포함하여 화두, 화정, 게송 등 불교음악 장르는 다양합니다. 이처럼 풍부한 불교문화 자산에 대한 연구작업과 함께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부를수 있는 찬불가들을 다양하게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도자협회 회원들은 각기 성악, 작곡, 피아노, 바이올린 등 전공분야가 다양해 찬불가 확산보급의 질적 토대는 단단하다고 말하는 김교수는 "1950년대로부터 70년대 서창업, 김용호씨 등에 의해 그 명맥이 이어져온 찬불가는 이제 그 토양을 양분삼아 전통의 순수성과 현대의 대중성이 접목하는 한차원 높은 것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근 기자

신예작곡가 찬불가 '하모니'

7월1일 신인불교음악회…사찰 합창단 공연도

신예 작곡가들이 신작 찬불가를 소개하는 무대가 마련된다.

7월1일 오후7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신인불교음악회는 대학원을 갓 졸업했거나 현재 재학중인 음악인들이 꾸미는 무대. 이날 무대는 중앙대 정부기교수가 기획한 것으로 이진구, 최은숙, 김수미, 현연주씨등의 '삼귀의-피아노·클라리넷 변주곡' '사홍서원-피아노·대금 변주곡'을 비롯 조영조씨의 '두메마을'등이 발표된다.

〈본지 29호 참조〉

또 칠보사, 삼보사, 법안정사 등 사찰 합창단의 합창곡 '날마다 부처님 오신날'등도 공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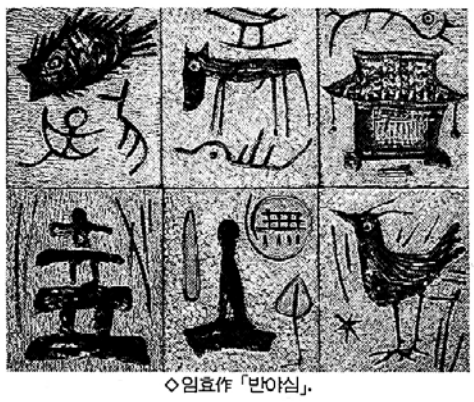
임효씨 부조 판화전

30일까지 가산화랑

'반야심경' '무위자연'등을 주제로한 임효씨의 도부조판화전이 16일부터 25일까지 동산방화랑과 가산화랑(30일까지)에서 각각 열린다.

분청사기를 회화영역으로 끌어들이고 한지판화라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 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임효씨는 이 전시를 통해 도부조판화의 순박한 질감을 보여준다. 뿐만아니라 판화의 질감을 바탕으로 형상화된 반야심경등의 불교적 세계에 대한 해석이 독특해 눈길을 끈다.

도부조판화란 백토를 다져 도판을 만들고 부조를 새긴 후 도자기 제작과정을 거친 것. 그 위에 한지 원료를 얹고 압착하여 떠낸 한지 판화에 채색을 하는 독특한 과정을 거친 임씨의 작품은 일반 판화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시도이다. 3년전부터 이 판화 제작에 몰두해온 임씨는 이번 전시에서 도부조 판화를 처음 선보인다.



◇임효作「반야심」.

'천불·천탑·꿈' 전시회

김부견씨 '존재의 가치' 추구

김부견씨의 '천불·천탑·꿈'전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의 일정으로 전주 정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운주사 천불천탑 계곡에서 본 탑과 불상들의 이미지에 꽃, 새들의 형상을 결합시켜 천진무구의 세계를 그려낸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실재하는 역사의 흔적과 작가의 상상력이 결합된 김씨의 작품들은 '꿈'이라는 주제 속에서 새롭게 던져지는 존재의 가치를 찾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당시집 영문판 출간

케빈오로크 교수 번역

미당 서정주 시인의 영문판 시집이 최근 영국에서 간행됐다.

'떠돌이의 시(Poems of a Wanderer)'를 표제로 한 이 시집을 경희대 영문과 케빈 오로크교수가 번역했으며 영국 데럴러스출판사가 펴냈다. 출판사들은 올 가을에 영국에서 원작자, 번역자등을 초청, 출판기념회를 갖고 한국문학 추후번역출판도 논의할 계획이다.

'동국불교미술인회' 명칭에 오해 많다

한국불교미술협회등 해명 서한

'동국불교미술인회'는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불교미술전공 정규과정 내지 대학원 석사과정 출신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뿐 아니라 동국대학교의 불교미술인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 미술학과와 불교미술전공 동문회, 학생회, 한국불교미술협회등 4단체는 최근 '동국불교미술인회에 대한 해명'이란 서한을 교계 언론 및 유관단체에 발송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서한을 통해 "'동국불교미술인회'는 동대출신 몇몇만을 포함한 특수대학원 관리자 과정 내지 그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는 이익단체"라며 학부 및 석사과정 출신자들과 재학생들에게 많은 오해와 창작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국불교미술인회의 한 간부는 "이것은 우리 모임을 모략하려는 의도"라고 일축했다.

문화재 소식

외국 유출 古典籍 영인화

학계·일반 활용 가능케

국립중앙도서관은 외국에 유출된 우리나라의 희귀 고전적(古典籍) 자료를 해외 현지조사를 통해 영인·수집하여 학계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국가문헌의 망라적 수집'이라는 취지하에 87년부터 '해외유출 한국 전적문화재 조사 및 영인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이번에 교토소재 오오타니(大谷)대학등 3개처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려本 〈아비담심론(阿毗曇心論)〉과 1654년 일본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원효의 〈무량수경종요(無量壽經宗要)〉등 70종 1백91책을 영인·수집함으로써 그간의 사업추진 실적은 총 7백39종 2천1백52책에 이르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수집자료에 대한 목록을 학계·도서관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98년까지 중·미·프·러 등을 대상으로 2천여책을 더 수집할 예정.

표충사 석탑 유물 19점 또 출토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표충사 경내 3층석탑(보물 제467호)에서 지난 14일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보이는 금동불상등 19점의 유물이 또다시 출토됐다.

문화재관리국과 밀양시는 3층석탑 보수를 위해 해체작업을 계속 하던중 지난 3일 명문석 등 11점의 유물이 나온데 이어 14일 오후에도 석탑기단부에서 모양과 크기가 각기 다른 금동불상 15구와 장신구형의 탑신 1점, 신장상 2구, 조선초기 화폐인 상평통보 1점 등이 출토됐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 석탑은 내달 말까지 해체, 보수작업을 계속할 예정이어서 기단 내부에서 유물이 계속 출토될 것으로 보인다.

보음가득 법향가득
책방 여시아문

한적한 숲에 있는 느낌, 녹수청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입니다



녹수청산은
우리 것을 고집합니다.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차문화를 이어갑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한복판에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고집을 부리는 곳이 있습니다.

- 녹차 / 민속차 / 약차 / 건강식(죽)을 최고의 재료를 엄선하여 만듭니다.
- 소모임, 불자들의 신행 모임, 도심 특별 법회, 강연회 등의 장소로도 좋습니다.

다원 녹수청산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 736-3782 •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9, 84, 159, 331, 588-2

해외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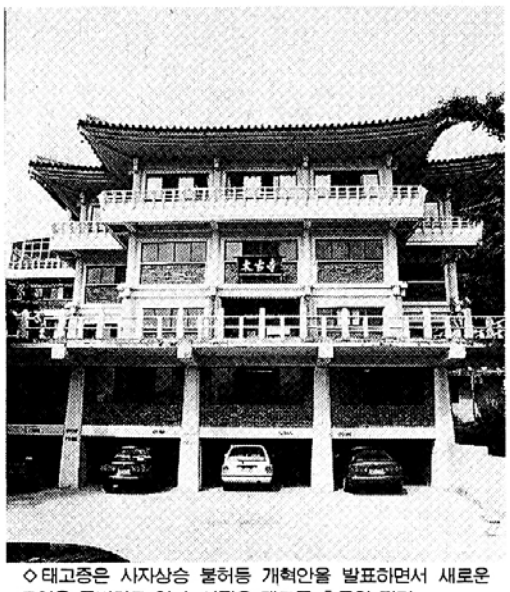
佛典 영역화 추진 日本 불교전도협회

불교를 전세계에 전하기 위해 불교전도협회(회장 누마다)에서는 영역대장경 출판사업을 계획, 대정신수대장경 및 불전의 영역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역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간행된 '팔종강요(八宗綱要)'와 '말법등명기(末法燈明記)'에는 구사종 성실종 법상종 등 종명의 유래와 근거부터 선종과 정토종의 설명까지 첨가되어 있다.

전 도가이(東海)대학의 이시다(石田)교수는 "불교를 세계에 널리 전하기 위해 발족된 불교전도협회의 불전과 대장경의 영역사업은 일본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수의 개론서로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고 대장경 영역사업의 뜻을 밝혔다.

태고종 거듭나기 '바쁜 걸음'

사자상승불허·사찰수입 10% 납부등 개혁안 발표
선암사 불학대학 설립·총무원 봉원사 이전 발의도



◇ 태고종은 사자상승 불허등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태고종 총무원 전경.

종단 재건을 위한 한국불교 태고종(총무원장 서봉스님)의 개혁 발걸음이 본격화됐다.

태고종은 지난 9일 총무원 설법전에서 '종단중흥발전특별위원회(이하 종발위) 공청회'를 갖고 종발위가 발의한 개혁안을 오는 23일 열리는 제 70회 임시중앙종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종발위는 "전통종단으로서 위상을 회복하고 21세기를 선도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총체적인 체질개선이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총무, 교육, 재정, 교화분과별 세부개혁안을 밝혔다.

종발위가 제안한 종단현실타개 실천방안에 따르면 △전래의 기성사찰 운영을 실질적으로 공유화해 사자상승(師資相承)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찰수입의 10%를 종단분담금으로 납부 △선암사에 불학대학 설립 △총무원을 봉원사로 이전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특히 분담금은 그동안 보시형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중생들의 시주은혜에 보답하는 불은세(佛恩稅)개념으로 전환, 반드시 납부하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신도 고부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승려의 '선교육 후득도제'를 채택, 4~6년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승려자격을 부여하고 기성승려는 매년 20일 이상의 연수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종단의 새로운 기풍조성을 위해 종명을 한국 불교 조계종으로 '복귀'하고 성직자를 출가승려와 재가승려로 구분하여 2원화 하자는 안을 내놓았으나 공청회에서 논란이 제기되어 종회안건에서 제외됐다.

이번 종발위 개혁안은 지난 1월 각 교구별로 선출된 69명의 특별위원회 위원이 6차례의 총회와 분과토의를 거쳐 6개월만에 수립됐다.

윤자월 총무부장스님은 "40년간 지속된 종단운영의 폐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종도의 여론에 따라 종단개혁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종회를 거쳐 수립된 개혁안을 따르지 않는 사찰이나 승려는 기득권을 박탈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겠다"고 밝혔다.

태고종 개혁안은 금번 중앙종회의 승인을 받은 후 법령개정소위원회를 구성, 종헌종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태고종 종발위가 제안한 개혁안에 대해 일부 소속사찰에서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찰재산의 사자상승 불허와 분담금납부 등을 강행할 때 종단의 분열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준엽 기자

방송 하이라이트

btn ch32

공동체의식 다지는 기회

TV 신행상담 (22일, 11:10~12:00) '더불어 사는 삶' 편에서는 아직도 끈끈히 이어져오고 있는 공동체의식 속에서 참우리를 찾는 시간을 마련한다.

학림사팀 2승도전

퀴즈특급! 이뭐꼬? (23일, 11:10~12:00) 조계사와 1승의 학림사의 숨막히는 대결이 벌어지는데, 과연 학림사는 이 막강한 도전팀을 이길 수 있을지….

이원섭선생의 저술인생

나의 삶 나의 불교 (24일, 11:10~12:00) 이원섭 선생은 만해스님의 불교대전을 번역한 일부터 시작해서 생명력있는 화두의 세계를 열어보인 깨침의 미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불교서를 번역, 저술했다. 6. 25당시 소총을 잡기위해 법화경을 버려야 했던 기막힌 사연을 들어본다.

당 태종 역경사업 후원약속

삼장법사 현장 (24일, 12:30~13:20) 현장스님은 고국인 당나라를 떠난지 17년만에 경전을 가지고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온다. 태종은 현장스님을 뵌 뒤 그의 학덕에 감탄하여 역경사업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할 것을 약속한다.

BBS
FM 101.9MHz(서울) FM 89.9MHz(부산) FM 89.7MHz(광주)

건국대 성태용교수 강의

오늘을 이끄는 불교 (19일 11:05~11:20) 건국대 철학과 성태용 교수가 '불교와 동양철학'을 강의한다.

광역단체장 선거분석

생방송 천수천안 (21일, 16:10~16:40) 지자제 선거분석 시간으로 15개 광역단체장 선거를 보도국 김정특기자와 분석해 본다.

지자제시대 환경대책

환경패트롤 (24일 14:10~15:00) 지자제를 맞아 불교계의 환경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는 시간.

불방 어머니합창단 찬불

우리들의 찬불가 (25일 15:05~15:45) '열반으로 피어난 연꽃' '꽃으로 앉으신 님'을 불교방송 어머니합창단과 함께 배워본다.

방송가 소식

'btn방' 가입자에 개방

불교TV의 'btn 방'이 두달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설, 일반 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btn 방에는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자비의 천수천안,TV신행상담) △btn 게시판(불교TV가족에게) △프로그램 안내(특집프로, 방송날짜별로 찾기) △btn 광장(행사안내, 불교TV에 바란다)이 있다. HITEL에 들어가서 Go btn을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제주 약천사 다큐제작

불교TV 영상사업부는 64만여평에 1백8만불 봉안과 단일법당으로는 동양최대불사가 진행중인 제주 약천사 현장을 담은 기획다큐물을 6월말부터 11월까지 제작할 계획이다.

부산 btn 주식설명회

불교TV 부산지사는 지난 14일 오후 7시30분 국제호텔에서 2차주식공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지역 2백여 불자들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태응스님(불교텔레비전 사장)은 주식공모를 직접 설명하면서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다.

시청 불가능땐 보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케이블 TV 가입자가 방송사측의 사정으로 방송을 시청하지 못할 경우 최고 한달 수신료 전액을 면제한다'는 약관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5일 이상 방송이 중단되거나 결방일수 7일이상인 경우 전액 면제되고 이외에 결방될 경우 일수에 하루분 수신료를 곱한 금액만큼 감면받게 된다.

낙동강 살리기 특집

불교방송은 오는 23일 오후 7시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낙동강 살리기 특집공개방송을 대구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개방송은 김흥국씨의 진행으로 The Blue, DJ DOC, 녹색지대, 강산에, 신효범, 변진섭 등이 출연한다.

자문·운영위원 등 임명

불교부산방송은 지난 14일 크라운호텔 '동백홀'에서 자문, 운영, 시청자위원등 82명을 선임하는 위촉법회를 봉행했다.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자문위원에 흥교스님(신흥사 조실) 등 11명, 후원회(승가)에는 보경스님(태고종 부산종무원장)등 35명, 운영위원회는 정관스님(범어사 주지) 등 23명, 시청자위원회에는 이춘기교수(부산대) 등 13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상임위원에 각성·원담·정일스님

충북 불방개국 준비위

청주와 대구지역의 불교방송 지방국추진이 가속화 되고 있다.

충북준비위는 지난 12일 청주지역 이사회를 개최하고 공식명칭을 '충북불교방송추진위원회'에서 '충북불교방송 개국준비위원회'로 변경하고 새로운 상임위원에 각성스님(태고종 보타사), 원담스님(법주사 교무국장), 정일스님(전 법주사 주지)을 임명했다.

충북준비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사 설명회와 개국준비위 1차회의까지 실사팀을 구성하여 본사, 대구, 광주방송을 방문, 의견을 청취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역은 지난 11일 대구·경북지역 5개본사 회의에서 지방국허가 설명회를 갖고 불교대구방송 설립추진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지역은 5개 본사를 주축으로 해인사, 진각종, 대구사암련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진불사 13일 봉행

진각종 신촌심인당

서울 창천동에서 서교동으로 이전신축하게 될 이번 불사는 총3백여평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인 심인당과 요사체 부속건물을 갖추고 오는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진각종은 지난 14일 진기 49주년 창교절을 맞아 탑주 심인당을 비롯 전국 각 심인당에서 창교이념을 되새기는 기념불사를 봉행했다.

포교사 교육실시

총화종 칠봉사서

총화종(총무원장 김법은)은 지난 15일 경기도 북부종무원주최로 의정부 칠봉사에서 95년도 포교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포교사교육은 총무원장 스님의 불교기초교리강좌, 법의해설, 전남정 선거관리위원장의 포교사의 역할, 심경강의에 이어 충남종무원장의 종무현황 강의로 진행됐다.

지난 1월에 구성된 태고종 종단중흥특별위원회가 최근 종단재건을 위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 개혁안은 사유화된 종단조직, 재산을 공개념으로 바꾸고 승려교육과 사회에 부응하는 사업전개를 골격으로 하고 있다. 21세기를 앞둔 시대상황에서 태고종 발전을 위해 제시한 종발위의 개혁안은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종발위의 개혁안 발의과정을 살펴보면 총무원이 일방적으로 주관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주고있다.

종발위는 총무원과 중앙종회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교구별로 3명씩 위원이 선출되어 탄생했다. 어느 때보다도 종도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종발위는 분과별로 나뉘어 활동을 펼쳤다. 그런데 수차례의 회합이 있었지만 종도의 여론을 수렴하기보다는 이미 총무원에서 마련한 안건을 논의하는 단계에 그쳤다는 것이 종발위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한 23일 열리는 중앙종회에 개혁안승인의 건이 안건으로 채택되어 있지만 아직도 지방종회에서는 개혁안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혁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종회는 결국 거수기 역할만 하는 의례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총무원 관계자들은 "이번에 추진하는 개혁안은 종단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전제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찰이 5백개만 되더라도 종단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 사실사암으로 이루어진 태고종은 종발위가 발의한 '사자상승 불인정, 분담금납부' 등의 개혁이 실시될 경우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다시 종단분열을 예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개혁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화합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일부 기득권자들의 주도아래 일방적으로 '나를 따르라'는 식의 개혁은 많은 위험을 내포할 뿐이다.

태고종은 40여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분열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역, 문중간의 이해관계와 사찰재산권문제로 10여차례 군소종단으로 갈린 것이다.

태고종 개혁안은 금번 중앙종회에서 승인되지 못한다면 2천여 사찰의 행보는 더이상 책임지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태고종은 40여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분열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역, 문중간의 이해관계와 사찰재산권문제로 10여차례 군소종단으로 갈린 것이다.

태고종 개혁안은 금번 중앙종회에서 승인되지 못한다면 2천여 사찰의 행보는 더이상 책임지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태고종은 40여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분열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역, 문중간의 이해관계와 사찰재산권문제로 10여차례 군소종단으로 갈린 것이다.

목탁소리

이 준 엽 〈취재1부 차장대우〉

태고종 개혁의 앞날

대부분 사실사암으로 이루어진 태고종은 종발위가 발의한 '사자상승 불인정, 분담금납부' 등의 개혁이 실시될 경우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다시 종단분열을 예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개혁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화합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일부 기득권자들의 주도아래 일방적으로 '나를 따르라'는 식의 개혁은 많은 위험을 내포할 뿐이다.

태고종은 40여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분열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역, 문중간의 이해관계와 사찰재산권문제로 10여차례 군소종단으로 갈린 것이다.

태고종 개혁안은 금번 중앙종회에서 승인되지 못한다면 2천여 사찰의 행보는 더이상 책임지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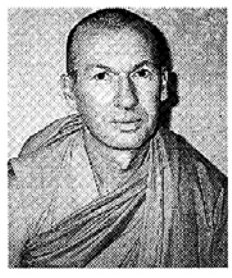
태고종은 40여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분열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역, 문중간의 이해관계와 사찰재산권문제로 10여차례 군소종단으로 갈린 것이다.

태고종 개혁안은 금번 중앙종회에서 승인되지 못한다면 2천여 사찰의 행보는 더이상 책임지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태고종은 40여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분열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역, 문중간의 이해관계와 사찰재산권문제로 10여차례 군소종단으로 갈린 것이다.

인터뷰

수 와지라 스님



"인도 하층민 돕기에 한국불자 자비를"

인도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 와지라스님(영국인, 42)이 자선기금 모금을 위해 방한했다. 서양불교승가회(Western Buddhist Order)에 소속돼 있는 스님은 지난 78년부터 인도에 머물며 불가촉천민등 인도 하층민들에게 의료와 교육사업을 펼치며 불교도로 개종시키고 있다.

영국과 대만 등을 돌며 자선기금을 모금해 온 수 와지라스님은 "삼촌이 한국전에 자원 참전했다"며 그래서 한국은 오래전부터 와 보고 싶은 나라였다고 밝게 웃는다.

비구니회에서 2백여만원, 정우스님이 4백만원, 일면스님이 2백만원, 이화불교사 10만원 등 한국불자들의 정성어린 보시가 고맙기 그지없다는 수 와지라스님은 오는 29일 인도로 돌아간다.

도움주실 분 (02)703-6792

생전 예수재 및 水子靈 천도를 위한

백일미타기도봉행



수자영가의 천도를 발원하여
이 세상에 자비의 몸을 나투신 수지지장보살(사본용)

대원사는

백제 무녕왕 3년(서기 503년) 아도화상이 창건한 백제 고찰입니다.

수자지장보살(水子地藏菩薩)을 봉안하고 수자영가의 천도를 기원해온 대원사에서는 수자영가의 천도 및 생전 예수재를 위한 제4차 100일 미타기도를 봉행합니다.

수자령이란 부모와 인연은 맺어졌지만 이 세상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불쌍한 어린 영혼들을 말합니다.

수자영가의 천도를 봉행하는 목적은 첫째, 씻을 수 없는 부모의 죄업을 참회하여 안정과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고 둘째, 전생과 금생의 나쁜 인연을 소멸시켜 삶의 고통과 장애로부터 벗어나며 셋째, 원결 맺힌 영가들을 해탈시켜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며 넷째, 불보살의 큰 서원에 의탁하여 대승의 마음 일으켜 삶의 고통과 죄업에 몸부림치는 이웃들의 다정한 벗이 되어 보살의 삶을 실천하고자 합입니다.

그리고 금년(을해년) 윤달을 맞아 예수재 의식을 봉행합니다.

생전 예수재(生前 預修齋)란 자신의 사후(死後)에 행할 49재의식을 생전에 미리 닦는 불교의 전통의식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입시공부를 하듯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모든 인간들은 예수재를 통하여 미리 죽음의 세계를 공부해야 합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다시 태어남, 그 중간에 위치하는 중음(中陰)의 단계에서 해탈의 길을 인도해주는 티벳불교의 성전, 중음천도밀법(中陰滅度密法:BARDO THODOL)의 의궤에 의지하여 예수재 의식을 봉행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한 최고의 성전 사자(死者)의 서(書)는 생전에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이 경전을 듣는 것만으로 해탈을 할 수 있다는 부사의한 경전입니다.

금번 대원사에서 처음으로 봉행하는 생전 예수재 의식에 함께 동참하시어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나는 일.'이라는 삶의 진실을 깨닫고 삶의 집착에서 오는 고통과 재앙의 매듭을 풀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공덕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아! 너는 너의 의사에 반(反)하여 죽는구나.
죽음이 무엇인지를 배우지도 못하고서
죽음을 배울지니라. 그러면 그대는 삶까지도 배우게 될 것이니라.
죽음을 배우지 못한 자는 삶까지도 배울 수 없게 될 것이니라. (티베트 死者의 書)

수자영가의 천도 및 생전 예수재에 동참하신 분에게는

① 사후세계를 소상히 밝혀 놓은 소책자 「중음천도밀법(中陰薦度密法)」
② 염불신앙의 길잡이 「염불신행요전」
③ 기도용 지장보살 사진
④ 사경과 사불을 위한 반야심경과 지장보살 체본
⑤ 백일기도를 위한 일일 수행법과 영가축원문 등을 우송해 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1995년 5월 14일(입재) ~ 1995년 8월 20일(회향)
- 동참회비 : ① 수자령 천도 : 기도금(3만원) 영가 1인당(5천원)
  ② 생전 예수재 : 기도금(5만원)
- 연 락 처 : 546-840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
  전화 (0694) 52-1755 · 팩스 (0694) 53-0009
- 온 라 인 : 조흥은행 322-06-008780 (석현장)

지장보궁 염불선 도량 대원사
주지 석 현 장 합장

1박 2일 출가생활

대원사 주말 수련회

염불선 수련도량 대원사에서는 재가불자들의 올바른 신행을 위해 '맑고 향기롭게'란 수련 주제로 아래와 같이 1박 2일의 단기출가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성을 맑혀 향기로운 삶을 이루기 위한 대원사 주말수련회에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아래

- 일 시 : 매주 토요일 5시~일요일 2시(10명 이상 단체 환영)
- 수련내용 : 염불명상법, 선체조, 자비관, 관정기도, 육근참회, 백만편 염불, 사경, 티벳불교 명상법
- 수련지도 : 현장스님 ■회비 없음
- 교 통 편 : 광주고속버스터미날에서 117번, 217번 시내버스 타고 (사평종점 하차) 대원사까지 택시(혹은 군내버스)

'좋은 방송 만들기' 사부대중 한 뜻

btn·BBS 후원회, 소식지 발간·제작비지원등 보시 열심

BBS와 btn의 후원회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양방송사의 후원회는 경쟁적 방송시장에서 종교방송으로의 특수성을 살려주는 주도적 기간조직으로 자리잡고 있다.

불교방송 프로그램후원회(회장 상륜스님)는 6월 현재 3천5백여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매달 1천5백~1천6백만원의 후원금이 접수되고 있다. 예치액만도 2억여원에 이르고 매달 6백만원을 편성제작부에 프로그램 후원비로 지원하고 있다.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듣고 싶은 자발적인 원력으로 91년 11월에 창립된 프로그램후원회는 불교방송 15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매월 소식지를 발간하는등 회원간 유대강화와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산·광주방송 개국으로 가족이 날로 늘어가고있는 불교방송 프로그램후원회는 올해들어 1만명 배가운동을 펼치며 지역후원회조직 창립등 활성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후원회 사무총장 정목스님은 "앞으로 실질적인 방송장비들을 기증하겠다"며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법회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방포교사로서의 불교텔레비전 발전을 측면 지원하는 불교TV 후원회는 부산 광주에 조직돼 있다.

부산후원회(회장 이윤균)는 1차적으로 부산·경남지역 4백만 불자들의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진력하고 있으며 잡지형식의 후원회보도 발간하고 있다. 현재 부산지역 1백17명, 경남지역 15명이 매달 후원회비와 함께 격려를 보내고 있다.

광주후원회(회장 이범식)도 궁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종로경찰서 경승실 개원 지난 14일 제3별관 2층에 법당과 휴게실을 마련,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경승 태부족…"선도기능 못한다"

197개 위촉 경찰서중 70곳만 활동…활성화 대책 시급

전국 2백51개 경찰서중 경승이 위촉된 곳은 1백97곳, 이중 경승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전 경찰서의 절반도 안되는 1백20여 곳에 불과하며 위촉조차 되지 않는 곳이 5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승실이 있는 곳은 70개 뿐이고 1백81곳은 경승실이 없거나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이 오는 23, 24일 경승단 연수회를 앞두고 경승위촉 현황 조사에서 나타났다.

매주 법회를 여는 곳은 13곳, 월법회는 활동관서의 33곳에 불과할 정도로 활동이 미약할 뿐더러 청소년 선도법회를 여는 곳은 7곳, 윤락여성을 위한 법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승제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필요한 경비를 자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승들이 재정문제 때문에 중간에 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

포교원은 경승연수후 경승활동이 미진한 곳은 교체하고 결원된 곳은 새로 위촉하는 등 경승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한편 경목은 경승의 총 5백41명의 3배가 넘는 1천867명이다. 경목의에 치안감등 전직 기독교인 경찰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교회와 경찰서협의회 5천254명이 다양한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어 불교와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경협의회는 주간 선교지인 「경찰선교신문」까지 발행, 전국 경찰서, 기동대에 배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경북 본말사회의 2백여 주지스님 참석

제2차 대한불교조계종 대구·경북 5개 본말사 주지 연석회의가 지난 11일 대구 능인중·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송월주 총두원장, 동화사·불국사·고운사 주지스님 등 200여명의 주지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주지스님들은 △조계사 공권력 투입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공명선거 촉구 △대통령 공약사항인 종교단체의 종토세와 초토세 폐지 △가야산 골프장 건설 철회 △5개 본말사 기구 설치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리산 개발 관련 공약

경남지사 후보 이견

해인사 골프장 건설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지리산도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경남지사 여야 후보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민자당 김혁규후보는 지리산 디즈니랜드 개발 계획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한 반면 자민련 김용균후보는 "산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관광자원"이라며 "환경파괴가 뻔한 지리산 개발사업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우도량 화엄학림 현판식

지난 5일 교육법이 정하는 종단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받은 선우도량(상임대표 도법스님) 화엄학림이 20일 오후 1시 남원 실상사에서 현판식을 갖는다.

대구불교회관 공사중단 방치

철근등 부식 심해 장마철 앞두고 민원 일어

대구불교계의 숙원사업인 대구불교회관 공사가 중단된채 방치돼 있고 붕괴의 우려마저 높아 지역불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93년 6월 착공해서 9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대구시 동구 신천4동에 건립중이던 대구불교회관은 현재 약 30% 정도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로 지난 1월 재정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장기간의 공사중지로 인해 철골·철근·철물 부식이 심해 주변의 민가 등지에 녹이 날아들고 있어 수차례 민원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앞으로 여름장마가 시작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공사를 수주한 경일건설의 한 관계자는 "이대로 계속 방치될 경우 흙막이 공사를 위해 설치해 놓은 구조물의 부식이 심해져 붕괴의 위험마저 있다"며 대형사고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회관 불사는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스님들이 대구불교의 중흥을 위해 지난 88년 독립법인인 마하야나불교문화원을 설립한 뒤 대지 377평 연건평 2361평에 지하2층, 지상8층의 규모로 건립되고 있는 대구불교의 숙원사업이다.

백련사 입구 복합건물 통행지장 시정 요구

서울서대문구 백련사(주지 운암스님)와 주민들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 의원인 구모씨(민자당)가 홍은동 277-65에 7층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서 개인 소유의 토지라며 각각 5m폭의 기존 2차선 도로중 1개 차선을 2m나 들어와 주민들의 통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따라 백련사와 주민들은 출퇴근시 병목현상과 급경사로 인한 사고, 홍연국교생들이 통학시 차도통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감사원 서울시청 서대문구청에 도로원상복구를 진정해왔다.

'불교한국승가' 창립

한국의 승가상 선양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한국승가' 창립총회가 도성·비용·덕암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부산 태종사에서 봉행됐다.

"통합 신도조직 마련을"

10일 재가연대회의 '역할모색' 토론회

변화의 시대를 맞아 재가불자의 역할모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10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범불교재가연대회의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문옥씨(한국 재가불자연합 공동의장)는 '불교개혁의 평가와 전망'을 통해 "지난해 조계종 개혁은 스님뿐아니라 사부대중이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며 "재가불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재성교수(한국불교대)는 바람직한 전국재가 조직을 위해서는 먼저 △재가불교인으로서 대중성을 확보하는 운동 △재가불교의 생산적기반을 확충하는 운동 △조직의 문화적 특성 계발과 다양성 확보 및 통일적 연대운동 △종교간 대화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에서 박희택(대한밀교청년회 회장)은 "승·재가는 상호공양, 열린마음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4~5개 종단이 통합한 신도연합단체형식의 조직체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물남용 예방 캠페인 전개

청교련, '청소년 밝고 건강하게' 주제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약물 남용 피해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인식, 고취시키는 캠페인이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의 주최로 지난 17일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됐다.

'우리의 청소년 밝고 건강하게'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날 '한국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캠페인'은 비원까지 가두캠페인으로 진행됐다. 가두행진에는 사물놀이팀의 길놀이와 함께 탈과 현수막으로 분장한 청소년들의 가장행렬이 함께 진행돼 캠페인 문화의 새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약물 남용 예방 캠페인'은 7월9일 인천지부, 8월13일 대구·경북지부, 9월17일 충북지부, 10월22일 온양 아산지부에서 계속 진행된다.

인권법당 '길상사' 개원

불교인권위, 20일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한상범)가 창립 이후 6년만에 마침내 오랜 숙원이던 인권위 법당을 마련했다. 인권위는 20일 오전 10시 종로구 화동에 인권법당 길상사를 개원하고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한다.

진관스님은 "인권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인권법당을 마련하게 됐다"며 법당마련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인권법당이 마련됨에 따라 장기수 영치금 지급, 정신대 할머니 집 건립기금 마련, 인권상 선정 등 한국인권문제 개선에 일익을 담당해 왔던 불교인권위는 보다 전문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4월 건립기금 마련전을 여는 등 인권법당 마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불교단체 환경운동 저조하다"

불교문화원 설문조사

불자들은 불교의 바루공양 채식식단 무소유사상 등이 환경보전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면서도 불교계의 환경운동은 활발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불교문화원(대표 홍무흠)이 지난 3.4일 청정국토한마당에 참가한 불자 3백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환경오염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노력하는 집단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절반을 넘는 53.7%가 민간환경단체를 꼽았다. 불교를 포함한 종교단체라는 응답은 15.5%에 그쳤다. 반면 불자들의 87.9%는 불교가 환경보전과 관련성이 높다고 응답해 교계의 활발한 환경운동을 촉구했다.

응답자들은 불교계의 환경보호를 위한 역할로 사찰주변 환경보호(40.1%), 환경교육 실시(39.0%), 환경단체 설립과 지원(16.8%)을 꼽았으며, 44.5%의 불자들은 환경오염 감시 및 캠페인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금하선원 이웃돕기 차공양

금하선원(원장 청암스님)은 오는 24일 강남구 일원 공원에서 '청소년 가장돕기 일일 야외 차공양'을 마련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쌀 50여 가마를 전달하고, 감로심장재단에 심장병 어린이 수술기금도 전달한다.

WFB정총 내년 11월 서울개최

제20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 및 제11차 세계불교청년회(WFBY) 정기총회가 내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된다.

세계불교청년회는 지난 9일 방콕에서 이사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8백여명의 각국 대표단은 8월6일 세계평상의 날을 기해 명상(참선)행사를 실시키로 결의했다.

공추불, 해인골프장 반대 성명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회장 월주)은 지난 13일 해인골프장 건설과 관련 성명을 내고 △해인골프장 건설승인의 즉각철회와 원상복구 △가야산 국립공원 보존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우리는선우' 속초지부 결성

우리는 선우 속초지부결성을 위한 지역법회가 지난 10, 11일 양일간 속초 신흥사와 원각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법회에서 남지심 박광서 공동대표는 각각 '오늘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21세기 미래불교의 역할'이란 주제의 강연을 펼쳤다.

와타나베 망언 사죄 촉구

최근 일본 전외상 와타나베 마이치오의 망언과 관련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김문숙)는 지난 7일 '역사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정치가 와타나베의 망언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와타나베는 한국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연제구 사암련 창립

부산광역시 연제구사암연합회 창립총회가 지난8일 연산동 목화예식장에서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 초대회장에 원장(정수사 주지) 스님을 선출했다.

대구지하철 희생자 위령대제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원장 박관허스님)은 지난 14일 대구 두류공원내 야구장에서 '국가재난 소멸기원 및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희생자 위령대제'를 거행했다.

중앙승가대 발전기원 법회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스님) 발전을 위한 기원대법회가 지난 9일 부산 동래구 허심청에서 열려 8백여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12억5천만원의 기부금이 약정됐다.



불교 성지 순례

백 두산·연길·북경 5일
·출발:7월 15일, 7월 29일
·동참금:100만원
·일정: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스리랑카 6일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출발:7월 7일, 8월 4일
·동참금:118만원

■여행조건 ●호텔:특급 및 1급,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보로부두르 사원-
·출발:7월 9일, 7월 23일
·동참금:95만원

대 만 5일
-불광사·화련·타이페이-
·출발:7월 11일, 8월 20일
·동참금:65만원

중 국불교유적지 13일
·출발:7월 18일, 8월 29일
·동참금:195만원
·일정: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실 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
·출발:7월 21일, 8월 25일
·동참금:188만원
·일정: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 벳·네팔 9일
·출발:7월 23일, 8월 27일
·동참금:210만원
·일정: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쟝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사세 확장으로 의욕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얼마나 더 손님으로 와야 할까"



◇조선불교도연맹에서 2차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한 남북대표단자들. 왼쪽부터 박일진, 류인수 선사, 정산스님, 박태호위원장, 촬영대부위원장, 지현정사, 심상련서기장, 정서화선사. 젊은이들은 모두 불학원 출신들이다.

지현정사가 본 북한불교

조선불교도연맹 방문 〈5 · 끝〉

'통일 시금석 찾기' 회담 3시간…성과기대

남북교류 "혼선 피하자" 창구 일원화 합의

4월30일 오후 2시30분. 두번째이자 이번 방북의 마지막 일정으로 조선불교도연맹을 방문하였다. 지난 27일 만남에서 격의없이 나눈 대화를 정리하여 이제 통일을 위한 장식으로 직접 사용할 금강같은 언어들을 간추리기 위한 시간이었다. 예정대로 이날 우리를 맞은 사람은 박태호위원장. 박위원장, 그는 누구인가. 그는 그야말로 북한불교의 얼굴인 종정이자 총무원장과 같은 사람이다.

시절 인연을 기다리며

그를 만난 분들은 알겠지만 그는 지도자의 위상에 걸맞는 외모와 많은 대외 접촉 경험에서 오는 여유와 인내심을 함께 지닌 사람이다. 간혹 북한의 다른 불교 인사들을 만났을 때 종교인으로서 주는 외양에 대한 이미지에 어딘가 의아해 하던 사람들도 일단 박위원장을 만나면 그 느낌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올해 76세. 그는 북한 불교의 시작이요, 마침표였다.

이층 접견실로 안내된 우리들은 황부위원장, 심심련서기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은 내용들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일에는 반드시 때(時) 사람(人) 장소(場) 등의 삼인(三因)이 맞아야 하는데 인연이 부족한 탓에 오늘의 남북불교 교류는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조금씩 흘러가는 것 같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이날의 우리 만남에서 비롯된 샘이 흘러가는 물줄기라면 돌아와 바다 건너에서 이 방북기를 쓰는 불자의 마음은 호못하기만 하다.

이날 박위원장은 종단협의회장, 광복협회장, 총무원장의 직함이 장황하게 나열된 송월주스님앞으로 된 서신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점을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연유는 지금까지 북쪽이 어떤 접촉 문제를 남쪽에 제기할 때 각 개인을 상대로 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쪽의 통일논의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요인이었고, 이의 시정을 필자가 강하게 주장하자 저쪽이 그것을 어렵지 않게 수긍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에도 북한은 월주, 법타, 진관, 지선스님에게 각각 편지를 보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네분 모두 남쪽 불교의 대표 자격이 있는 분들이지만 이런 식으로 불교문제가 논의되다 보면 자연히 주도권 및 융지 못한 경쟁이 통일 대열을 복잡하게 만들까 뜻있는 불자들의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았던 것이다. 눈여겨 보면 알 것이다. 위와같은 절묘한 타이틀로 묶였을 때 이들 네분의 대표성은 물론 불교 각 종단도 포함될 기회가 열려 미연에 있을지도 모르는 불안 논의의 혼잡성을 방지하는 명료한 결정인 것이다.

무겁게 느낀 잿빛 장삼

회담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도 있고 이와같이 보이지 않는 성과도 있다. 모처럼 만든 기회를 다시 우리 스스로 흐트리는 우(愚)가 없기를 기장으로 박태호위원장에게 중절모를 선물하였는데 박위원장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쓰고 모든 기념촬영에 임하는 보기 좋은 장면을 연출해 주었다. 두분 모두 황혼 무렵에 선 노구로서 이제 이 원(願)을 후생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풀고 갈 것인지 잿빛 장삼이 더욱 어둡고 무겁게 느껴졌다.

평양 8박9일의 마침표를 이렇게 찍으며 얼마나 더 손님이 되어 다시 이곳에 와야 통일이 될 지 개나리꽃 우거진 모란봉 기슭을 내려오는 필자의 마음은 시심과 불심으로 어지럽기만 했다.



◇광법사에서 평화통일발원문을 봉독하는 필자(오른쪽 두번째). 이날 정산스님과 지현정사는 광법사 강구인 주지스님과 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를 올렸다.

주부신행담

폭풍이 지난 들에 핀 꽃 ②

"편지를 주신 교우님이 생각하는 것같이 불교는 우상숭배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몇천년을 같이 해 온 민족종교로써…, 기독교를 믿는 며느리는 불교를 믿는 어머님의 종교를 이해하고 또한 불교를 믿는 어머님은 기독교를 믿는 며느리를 이해하므로써 시어머님이 감동하게끔 사랑으로써 며느리가 열심히 부모님께 잘하면 시어머님의 마음도 기독교를 이해하게 된다"는 말씀이었다.

이 답장에 나는 모든 고민을 털어 버렸다. 내가 잘해서 시부모님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겠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기독교인 며느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지금은 서울로도 어머님은 민족해 하시는 것 같았다. 절에 가자 라는 말 안하시듯, 교회 가지말라는 말씀도 없으셨다. 은연중에 어머님이 보이시는 보살행으로 나는 불교에 친근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시집가서 애낳고 살면 약하던 몸이 건강해진다는 윗어른들의 말씀이 있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약골의 몸은 결혼 후에도 이유없이 잘 아팠다. 애 낳고도 몸이 쇠약해지는 딸을 보며 친정부모님도 속태웠고 시부모님도 각별히 보살피셨다. 며느리를 두어 편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상전을 모신 기분이셨으리라.

결혼한 지 7년 되던 해 피로가 유난히도 몰려와 사람을 자치게 만들곤 했다. 잔기침도 조금씩 하고, 가래도 색다르게 나와 피곤을 견디다 못해 병원을 찾았다. 시장을 갔다가도 되돌아오기가 무섭게 시장바구니를 내던지고 마루에서 잠들 정도로 피로를 이기지 못했다. 검진해보니 신장결핵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독한 약으로 몇개월을 지내다 약으로 인한 위장에 이상이 생김을 느끼고는 한약과 다른 자연식품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장기간 계속되다보니 지쳐왔다. 운명은 재천이라는 생각에 모든 약을 끊어버렸다. 얼친 데 덮친격으로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 몇천만원이라는 돈이 날아가 버린 것이다. 회사 다니면서 절대적으로 믿던 직원에게 발등을 찍힌 꼴이었다. 믿사가 귀찮아져서 몸은 더욱 쇠약해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주위에서는 하나님 믿다가 믿지 않아서 벌받는 거라고 교회 나가기를 계속 종용했다.

시어머님의 자비에 나는 불교라는 '큰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으나 구체적인 만남은 병으로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그때부터였다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는 데 혼자 살겠다고 약 먹는 것도 사치인 것 같아서 막무가내로 먹지 않겠다고 우겼다. 하루는 남편이 내게 기도원에 요양이라도 가지 않겠느냐고 권했다. 살아서 눈감기 전에는 며느리 교회 나가는 것 안 보겠다던 시어머님 조차도 "네가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서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면 교회를 다녀라"고까지 말씀하셨다. 주위에서 하는 말들을 귀에 담아 두셨던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교회도 기도원도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가보지도 못한 절에 가서 요양을 하고 싶었다.

내 의사를 식구들에게 밝히자 시어머님은 며느리가 드디어 불교와 인연을 맺는가 싶어서 기뻐하셨다. 나는 시동생과 남편의 동행으로 충남 예산에 위치한 수덕사에 가기로 하였다. 불교와의 만남은 몸과 마음이 쇠잔해져 지칠대로 지친 그때부터 시작됐다. 김 묘명심 〈파주 보광사〉

6월27일은 지자제선거일.
다같이 투표에 참여 합시다.

신명나는 지방자치, 힘차게 다시 뛰시다!

韓國



医藥品
용법·용량 : 1일1회1병
효능·효과 : 육체피로·
자양강장·허약체질
표준소매가격
550원



韓國人 —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다시합쳐 힘을 모읍시다.

지방자치는 세계화의 출발 -
깨끗한 선거, 바른선택으로
21세기 우리 조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세계로 가는 한국,
미래로 가는 한국인-
우리의 힘과 저력뒤엔
언제나 인삼이 든 원비·엘가
함께합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일양약품

洋·韓方의 과학화를 선도하는…